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7

다니엘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다 니 엘

## Daniel

크도다 그 이적이며,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  
대에 이르리로다 (4:3)

אַתּוֹהִי כְמוֹהַ רַב־בֵּינָן וְתַמְהוּהִי כְמוֹהַ תְּקִיפִין  
מְלֻכּוֹתֶיהָ מְלֻכּוֹת עֲלָם וְשִׁלְטָנָהּ עִסְדָּר וְדָר:

## 다니엘 차례

---

다니엘 서론	〈15제〉	9
제 1 장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적 절개	〈18제〉	16
제 2 장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	〈27제〉	24
제 3 장 풀무 불 속의 세 친구	〈24제〉	35
제 4 장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의 정신 이상	〈26제〉	44
제 5 장 벨사살의 축제와 하나님의 글씨	〈21제〉	53
제 6 장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다	〈24제〉	61
제 7 장 다니엘이 꿈속에서 이상(異像)을 받다	〈26제〉	69
제 8 장 다니엘이 두번째 이상을 보다	〈23제〉	78
제 9 장 칠십 이레의 예언	〈27제〉	86
제 10 장 헛데겔 강가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	〈20제〉	96
제 11 장 진리의 글에 기록된 비밀들	〈34제〉	103
제 12 장 마지막 때에 대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12제〉	114

## 다니엘 특별 자료 차례

---

다니엘 서론 〈연구 자료〉	열국(列國)과 관계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이상(異像)	15
제 1 장 〈화보 자료〉	왕의 진미(珍味)를 거절하는 소년들	23
제 2 장 〈화보 자료〉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神像)	34
제 3 장 〈화보 자료〉	풀무 불 속의 세 청년	43
제 4 장 〈본장의 요절〉		52
제 5 장 〈본장의 요절〉		60
제 6 장 〈화보 자료〉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68
제 7 장 〈지도 자료〉	다니엘이 이상(異像) 중에 본 네 나라	77
제 8 장 〈본장의 요절〉		85
제 9 장 〈화보 자료〉	천사 가브리엘(Gabriel)	95
제 10 장 〈연구 자료〉	미가엘(Michael)과 가브리엘(Gabriel)	102
제 12 장 〈본장의 요절〉		117
제 12 장 〈연구 자료〉	구약에 나타난 부활 사상	118

# 다니엘 서론

##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많은 비평 학자들은 본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생존 연대(B. C. 600-530)와 본서의 저작 연대(B. C. 175-164년경)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본서가 다니엘 생존 기간 중이나, 아니면 그가 죽은 직후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쓰여졌다고 본다.
- (3) 또한 그가 겪은 역사적 경험과 그가 받은 환상들이 모두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니엘은 그것을 기록할 때 서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4)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본서의 저자가 다니엘임을 인정하시고 그의 글을 인용하신 데 있다(참조, 마 24:15).
- (5) 그리고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을 노아, 욥과,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종이며, 충성된 사역자로 언급한 것이다(겔 14:14, 20;28:3).
- (6)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본서는 다니엘 자신이 직접 쓰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을 저자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 2.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명칭은 그 저자의 이름을 따라 '다니엘' 서(書)로 정해졌다.
- (2) 그는 본서의 주인공이고 본서 전체의 예언적 이상(異像)을 받아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자였다.

##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이 부분에 이르러 저자의 문제까지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다.
- (2) 즉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본서가 B. C. 6세기 후반에 다니엘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일부 비평 학자들은 그 기록 연대를 B. C. 175-163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 시대로 본다.
- (3) 그러나 본서에 사용된 아람어가 B. C. 5세기의 아람어 문서를 통해 보더라도 당시 근동 지방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또한 성경에서 본서에만 등장하는 벨사살(7:1)의 신분에 대하여는 나보니두스의 역대기에서 발견되었고 메대 왕 다리오(Darius, B. C. 539-538)가 고레스의 부하인 구바루와 동일 인물임이 밝혀졌다.
- (5)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가 B. C. 2세기의 마카비 시대라는 주장은 일축되고 B. C. 6세기의 학설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4. ㉠ 본서의 기록 장소와 수신인은 누구인가?

- ㉠ (1) 본서의 저작 연대가 B. C. 6세기라는 결론으로 볼 때 집필 장소는 분명히 바벨론이다.
- (2) 또한 본서의 내용이 팔레스틴의 환경과 일치하는 것이 없으며 반대로 바벨론적 배경과 부합된다.
- (3) 따라서 본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외국의 포로 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병행에 관하여 교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5. ㉠ 본서의 저자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 ㉠ (1) 성경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세 명이다.  
 (2) 그 첫째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 낳은 아들(대상 3:1)이고 둘째는 에스라 시대의 레위인(스 8:2; 느 10:6, 7)이며 세째는 본서의 저자이다.  
 (3) 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4) 본서의 저자인 다니엘은 성경을 통하여 어떤 가문 출신인지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고 또한 팔레스틴에서 그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그러나 그가 평민 출신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는 B. 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B. C. 605-562)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1차 포로로 잡혀 갔는데 그때는 유다의 왕족과 귀족만을 골라서 잡아갔기 때문이다(1:3, 4).  
 (6)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특출하여 비록 포로의 몸이었으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  
 (7)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불신자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이방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갖게 하셨다.  
 (8) 그는 바벨론에서 새 이름, 즉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뜻은 ‘오 벨(bel) 신이여 왕의 불모를 보호하소서’이다.  
 (9) 다니엘의 종말에 관한 것과 그의 장지(葬地)에 관하여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으나 그가 유다로 다시 돌아왔다는 설(說)과 바벨론에서 죽어 왕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6. ㉠ 본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서가 포함하고 있는 역사의 기간은 B. C. 605-536년의 70년간임을 알 수 있다.  
 (2) 즉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백성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B. C. 605) 다니엘도 함께 잡혀가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티그리스 강 기슭에서 마지막으로 환상을 본 고레스 3년(B. C. 536)까지의 기간이다.  
 (3) 다니엘이 활동하던 때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①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B. C. 605-562) : 그는 부친인 나보폴라살(Nabopolassar, B. C. 625-605)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 갈그미스(Carchemish)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수리아와 팔레스틴을 정복하여 그의 지배권을 넓혔다(B. C. 605, 대하 35:20; 사 10:9; 렘 46:2).  
 ② 에월드로닥(Evil-Merodach, B. C. 562-560) : 그는 통치 기간 중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왕하 25:27-30).  
 ③ 네르갈사레셀(Nergalsarezer, B. C. 560-556) :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를 옥에서 석방시켰다(렘 39:3). 특히 신을 모독하고 왕위를 찬탈(篡奪)한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록이다.  
 ④ 라바시말дук(Rhabashi-Marduk, B. C. 556) : 그는 왕위 계승 9개월 만에 제사장들에 의해 폐위되었다.  
 ⑤ 나보니두스(Nabonidus, B. C. 556-539) : 기록에 의하면 그는 신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다. 다니엘 5장과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B. C. 539년 메대·바사에 의해 망하기까지 나보니두스는 그의 아들 벨사살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⑥ 고레스(Cyrus, B. C. 539-530) : 그는 바사 제국의 설립자로서 혼란한 제국을 잘 조직하여 안정된 국가로 만들었으며 또한 메대를 병합하여 메대·바사 제국이 이

룩하였으며, 그는 즉위하면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조서를 발표하였다 (대하 36:22, 23; 스 1:1).

7. **㉠** 히브리어 성경의 구분법과 개역 성경의 구분법에 의하면 본서는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 ㉠** (1) 두 가지의 성경 분류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다.  
 (2) 그 차이를 도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히브리어 성경 분류		한글 개역 성경 분류	
분 류 법	책 명	분 류 법	책 명
율 법 서 (Torah)	창 세 기 출애굽기 레 위 기 민 수 기 신 명 기	율 법 서 (모세 오경)	창 세 기 출애굽기 레 위 기 민 수 기 신 명 기
예 언 서 (Nebim)	전선지서	역 사 서	여호수아 사 사 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후선지서		이 사 야 예레미야 에 스 겔 호 세 아 요 엘 아 모 스 오 바 다 요 나 미 가 나 홈 하 박 국 스 바 나 학 개 스 가 라 말 라 기
		시 가 서	읍 기 시 편 잠 언 전 도 서 아 가
성 문 서 (Kethubim)	시 편 기 읍 기 잠 언 룻 기 아 가 전 도 서 애 가 에 스 더 다 니 엘 에 스 라	대선지서	이 사 야 예레미야 애 가 에 스 겔 다 니 엘
		소선지서	호 세 아 요 엘 아 모 스 오 바 다 요 나 미 가 나 홈 하 박 국 스 바 나 학 개

12 다니엘 서론

	느헤미야 역대기상·하	스 가 라 말 라 기
--	----------------	----------------

(3) 두 가지 비교법에 의하면 본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성문서, 개역 성경의 대선지서에 속한다.

(4)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성문서는 다시 세분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① 시가서(욥기, 시편, 잠언) ② 다섯 두루마리(五軸)(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③ 역사서(다니엘,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로 분류된다.

8. ㉠ 본서에 사용된 언어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본서는 한 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2) 2:4b-7:28까지는 셈어 계통의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3) 이런 문제로 인하여 본서의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2:4b-7:28은 익명의 저자가 지방어(地方語)인 아람어로 기록하였다고 본다.

(4) 그렇지만 1:1-2:4a는 본서의 서문에 해당하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4b부터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아람어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 7장 끝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5) 이것을 볼 때 다니엘서의 저자는 주로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의 도래(到來)에 대한 환상들을 1-6장의 주인공이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따라서 이것은 다니엘서 전체가 한 저자에 의하여 기록된 것임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가 된다.

9. ㉠ 본서의 문학적 특징을 설명하라.

㉠ (1) 일반적으로 본서는 '묵시 문학'으로 일컬어지는 유대 문학의 양식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2) '묵시'란 '취장을 건어 낸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아포칼립시스)에서 파생된 것이다.

(3) 본래 이 말은 환상 등으로 나타나는 신적 계시의 공개를 의미하였는데 후에 그런 환상들이 기록된 책들을 가리키며 하나의 문학 양식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다.

(4) 이런 책들은 그 양식에 있어서 문학적이고 상징적 언어들이 사용되었는데 본서도 다른 묵시 문학의 작품과 비슷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5) 따라서 본서도 다른 묵시 문학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예언적 가르침을 사용하지만 가능한 한 구약의 상징적 가르침의 사용을 억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징표에 관한 화려한 서술을 피하고 있다.

10. ㉠ 본서의 정경성(正經性)에 관하여 약술(略述)하라.

㉠ (1) 본서는 처음부터 히브리 정경의 세제 구분인 성문서(Kethubim)에 속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중재자로서의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본서의 정경성에 대하여 부정적 생각을 나타낸 사람은 A. D. 3세기 헬라의 신 플라톤주의자 포르피리(Porphry, A. D. 304)가 처음이었고 그 후 17세기에 이르러 이 신론(理神論) 운동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 본서의 정경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섯 가지 문제에 근거를 둔다.

① 예언 : 어떤 자들은 본서의 모든 예언을 부정하며, 어떤 자들은 묵시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예언의 진정성(眞情性)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 즉 후자는 본서의 예언적 부분과 구약의 다른 예언들이 명백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② 기적 : 본서에 기록된 기적의 수자나 특징에 근거한 반론을 펴다.
  - ③ 본문 : 아람어 부분의 원문이 고쳐지고 변화되었으므로 더 이상 진정한 본래의 구성 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다.
  - ④ 언어 : 본서에 헬라어 악기 이름이 세 개가 나오고 많은 바사어가 등장하므로 다니엘 서의 정경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 ⑤ 역사적 진술 : 1:1의 여호야김 3년과 램 25:1의 여호야김 4년의 차이 그리고 다니엘 이 고레스 1년까지 살았으나(1:21) 그의 3년에 환상을 본 것이다. 지리적으로도 수산이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에 속했다는 점과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 애굽군을 두고 원정갔을 까닭이 없었다는 점이다.
- (4) 본서의 정경성을 부정하는 위의 논리는 본서가 기록되는 데 있어서의 정황 설명과 기록 된 장소의 환경, 역사적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 된 것이다.

11. ㉠ 본서의 신학적 입장을 설명하라.

- ㉠ (1) 본서의 신학적 입장은 에스겔서와 거의 공통적이다.
- (2) 본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모든 신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요 그분의 예정된 목적에 따라 사건들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B. C. 8세기 선지자들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 (3)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건의 방향도 통치하신다고 주장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메시아적 왕국을 그 세대의 최종적 귀결로 생각했다.
- (4) 한편 다니엘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과 12장에 있는 부활의 개념은 포로 전(前) 선지자들의 종말론에 대한 진전(進前)이다.
- (5) 본서와 에스겔서의 또 다른 유사성은 천사론(天使論)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천사들이 각각 개성이 있고 심지어 이름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 (6) 본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환상들의 계시적 특성을 동양의 묵시적 성격과 명확히 구별해야 함에 있다. 왜냐하면 본서는 배화교(拜火敎)에서 볼 수 있는 이원론이 언급되지 않았고 또한 다니엘이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윤리적 수동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기록 목적은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우상들을 능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데 있다.
- (2) 또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징벌을 위한 도구였으나 그들도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시기를 예언하면서 말일(末日)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Kingdom of God)를 세우실 것이라고 암시한다.
- (4) 따라서 태함 받은 백성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은 메시아와 결속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소유한 신앙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안겨 주기에 족하다.

13. ㉠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서의 내용을 각 장의 내용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 (2) 1 장 - 전체의 서론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귀족과 왕족을 포로로 잡아간다.
- 2 장 - 느부갓네살의 환상 중에 보여진 우상은 4왕국을 나타내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14 다니엘 서론

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의미한다.

3 장 -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의 신앙이 승리하다.

4 장 -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다.

5 장 - 벨사살 왕의 연회에 나타난 글씨와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어 왕이 암살되다.

6 장 -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계승하고, 다니엘은 시기를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다.

7 장 -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을 환상 속에서 보다.

8 장 -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은 메대·바사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될 것을 의미한다.

9 장 -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해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고백하다.

10장 - 11, 12장의 서론적 역할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주어지다.

11, 12장 - 애굽 왕들과 수리아 왕들 간의 전쟁이 묘사되며 다니엘은 본서를 인봉(印封) 하도록 명령을 받으므로 예언이 종결되다.

14. C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A (1) 다니엘의 헌신 /1:1-21

- ① 다니엘의 환경 /1:1-7
- ② 다니엘의 헌신 /1:8-16
- ③ 다니엘이 은혜를 입음 /1:17-21

(2) 느부갓네살의 꿈 - 신앙의 환상 /2:1-49

- ① 느부갓네살의 꿈 /2:1-6
- ② 다니엘에게 계시된 꿈 /2:7-23
- ③ 다니엘이 왕의 꿈을 반복하고 해석함 /2:24-45
- ④ 다니엘의 승진 /2:46-49

(3) 극렬히 타는 풀무 - 신앙의 시련 /3:1-30

- ① 신앙의 시련 /3:1-12
- ② 신앙의 확신 /3:13-18
- ③ 신앙의 입증 /3:19-30

(4) 높은 나무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환상 /4:1-37

- ① 느부갓네살의 진술 /4:1-18
- ② 다니엘의 해석 /4:19-27
- ③ 하나님의 성취 /4:28-37

(5) 벨사살의 잔치 /5:1-31

- ① 벨사살이 잔치를 위해 한 일-무절제한 방종 /5:1-4
- ② 벨사살이 잔치를 위해 한 일 - 벽의 글씨 /5:5, 6
- ③ 다니엘이 잔치를 위해 한 일 - 멸망의 선포 /5:7-29
- ④ 다리오가 잔치를 위해 한 일 - 바벨론 정복 /5:30, 31

(6)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6:1-28

- ① 다니엘의 지위 /6:1-3
- ② 다니엘에 대한 음모 /6:4-9
- ③ 다니엘의 기도 /6:10, 11
- ④ 다니엘의 처형 집행 /6:12-17
- ⑤ 천사에 의해 보호된 다니엘 /6:18-28

- (7) 네 짐승과 그 후의 일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 / 7:1-28
  - ① 역사적인 연대 / 7:1-3
  - ② 환상과 그 해석 / 7:4-28
- (8)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작은 뿔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 / 8:1-27
  - ① 환상 / 8:1-14
  - ② 해석 / 8:15-27
- (9) 70이레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 9:1-27
  - ① 역사적인 연대 / 9:1, 2
  - ② 다니엘의 기도 / 9:3-19
  - ③ 예언 / 9:20-27
- (10) 다니엘의 미래 전망 / 10:1-12:13
  - ① 다니엘의 환상 / 10:1-9
  - ② 다니엘을 격려함 / 10:10-11:1
  - ③ 열국들에 대한 예언들 / 11:2-45
  - ④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 12:1-13

15. ㉞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㉞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22).

<u>연구자료</u>			
열국 (列國) 과 관계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이상 (異像)			
열국 \ 이상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	다니엘이 본 이상	
		네 짐승	양과 염소
바벨론	정금으로 된 머리 (2:32)	사자 (7:4)	
메 ↓ 대 바 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2:32)	꿈 (7:5)	수양 (8:3, 4)
헬라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2:32)	표범 (7:6)	수염소 (8:5-8)
로마	철과 진흙으로 된 종아리와 발 (2:33)	열 뿔 가진 짐승 (7:7)	

# 제 1 장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적 절개

단락구분 1-2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다 / 3-5 유다 청년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다 / 6-7 계명(改名) / 8-16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 절개 / 17-21 하나님의 보상(補償)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삼 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4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5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6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11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6 이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18 왕의 명한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왔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심 배나 나은 줄을 아나라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 (1)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데 본장에서는 그 전조(前兆)로 B.C. 605년 제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나타나 있다.

(2)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그것에 불복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셨다(렘 25:12;29:10).

- (3)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사랑만은 버리지 않는 분임을 보여 주신다.
- (4)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비록 포로의 몸이었으나 주어진 상황에 순간순간 적응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려 했다.
- (5) 이런 결과로 다니엘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포로된 나라에서 그 백성을 통치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존귀케 하신다는 약속(신 28:1)을 이루어 주셨다.
- (6) 이 사건은 오늘날과 같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준다.

2. **㉠**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 제 3년이다.
- (2) 이것과 동일한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이때를 여호야김 제 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렘 25:1).
- (3) 사실 이것은 한 사건이고 B. C. 605년에 일어난 일인데도 연도가 틀리게 기록되었다.
- (4) 그러나 이것은 본서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된 책이고 또한 그 역사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알게 해준다.
- (5) 즉 본서의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며 예레미야서는 유다에서 기록되었다. 따라서 저작자의 역사적 시각이 다른 것이 그 차이의 원인이었다.
- (6) 바벨론과 유다는 연도 산출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유 다	바 벨 론
원 년(元年)	즉 위 년
1 년	원 년(元年)
2 년	1 년
3 년	2 년
4 년	3 년

그러므로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었으나 바벨론식 산출 근거에 의하여 본서를 기록하였기에 B. C. 605년을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하였다.

- (7) 이런 근거로 볼 때 본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결과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3. **㉠** 여호야김 3년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어떠하였는가?

- ㉠** (1) 여호야김은 그의 부친과 동생을 이어 유다의 18대 왕으로 등극하였으나 그것은 애굽의 정책에 의한 결과였다(왕하 23:34, 35).
- (2)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요시야의 실수로 국운(國運)은 기울기 시작하였다. 즉 요시야는 앗수르와 힘을 합쳐 신흥 바벨론과 대항하려는 애굽을 막다가 전사하고 말았다(왕하 23:28-30; 대하 35:20-24).
- (3)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으나 애굽의 느고(Necho)가 그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 (4)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움하는 것을 계기로 바벨론을 배반하였던 것이다(왕하 24:1).
- (5) 그러나 갈그미스 전쟁(B. C. 605)은 바벨론의 승리로 돌아갔고(렘 46:2) 유다는 느부갓네살의 노(怒)를 사게 되어 왕족과 귀족들의 일부는 그의 포로가 되었다(1:1-4).

(6) 이때가 바로 바벨론에 대한 유다의 1차 포로기인데 그 후 3차에 걸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B.C. 597, 왕하 24:14; B.C. 586, 왕하 25:6-12; 렘 25:9; B.C. 581, 왕하 25:22-26; 렘 40-44장) 마침내 B.C. 586년에 20명의 왕이 약 345년간 통치했던 남왕국 유다의 종말을 맞이했던 것이다.

4. **㉠**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느부갓네살은 성전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어디에 보관했는가? (2절)

- ㉠** (1)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시날 땅 자기 신의 묘(廟)에 이르러 그 보고(寶庫)에 보관하였다.  
 (2) 시날은 바벨론의 옛 명칭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곳(창 11:1-5)이며 사악한 자들이 유배되어 거주했던 곳이었다(속 5:8).  
 (3) 또한 시날은 ‘벨’이나 ‘마르둑’과 같은 바벨론 신을 섬기는 예배 중심지였다(4:8; 사 46:1).  
 (4)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 신은 다음과 같다.

신(神)	뜻과 지위	성경 귀절
벨 (Bel)	‘주’ 또는 ‘소유자’ 라는 뜻. 바벨론의 수호신으로 수메르의 ‘엔’ (En)과 같은 신이었다. 그리고 ‘벨’은 수메르의 여러 신들 중 우주 3주신(宇宙三主神) 중 하나로 바람과 폭풍의 신인 ‘엔릴’ (Enlil) 신의 칭호였다. 한편 이 이름은 마르둑(Marduk)이라는 신의 경칭으로 사용되었다	사 46:1 렘 50:2; 51:44
마르둑 (Marduk)	벨(Bel)과 같으나 명칭만 다르다. ‘젊은 폭풍신’, ‘주신’ (主神)이라는 의미이다.	렘 50:2
느보 (Nebo)	마르둑(Marduk)의 아들. ‘부르다’, ‘알리다’의 뜻을 갖고 있다. 이 신은 지혜와 문학의 신으로, 바벨론 왕들의 수호신이기도 했다. 이 명칭은 바벨론 함락에 대한 야유적인 이야기의 예언 가운데 언급되어 있다. ‘느보’는 수신(水神)으로 알려져 왔고, 신바벨론 시대 말기까지 숭배 의식이 계속되었다.	사 46:1

(5)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구들이 우상 제단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분께서 우상 앞에 수치를 당하셨다는 의미이다.

(6) 오늘날에도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게 된다.

5. **㉠**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어떠했는가? (3, 4절)

- ㉠** (1) 느부갓네살은 전쟁을 통해 정복한 나라에서 유능하고 지혜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자국(自國)의 학문을 가르쳐 왕궁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2) 결과론적 측면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의 이런 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을 얻었기 때문이다.  
 (3) 오늘날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 중에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등용하여 국가의 발전을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정적

(政敵)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재능을 사장(死藏)시키는 일들이 있다.

- (4) 정치적인 면이든 경제적인 면이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잠시 동안 흥왕한 것 같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시 37:1, 2; 잠 24:19, 20).

6. **㉠** 느부갓네살은 지혜있고 아름다운 유다의 소년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5절)

**㉠** (1) 그는 갈대아 모든 학문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먹고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다.

(2)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하였다.

(3) 이와 같은 관습은 동양적인 것이었는데 이런 관습은 궁중의 모든 관리들이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4) 만일 유다의 소년들을 느부갓네살이 확대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려 했다면 오히려 그들의 반감(反感)으로 인해 더 큰 곤욕을 치루었을 것이다.

(5)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비록 그들을 자신의 일을 위해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졌으나 가능한 최선의 관용과 도움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원(自願)하여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하였다.

(6) 현대의 모든 상황, 즉 정치·경제·사회의 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하에 있는 자들의 인권 및 복지, 후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7. **㉠**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6, 7절)

**㉠** (1)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다.

(2) 그런데 바벨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쳤다.

유 다 명	이름의 뜻	바벨론 명	이름의 뜻
다 니 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 나 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 드 락	의미 불명확. 마르독신의 이름과 관련된 의미
미 사 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메 삭	의미 불명확
아 사 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

(3) 이런 개명(改名)은 고대 문헌을 통해 볼 때 정복자들이 피정복민에게 행하던 정책임을 알 수 있다.

(4) 그 대표적 예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갔을 때 그곳에서 '사브넛 바네아'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참조, 창 41:45).

(5) 이런 일은 정치적, 종교적 억압이나 가난, 전쟁으로 인하여 독자성을 상실한 민족이나 개인이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그들 고유의 이름까지도 바꾸어야만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여 준다.

(6)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기도 하시지만 성도들은 힘을 길러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8. **㉠**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의 이름을 바꾼 까닭은 무엇인가?

**㉠** (1)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전체를 바벨론화하려는 의도에서였다.

(2)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이 단순하게 부르는 호칭(呼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

기 때문이다.

- (3) 즉 이스라엘은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存在)를 보여 주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4)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름을 바꾸는 예가 종종 있었다. 압복 강가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시몬은 베드로로, 사울은 바울로 바꾸었다(참조, 창 32:28; 마 16:18; 행 13:9).
- (5) 이런 이유에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사상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 (6)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계 2:17).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므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들이 부복(俯伏)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참조, 행 8:12; 빌 2:10; 벧전 1:15).

9. **㉠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8절)**

- ㉠ (1)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그 결심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 (2) 모세의 율법에는 금지된 식물에 관한 규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레 11:4-12; 신 12:23) 그들에게 주어진 식물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임이 분명하였다.
- (3) 또한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의 음식을 제의적(祭儀的)인 관점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참조, 호 9:3; 암 7:17). 특히 포로 초기에 이방인들의 음식에 관한 규제가 철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큰 시련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생존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로 인한 첫번째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 (5) 이런 유의 문제는 특히 친구와 중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동이 율법에 근거한 것으로 확신하였다.
- (6) 그러나 다니엘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신앙적 고백에 근거한 결과였다(참조, 신 8:3).

10. **㉠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데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는 문제를 설명하라.**

- ㉠ (1) 오늘날 성도들 중에 모든 문제를 너무 형식적인 면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다.
- (2)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고 이론만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 (3)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정죄(定罪)하려고 하였다(마 9:11; 막 2:16; 눅 5:30; 7:34).
- (4)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음식에 관한 율(律)에 있어서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다’(참조, 막 7:19)고 하시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셨다(막 7:15).
- (5) 즉 오늘날에 있어서 율법적 준수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이 율법의 근본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그 사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롬 14:14, 15, 21).
- (6)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최선책이다(참조, 마 5:48).

11. **㉠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9, 10절)**

- ㉠ (1)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환관장(궁중 관리들 중 우두머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 (2) 그래서 무조건 음식을 먹도록 하지 않고 그들로 인하여 자신이 당할 화(禍)를 이해시키려고 하였다.
- (3) 환관장은 자신이 받은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지켜 보시면서 결정적인 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참조, 고전 10:13).

12. **㉠ 왕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관리에게 다니엘이 제시한 조건은 무엇인가? (11-13절)**

- ㉠** (1)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타협점을 찾았다.
- (2)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우상에게 바치지 않았던 채소만 가지고 10일 동안 먹은 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비교하여 결과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타협 내용이다.
- (3) 10일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식생활에 대한 변화의 결과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시하였다.
- (4)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의 확실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10일이 지난 후 일 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채식을 한 사람보다 육식을 한 사람의 외형이 더 좋은 것은 명약 관화(明若觀火) 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였다.
- (5)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명의 위협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살아 보려는 생각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많다.
- (6) 그러나 그런 자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믿음의 정의,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 11:1) 라는 그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자임을 알 수 있다.

13. **㉠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14-16절)**

- ㉠** (1)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제공한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나아 보였다.
- (2)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을 감독하는 자는 그들에게 왕의 진미가 아닌 채식만 주어 먹게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가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 (3)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채식만 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었다.
- (4)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오해하여 오늘날 엉뚱하게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는 당신의 뜻을 위해 고통당하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 (5)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사건을 연 관시켜서는 안 된다.

14. **㉠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한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재주, 명철(明哲)을 얻게 하시고 그것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異像)과 몽조(夢兆)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 갖게 해주셨다.
- (2)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조건하에서 갈대아 학문을 배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모든 학문을 습득하였다.
- (3)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원천이 되시므로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



22 다니엘 1장

- (4)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기록자인 솔로몬도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분을 경의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다(잠 1:7).
- (5) 그리고 사도 야고보 역시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다(약 1:5-8). 그럴 때 인간의 정욕대로 쓰기 위한 간구가 아니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참조, 약 4:1-3).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도에 있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 천국의 확장 사업에 적중하는 내용인가를 먼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15. **㉠** 언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모든 유다의 총명한 포로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갔는가? (18절)

- ㉠** (1) 왕이 명한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모두 들어갔다.
- (2) 그 기한은 3년인데(4절) 그것은 갈대아의 학문과 풍습 등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일 뿐 아니라 갈대아, 바사의 일반적 관습이었다.
- (3) 따라서 이 기한이 지나지 않고는 왕 앞에서 왕을 섬길 수 없었다.
- (4)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기간을 갖지 않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에 따른 문제가 일어나고 자신도 신앙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5)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3년이란 기간 동안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 파송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가 배울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을 다 습득한 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다.
- (6)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감정이 식을 때 가장 무능력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참조, 딤후 2:21).

16. **㉠**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위해 누구를 선택하였는가? (19절)

- ㉠** (1)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모시는 자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선택하였다.
- (2)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다(마 19:29).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
- (4)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의인이라고 모두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참조, 렘 12:1).
- (5)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예수께서도 복음을 위해 가족과 재산을 모두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참조, 마 16:24, 25).

17. **㉠**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시험한 결과 어떠했는가? (20절)

- ㉠** (1)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 본 결과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나왔다.
- (2) 그 나라의 박수나 술객의 학문과 지혜는 갈대아 지역의 사제(司祭)들이 갖고 있던 은밀한 전통에 관계된 것들이다.
- (3) 따라서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유다 백성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았을 것이 분명하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주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박

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많은 것을 알았다.

- (5)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전 1:27, 28). 그러므로 요셉이나 모세 같은 경우도 짧은 시간에 애굽의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18. **㉠**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언제까지 있었는가? (21절)

**㉡** (1) 그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2) 고레스 원년은 B. C. 538년으로 그가 바벨론 왕으로 인정된 해이다.

(3) 이때 그는 유다의 포로를 해방시키는 조서를 발표하였다(스 1:1).

(4) 따라서 다니엘은 B. C. 605년부터 B. C. 538년까지 약 68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그러나 본서 10:1에 의하면 고레스 3년에 이상(異像)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바벨론과 메대 바사의 왕국에서 국가의 일을 보면서 지낸 것이 B. C. 538년까지이고 공직을 사퇴하고 개인적으로 몇 년을 더 살았다고 본다.

## 화보자료

왕의 진미(珍味)를 거절하는 소년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菜食)을 요구하는 장면이다(8-16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은 어디까지나 위상에 맞게 바쳐진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다(8절).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삼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하는데(롬 12:1) 이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다(고전 6:19, 20).

## 제 2 장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

**단락구분 1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다 / 2-13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다 / 14-16 시위대 장관이 다니엘을 부르다 / 17-24 하나님께서 꿈을 가르쳐 주시다 / 25-3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한 다니엘 / 31-35 느부갓네살의 꿈 / 36-45 다니엘의 해몽 / 46-49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다**

1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 지 이 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5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조질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 터를 삼을 것이요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8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9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10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11 왕의 물으신 것은 회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 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4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 드리겠다 하니라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18 하늘에 제신 하나님인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핍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제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4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 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

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 드리리라

25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26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장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있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는 놋이요

33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쓰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37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

이다

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세째로 또 넷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 네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숴뜨리고 땅을 것이며

41 왕께서 그 밭과 밭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 그 밭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만할 것이며

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인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쓰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47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48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49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과 그 의미를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2)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 후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아 번민하여 갈대아의 박사와 술사, 점장이들을 불렀으나 해몽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해몽함으로 그가 바벨론 전국을 다

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 사건이었다.

- (3)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꿈은 앞으로 진행될 세계 역사와 그 역사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였다.
- (4) 즉 궁극적으로 형성될 메시아 왕국은 세상의 권세들보다 월등한 것임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나라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준다.

2. ㉠ 느부갓네살이 그의 통치 2년에 변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는 그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지 못하여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 (2)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1:5, 6, 17, 20과 연대 설정의 호응 관계이다.
- (3)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은 연대 계산에 있어서 난제로 제기된다.
- (4) 그러나 칼빈(Calvin)은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재위 2년은 느부갓네살이 단독으로 통치한 지 2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 (5) 즉 그는 부왕이었던 나보폴라살(Nabopolassar, B. C. 626-605)이 죽기 전에 이미 쇠고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섭정왕(攝政王)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위 2년에 관한 본절의 기록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3. ㉠ '꿈'에 관하여 설명하라 (1절).

- ㉠ (1) 꿈이란 사람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생각, 상상, 감정이 잠자는 자에게 보여지는 실제의 허상(虛像)이다.
- (2) 유대인 심리학자 프롬(E. Fromm)은 꿈에 관하여 사람이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정신적 활동을 보여 주는 의미 있고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 (3) 고대 동양 문화에 나타난 꿈에 대한 견해는 그들의 삶이나 생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대단히 중요시되었다. 그래서 꿈 해몽자는 많은 존경을 받았다.
- (4) 또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꿈을 세 가지 면에서 구분하였다. ①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으나 필요치 않을 때도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 ② 상징적으로 마음의 상태와 꿈꾸는 자의 영육간의 건강을 나타내는 꿈 ③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시하는 예언적 꿈 등이다(Oppenheim).
- (5) 한편 구약에서는 꿈의 세 가지 동기를 말하는데 첫째, 자연적인 꿈(전 5:3) 둘째, 예언적인 꿈(창 28:12) 셋째, 악한 꿈(신 13:1, 2; 렘 23:32)이다.
- (6) 그러나 구약에서는 대부분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창 31:10, 11, 24; 민 12:6; 왕상 3:5; 욥 33:14-18).
- (7) 또한 예언적 기능의 면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는데 본장의 느부갓네살의 꿈과 요셉의 꿈(창 37:5-11), 두 장관의 꿈(창 40:5-22)과 바로의 꿈(창 41:1-32) 등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꿈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신 13:1-5).
- (8) 신약에 있어서 꿈이란 말은 자주 나오지 않지만 모두 예수께 관계되어 있다. 즉 예수의 잉태(마 1:20-23)와 동방 박사에게(마 2:12)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하라는 경고와 돌아가라는 지시(마 2:13, 19, 20), 갈릴리로의 피신(마 2:22)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말한 꿈 등이었다(마 27:19).

4. ㉠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알아내기 위해 어떤 자들을 불렀는가? (2절)

- ㉠ (1) 그는 자기가 꾸 꿈을 알기 위해 갈대아의 유능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술사(術士) 들을 불렀다.
- (2)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꿈을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

많은 고통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할롬〉인데 본절에는 그 복수형인 〈할로모트〉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 (3) 이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자신의 뜻이 확고하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 (4) 이런 사실은 창 41장에 기록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 (5)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그것을 인간에게까지 보이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계시성을 발견할 수 있다.
- (6) 한편 본절부터 7:28까지 아람어(Aramic)로 기록되어 있다(참조, 서론 ㉒8).

5. ㉒ 느부갓네살이 술사와 자신이 부른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가? (3-13절)

- ㉒ (1)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꿈을 꾸 후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 (2) 본래 부자는 자신의 소유가 많으므로 인하여 걱정에 쌓이게 된다(참조, 눅 12:15).
- (3)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그것과 다른 면이 더 크게 작용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였기에 하나님을 통해 괴로움을 당한 것이었다.
- (4)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과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실 수도 있다(참조, 눅 2:35).
- (5)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면들을 위해 무죄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신 24:14, 15).

6. ㉒ 갈대아의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4절)

- ㉒ (1)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이 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면 그 해석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 (2)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을 꾸면 지혜를 적어 둔 토판의 기록이나 그들의 전통, 경험 등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 (3) 그래서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 (4)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유한(有限)하다. 갈대아의 술사들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알 만한 신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 (5) 따라서 세상의 학문을 모두 섭렵(涉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시 14:1).

7. ㉒ 술사들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대답은 어떠하였는가? (5, 6절)

- ㉒ (1) 그는 막무가내로 꿈의 내용과 그것에 대해 해석하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그들의 집을 모두 멸절시키겠다고 대답하였다.
- (2) 느부갓네살의 이런 대답은 그의 폭군적 성격을 보여 주는데 특히 유다 백성을 다룰 때와 일치한다(참조, 왕하 25:7, 18; 렘 39:6; 52:10).
- (3)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통치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자신의 말은 곧 법으로 통용되며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죽음으로 통하게 된다.
- (4) 이런 현상은 20세기인 오늘날에도 무수히 나타난다. 즉 언론을 통제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이다.
- (5)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러한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허락

하신 통치권(욥 13:1)을 박탈당할 때 가혹한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8. **㉠** 꿈의 내용을 요구하는 술사들에게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냈다고 하였는가? (7, 8절)

- ㉠** (1)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멸절시키겠다는 엄명을 피하기 위해 자꾸만 시간을 끈다고 하였다.
- (2) 술사들은 단지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지 꿈을 알아내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전히 꿈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였다.
- (3) 그러나 왕은 그들이 잔피를 내어 죽음만 모면하려는 생각을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 (4) 여기서 술사들은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와 용기있는 자세를 가질 수가 없었다.
- (5) 불신자들의 최후는 이들과 같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맞이하게 된다(12:2; 말 4:1; 마 3:12; 요 3:36; 살전 5:3).

9. **㉠** 느부갓네살은 꿈 해석하는 자들의 어떤 능력까지 인정하였는가? (9절)

- ㉠** (1)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라면 꿈의 내용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2) 즉 술사들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기 때문에 꿈의 내용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3) 꿈과 그 꿈의 해석은 서로 의존하게 되어 있으므로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다.
- (4) 여기서 갈대아의 술사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표현한다면 실수하게 된다.
- (5) 인간의 혀는 작지만 스스로 제어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이다(약 3:5, 6). 따라서 사람들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시 34:13; 잠 13:3; 21:23; 약 1:26; 벰전 3:10).

10. **㉠** 느부갓네살에게 자신들이 해몽할 수 없음을 밝힌 자들은 누구인가? (10절)

- ㉠** (1) 갈대아의 술사들과 박수, 술객은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까지 할 수 없음과 또한 이제까지 그런 일을 명령한 왕이 없었다고 하였다.
- (2)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알고자 부른 자들은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었다(2절).
- (3) 박수(히, 하르투밈)는 애굽에서도 등장하는 성직자 집단인데(창 41:24) ‘철필’(鐵筆)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헤레트>와 동일한 의미이다.
- (4) 술객(히, 아샤핌)은 일종의 마술사를 말한다. 이것은 ‘숨을 쉬다’, ‘강타하다’, ‘속삭이다’ 라는 뜻의 <샤아프>나 <나샤프>에서 기원되었는데 그들이 숨쉬는 동작에 의해 주술(呪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 (5) 점장이(히, 트카슈핌)는 술사들이고 애굽에서도 발견되는데(출 7:11; 사 47:9, 12) 바벨론에서 막강한 집단을 형성하였다.
- (6) 갈대아 술사(히, 카슈딤)는 바벨론의 성직자 계급이며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계급에 속하였다. 한편 아람 백성 중에 사제(司祭)들이 갈대아인으로 불리었다는 사실은 바벨론 내에서 갈대아 백성의 우위권이 얼마만 했는가를 알 수 있다.
- (7) 또한 박수(5:7, 11)들이 있는데 그들은 일종의 점장으로 점성가와 같다.
- (8)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타적(排他的)의 성격을 띠지는 않았다.
- (9)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갈대아의 학문을 모두 습득할 수 있었다.

## 11. ㉠ 갈대아 술사들은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어떤 신만 알 수 있다고 하였는가? (11절)

- ㉠ (1) 그들은 왕의 질문이 희한(稀罕)한 일이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그 명령대로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갈대아 술사들의 생각은 신(神)과 인간(人間) 사이의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 (3) 따라서 영계(靈界)의 존재들이나 알 수 있는 부분을 나약한 인간이 알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 (4)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육체(히, 베샤르)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전능한 신과 비창조적 신과의 대조를 보여 준다(참조, 사 31:3; 렘 17:5; 속 4:6; 담전 3:16).
- (5) 본래 갈대아 사람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 스스로를 위해 신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을 천사(天使)라고 생각했으며 그 천사만이 유일한 해석자라고 생각했다.
- (6) 우리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도움을 입어 불신자들 앞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 12. ㉠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술사들의 말을 듣고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12, 13절)

- ㉠ (1) 그는 처음에 제시한 조건대로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고 명하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 (2) 엉뚱한 문제로 인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데 사실 왕의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부당한 것이었다.
- (3) 그러나 우리는 거시적(巨視的)인 안목에서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4) 즉 왕이 이처럼 진노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 주목을 받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5) 물론 처음부터 다니엘이 등장하여 그 꿈을 밝혀 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충분히 있었으나 사태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를 사용하시므로 극적 효과를 거두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다니엘을 존귀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6)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독특한 면을 보게 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모든 역사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나아가 종말 까지도 그분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다.
- (7) 둘째는 제아무리 뛰어난 이방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는 한정되어 있기에 삶의 신비를 해석하거나 지존자(至尊者)이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8) 따라서 우리는 이방 세계의 모든 지식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닌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13. ㉠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누가 등장하였는가? (14-16절)

- ㉠ (1)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등장하여 기한을 주면 그 꿈과 해석을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 (2) 본서의 전개를 볼 때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진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3) 왜냐하면 그는 다니엘의 지혜가 다른 박사나 술객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으나(1:19, 20) 어려운 꿈을 해석할 때는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참조, ㉠12)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다.
- (5)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다니엘이 사단의 종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 (6)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동조해서는 안 되며 나아



가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참조, 시 1:1).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일에 관심을 보이지도 말고 어떤 경우에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살전 5:22).

14. **㉠** 죽음의 위기를 넘긴 다니엘이 취한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7, 18절)

- ㉠** (1) 다니엘은 위기를 넘긴 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준 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였다.  
 (2) 여기서 우리는 먼저 다니엘의 신앙 태도를 볼 수 있다.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왕의 앞에 설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시간을 요청할 수 있었다.  
 (3) 또 한 가지 그는 기도에 관하여 올바른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었다. 혼자서 기도보다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참조, 마 18:19).  
 (4) 한편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개인적 야심이 없었고 서로 경쟁을 하지도 않았다.  
 (5) 만일 그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경쟁심이 크게 작용했다면 합심하여 기도할 수도 없었겠지만 결국 그들의 생명은 왕의 명령대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6)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도들간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도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서로 질시(嫉視)하는 태도를 버리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참조, 행 2:42-47; 4:32).

15. **㉠**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밤에 이상(異象)으로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다.  
 (2) 꿈이나 환상은 자신의 뜻을 명백히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인데(민 12:6) 다니엘은 그것을 모두 얻었다.  
 (3)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 응답하셨다.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의인들의 기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참조, 약 5:16).

16. **㉠**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은 다니엘의 찬송 주제는 무엇인가? (20, 23절)

- ㉠** (1)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主權)과 전지 전능(全知全能)에 관한 찬송이다.  
 (2) 즉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신다. 그래서 깊고 은밀한 일을 그리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도 알려 주신다.  
 (3) 이 찬양에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전인류와 온 우주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잘 묘사되고 있다.  
 (4) 어찌하든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 주시자 곧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같다.  
 (5) 성도들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끊지 말아야 한다(참조, 살전 5:16-18). 찬양은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시 33:1; 147:1),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시 69:30, 31).

17. **㉠**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21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2) 다니엘은 오늘날 사람들이 운명으로 간주하는 것들도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평범한 것같이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친다(참조, 창 8:

22;사 50:2, 3).

- (3) 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사(生死)와 왕위의 권세를 주시거나 폐하시는 일도, 사람들에게 지혜나 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해준다(참조, 신 2:3; 욥 12:23; 시 104:9-31; 행 17:26, 27; 갈 1:15, 16; 빌 4:19).
-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참조, 대하 7:14; 약 1:5-8; 요일 3:22).

18. **㉠** 다니엘의 감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또한 기도한 일을 알게 해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찬양하고 감사하였다.
- (2) 본래 계시(revelation)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인간의 양심과 성경 등을 통하여 자신을 현현(顯現)하는 것이다.
- (3) 하나님의 계시는 궁극적 목적이 우리를 당신께 인도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 (4)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계시의 극(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건이 계시의 최고 절정이라 할 수 있다(롬 1:3, 16; 고전 15:1-4; 갈 4:4; 히 1:1, 2).
- (5) 지금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3위 하나님의 계시적 산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 (6) 계시는 두 가지 개념, 즉 감동과 조명(illumina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위해 하신 말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관계된 것이고 ‘감동’은 그 정보를 권위 있게 기록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행위이다. ‘조명’은 성령의 사역에 관계된 말로(엡 1:8; 히 10:32) 독자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전 2:13, 14).
- (7) 그러므로 계시가 객관적인 데 반하여 조명은 주관적 이해와 관계된 것이다.

19. **㉠** 포로인 다니엘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24-26절)

- ㉠** (1)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내용을 받은 후 왕에게 가려는 때 시위대 장관 아리옥은 ‘사료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 (2) 앞장을 볼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전혀 모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포로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것이다.
- (3)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업신여김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앙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후 6:14).

20. **㉠**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밝히기 전에 어떤 말로 느부갓네살의 생각을 환기시켰는가?

(27, 28절)

- ㉠** (1) 그는 느부갓네살의 앞에서 은밀한 것을 보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다니엘의 두 가지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 (3) 첫째는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에게 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과 꿈의 해석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을 얻어 득세(得勢)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려는 순수한 생각이 있었다.
- (4) 그러나 다니엘의 이와 같은 태도에 반하여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 (5) 교회와 성도 개개인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참조, 유 1:24, 25).

32 다니엘 2장

21. ㉠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된 원인을 어떻게 말하였는가? (29, 30절)

- ㉠ (1)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그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고 다니엘이 말하였다.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려 하실 때 먼저 당신의 기준에 의해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를 선택하신다.  
 (3) 바로가 꿈을 꾸는 것이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일들이 모두 그러하다. 그래서 그중에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  
 (4)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모두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웠다(참조, 고전 10:31).

22. ㉠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환상은 어떠하였는가? (31-35절)

- ㉠ (1) 그의 꿈속에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  
 (2) 그런데 사람이 던지지 않고 스스로 쓰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자 그 신상은 부서져 완전히 날아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3) 이 환상은 사2:2-4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시온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 모든 민족이 '여호와와 그의 산'으로 모여들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지는 곧 온 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요 4:21-24).

23. ㉠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의 해석은 어떠한가? (36-45절)

- ㉠ (1) 이 꿈은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  
 (2)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꿈(31-35절)	해석(36-45절)	
부 분	암시된 내용	역사적 성취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	신바벨론 제국(B. C. 605-538)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보다 하등한 왕국	메대 · 바사 제국(B. C. 538-333)
동으로 된 팔과 허벅다리	세계 왕국 시대	그리스(B. C. 333-63)
철로 된 다리	철 같은 왕국: 못 나라를 쳐부수고 정복함	로마 제국(B. C. 63-A. D. 476)
진흙과 철로 된 발가락	철 왕국의 분열과 국가와 뒤섞임, 왕국이 떨어져 나감	로마, 게르만 국가 등 여러 국가(A. D. 476 - 現)
파괴하는 돌: 큰 산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은 파괴되지 않고 주권은 영원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을 파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파되고 있으며 회개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들은 아직 던지지 않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 (3)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현재까지 예언을 성취시키셨으니 앞으로 있을 세계의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4) 그러므로 과거를 보고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해서도 믿지 못하는 자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24. **㉠**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그 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역사에 관한 예언적 환상이었고 그 꿈은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왔다.
- (2)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 (3)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역사의 흐름 속에 절대 강자는 없다는 것이다.
- (4) 나름대로 세계 최강의 힘을 보유했으며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으나 그들은 결국에 가서 멸망하고 말았다.
- (5)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의 형적(形跡)은 지나가며(고전 7:31), 삶은 한 순간의 안개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약 4:14)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 (6) 그런데 이런 뜻도 모르면서 세상 권력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또는 돈에 자기를 팔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가련한 생각밖에는 없다.
- (7)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그 권력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돈을 추구하다 그 돈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성경적 진리를 생각해야만 한다(참조, 눅 12:13-21).

25. **㉠**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므로 느부갓네살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46-48절)

- ㉠** (1) 왕은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드리게 하고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 (2)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알아내고 또한 명쾌한 해석까지 보이므로 그를 신격화(神格化)하여 경배했던 것이다.
- (3) 루스드라인들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인간의 형체를 입은 신이라고 생각하여 경배한 것같이(행 14:12, 13)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거의 신처럼 여겼다.
- (4)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 (5) 다니엘의 지혜로운 일 처리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귀감(龜鑑)이 된다.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질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였다.

26. **㉠**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어떤 신이라고 하였는가? (47절)

- ㉠** (1) 그는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재(主宰)이시고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 (2) 이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아닌, 즉 다니엘의 인격 속에 계신 유다 백성의 하나님에게 대한 찬양이다.
- (3) 그리고 그 찬양 속에는 그분이 절대적인 신이었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보인다.
- (4) 이처럼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적 행위를 일삼는 자가 있다(행 5:1-11).

27. **㉠** 왕의 인정을 받은 다니엘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던 친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49절)

- ㉠** (1)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청구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 (2) 먼저 다니엘은 함께 포로가 된 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고 동락(同苦同樂) 했던 친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
- (3)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을 높은 지위에 앉게 하였다. 그들이 재난에 빠진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지위를 느부갓네살에게 품(稟)하였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 (4) 친구들과의 우정도 신앙 생활과 연관지어 다져진다면 그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훌륭한 관계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시 35:14; 잠 17:17; 18:24).

### 화보자료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神像). 동판화로써 16세기경의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저자가 은으로 된 가슴과 팔(32절)을 메대 제국으로 그리고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32절)를 바사 제국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31-45절)은 앞으로의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를 보여 주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에 대한 풀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신바벨론 제국을,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바사 제국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으로 된 팔과 허벅다리는 희랍 제국을, 나머지 철과 진흙으로 된 종아리, 발 부분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 세상 나라는 '뜨인 돌' (34절)로 상징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아 영원히 파멸되고 말 것이다.

## 제3장 풀무 불 속의 세 친구

단락구분 1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다 / 2-7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다 / 8-12 세 친구의 거부 / 13-18 느부갓네살의 공갈(恐喝)과 세 친구의 태도 / 19-23 불속에 던져지다 / 24-27 불속에 있는 네 사람의 모습 / 28-30 세 친구가 불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다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육십 규빗이요 광은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3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야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라

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7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리어 절하니라

8 그때에 어떤 갈대야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조하니라

9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10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듣거든 엎드리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1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12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어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18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낮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칠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21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겹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24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

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25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체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려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려 가운데서 나온지라

27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머터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1. ㉠ 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의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과 그 후에 주어지는 상급에 관하여 명확한 교훈을 준다.
- (2)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인 우상 숭배의 명령이 떨어졌다.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각 도의 지도층 인사들을 모아 신상 제막식을 하면서 절하게 하였다.
- (3) 그러나 세 친구는 십계명 중 제 1, 2계명을 어길 수 없었고, 계명의 준수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들을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었다.
- (4) 결과적으로 풀무 불에 들어가는 시련을 맞이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자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지위를 얻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 (5) 이런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다.
- (6) 특히 유약한 현대인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 보려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피하려고 하거나 굴복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 (7) 그러나 본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앞세우고 나아가간다면 그것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난국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고전 10:13)는 가르침을 준다.

2. ㉠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의 규모는 어떠한가? (1절)

- ㉠ (1) 그 신상은 크기가 60규빗이요 넓이가 6규빗이었다.
- (2) 1규빗의 길이는 약 45.6cm이므로 그 크기는 약 27.4m이며 그 넓이는 약 2.74m였으니 그 규모는 엄청났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금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 (3)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세운 근본 목적은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였다.
- (4) 이것은 그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나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 (5) 이와 같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불경건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경우든지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도 돌아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6)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전혀 핑계할 수 없고(롬 1:20)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 우상을 세운 곳은 어디인가? (1절)

**㉠** (1) 바벨론 도(道)의 두라 평지이다.

(2) 이곳은 고대 바벨론 지방의 어느 평지로 명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두라'의 아카드어 명칭인 <두루>는 '범위', '벽으로 둘러 쓴 곳'이란 뜻을 가졌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지명에 흔하게 있는 명칭이다.

(4) 이곳 두라에 대한 후보지로 첫째는 갈그미스 근처로 바벨론 지방이 아니라 티그리스 강 저편에 위치한 곳이고 둘째는 바벨론 성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밖에 안 되는 두라 언덕이나 그 유적지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4. **㉠** 느부갓네살이 신상 제막식에 불러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2절)

**㉠** (1)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가 그리고 각 도의 모든 관원을 신상 제막식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였다.

(2) 방백(히, 아하세다르페닌)은 지사(知事)로 번역되는 것이 이해가 빠르는데 각 성(省)에 있는 왕의 주요 책임자들을 가리킨다.

(3) 수령(히, 시게닌)은 성의 군대 장관을 가리키고, 도백(히, 파하와타)은 수령과 대조적으로 민간 정부의 주관자로 지방 행정관을 가리킨다.

(4) 재판관(히, 아다르가제리아)은 '감독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재판관들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영광'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아람어 <에데르>와 '결정하다'는 뜻의 <제자르>의 복합어이다.

(5) 재무관(히, 게다베라야)은 공공 재산의 감독자이며, 모사(히, 데타베라야)는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법률의 총괄자이다.

(6) 끝으로 법률가(히, 티페타에)는 엄격한 의미로 '재판의 판결자', '재판장'과 같은 관리들이다.

(7) 그리고 위에 언급한 관리들 외에 각 도에서 관원들을 불러모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신앙을 버린다는 사실이다.

(8)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청년들을 불러 교육시키고 바벨론 각 도에서 일하도록 했으니 그가 우상 숭배를 위해 소집했을 때 분명 그 안에도 유다 청년들이 있었을 것이다.

(9)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그것은 가장 위험하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명예를 질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마 10:38; 16:24; 막 8:34; 눅 9:23; 14:27).

5. **㉠** 언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였는가? (3-5절)

**㉠** (1) 모든 관리들을 신상 앞에 세우고 각종 악기를 연주할 때 엎드리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였다.

(2) 일반적인 종교 의식에서 악기의 연주는 뉘 수 없는데 특히 종교적 봉헌의 경우 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참조, 느 12:27; 시 30:1).

(3) 이런 경우는 이방 신상의 봉헌에 있어서도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였다(출 32:18).

(4) 광적인 음악은 사람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므로 이성을 잃게 하여 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특히 우상 숭배에는 감각적인 음악이 많이 연주된다.

(5) 따라서 현대적 의미로 비교할 때 요즘의 현란하고 음란한 내용을 지닌 음악은 사람들의 이성을 잃게 하는 요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런 면에 젊은이들이 휩쓸리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6. **㉠** 우상에게 절하도록 신호하기 위한 악기들에 관하여 설명하라(5절).

**㉠** (1) 그 악기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였다.





시 불신자들의 시기로 인하여 곤란을 겪게 된다.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 (6)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시 128:1, 2; 잠 16:20).

10. **㉠ 갈대아인들이 세 친구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참소하였는가? (12절)**

- ㉠** (1) 왕이 세위 각 도를 다스리게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2) 이 참소의 내용을 분석하면 갈대아인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무척 싫어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사단의 간계(奸計)를 파악할 수 있다.
- (3) 첫째는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갈대아인들은 왕이 포로민인 이방인들을 세운 것이 '왕의 실수'라고 하면서 역시 유다 백성은 갈대아인처럼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4) 둘째는 왕과 그들의 사이를 이간(離間)하여 그들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수작이다. 사단이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서 행한 일(욥 1:9-11; 2:4, 5)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기의 남편에게 참소하므로 투옥된 사건(창 39:14-18)과 유사하다.
- (5)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외적인 험과 욥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엡 6:12).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엡 6:10, 11, 13-17).

11. **㉠ 느부갓네살은 갈대아인들의 참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3절)**

- ㉠** (1) 그는 노(怒)하고 분(忿)하여 세 명의 친구를 자기에게 끌어 오게 하였다.
- (2) 느부갓네살은 참소의 이유를 알아보기 보다 순간적인 자기 교만으로 화를 내었다.
- (3) 어리석은 자는 쉽게 분을 내고 그 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쉽게 분을 내는 자는 범죄하게 되며 싸움을 일으킬 뿐이다(참조, 잠 15:18; 29:22).
- (4)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즉시 반응을 나타내지 말고 그 상황을 분석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12. **㉠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에게 어떤 말로 회유(懷柔)시키려고 하였는가? (14, 15절)**

- ㉠** (1)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우상을 향해 절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어 본 후 이제라도 절한다면 살려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 속에 던져 넣을텐데 어떤 신이라도 거기서 건져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강경하게 강제성을 띠면서 그들에게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였다.
- (3) 더우기 그가 자신을 가리켜 강력한 신(神)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인간의 첫 범죄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창 3:5)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교만한 선천적 죄인의 모습이다.
- (4)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드는 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관해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참조, 사 37:10).
- (5) 이러한 사단의 방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좇아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연약하고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행 28:22-29) 그런 자들의 결국은 멸망뿐이다.

13. **㉠ 느부갓네살의 회유에 대한 세 친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6-18절)**

- ㉠** (1) 그들의 태도는 확고 부동(確固不動)했다.
- (2) 즉 우상 숭배에 관하여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고 왕이 풀무 속에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며 혹시 그분께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

- (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선택의 기로(岐路)에 서게 되는데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택한다.
- (4) 그러나 세 친구는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준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출 20:3-6)을 어길 수 없었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참조, 고전 10:31).
- (5) 또 한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임을 확신했다는 점이다(수 24:17; 시 5:11; 34:19, 20; 습 3:12; 뱀전 1:5; 유 1:24).
- (6)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전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자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고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다(참조, 약 1:7, 8).

14. **㉠** 세 친구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 ㉠** (1) 첫째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지식은 진리에 관한 것이었는데 우리도 진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면 참자유인이 될 수 있다(요 8:32).
- (2) 둘째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태도였다.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 진리대로 살 수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 (3) 세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운행하시는 분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다(약 4:13-15).
- (4) 네째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부동의 신뢰이다. 비록 현재는 불속에서 타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담담(淡淡)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빌 1:21; 담후 4:8).
- (5) 세 친구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요즘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보다 자신의 욕심과 권위만 얻기 위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다.
- (6)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 또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성직자들 모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 (7) 이런 자들이 정말 세 친구와 같은 신앙 의식이 있었다면 오늘날 국가, 사회, 기업, 교회가 이처럼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15. **㉠**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고난이 닥쳤는가? (19, 20절)

- ㉠** (1) 그들의 절개는 곧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한 후 세 친구를 불속에 넣으라고 하였다.
- (3) 이와 같은 행동은 사단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다가(창 3:4, 5) 그것이 실패하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한다(욥 1:9-11; 2:4-6).
- (4)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참조, 마 10:29).
- (5) 더우기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들이 받은 영광의 화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롬 8:18) 우리도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16. **㉠** 느부갓네살이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한 의미는 무엇인가? (19, 20절)

- ㉠** (1) 그 말은 7배라고 하는 그 수자의 말 자체보다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 동양적 사고(思考)에서 나온 것이다.
- (2) 고대 동양에서 사법적 법률 집행에 있어서는 '7'이란 수가 매우 친숙했으며(레 26:18-

24;신 38:7;시 12:7;잠 6:31;사 11:15;30:26;마 18:26)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

- (3) 그러므로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명령은 신이 내리는 형벌과 같이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 극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극형이라는 의미이다.

17. ㉠ 느부갓네살의 분노로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21-23절)

- ㉠ (1) 그들은 고의(袴衣)와 속옷과 겹옷과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되어 불속에 던져졌다.  
 (2) 그런데 그 불은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불에 밀어 넣으려고 했던 자들을 태워 죽였다.  
 (3) 그러므로 불속에 떨어지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혀 없다.  
 (4) 여기서 세 친구들이 당한 극한 상황을 보게 된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의 사람들의 삶이란 마치 뜨거운 불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왜 나하면 악한 세력은 날마다 성도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 뜨릴 수 있을까 하는 피를 짜내는 데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합 1:4; 벰전 5:8, 9).  
 (5) 한편 세 친구들의 여러 의복에 관하여 소상하게 언급된 것을 볼 때 그들은 결코 하급 관리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8. ㉠ 느부갓네살은 무엇 때문에 크게 놀랐는가? (24, 25절)

- ㉠ (1) 그는 풀무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만 넣었는데 그 안에서 네 명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2)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광경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3) 그 불길이 너무 거세고 뜨거웠기 때문에 세 사람을 밀어 넣은 자들도 타죽었는데 하물며 풀무 속에 들어간 자들이야 더할 말이 있겠는가?  
 (4)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 이상도 없이 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더우기 새로운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5)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사 41:10).

19. ㉠ 느부갓네살이 본 제 4의 인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25절)

- ㉠ (1) 그 네째의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2)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할 때 바벨론적인 신 관념에서 말을 하였다.  
 (3) 왜냐하면 그는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홀로 참되신 하나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여러 신들 가운데 최상위(最上位)의 신으로 언급하기 때문이다.  
 (4) 한편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본 제 4의 인물은 28절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 수 있다.  
 (5) 이 사자에 대하여 크리소스툼(Chrysostom, 354-407)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칼빈의 견해를 따라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20. ㉠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였는가? (26절)

- ㉠ (1) 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다.  
 (2)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한 말이다. 당시 고대 국가는 종교와 정치가 병행된 신정 국가였다. 그들은 왕과 사제(司祭)를 병행하여 뎀으로써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중심으로 정치를 폈다(참조, 왕하 19:36, 37).  
 (3)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는 아니었다. 항상 주위에 술사나 점성가 등을 두었다. 그러나 그는 홀로 하나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몰랐다. 그래서 단 순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만 하였다(참조, 민 24:16; 사 14:14). 즉 그는 하나님의 속성 전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순간의 능력을 통하여 얻어진 이미지

42 다니엘 3장

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정지었다.

- (4) 물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항상 개개인에게 체험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성경이나 범주주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히 자신에게 비취진 일면만을 하나님으로 단정하는 것은 신앙의 편견이며 올바른 신앙 태도라 할 수 없다.

21. ㉠ 풀무 속에서 나온 세 친구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27절)

- ㉠ (1) 그들이 불속에서 나왔으나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袴衣)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불탄 냄새도 없었다.
- (2)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3) 그들이 불속에 들어갈 때는 묶였던 부자유한 상태였으나 스스로 일어나왔던 것을 보면 그들의 신체적 상해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 (4) 특히 아무 냄새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는 사건이 되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극적인 순간에 보이므로 택한 자들의 권위를 세워 주시고 더불어 당신의 존재를 명백히 증거하신다(참조, 창 41:9-14; 출 12:29-33).

22. ㉠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하였는가? (28절)

- ㉠ (1) 그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2) 즉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버리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섬긴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하였다.
- (3) 이것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경솔한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다.
- (4)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라고 하였다.
- (5) 아뭏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다.
- (6)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참조, 마 5:13-16).

23. ㉠ 이 사건 후에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29절)

- ㉠ (1) 이 사건이 있는 후 느부갓네살은 조서(詔書)를 내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하고 방자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 거름 터를 삼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분처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 (2) 이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불변하는 신앙을 소유했던 세 친구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자신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자신의 확고한 결정으로 인하여 순간적인 고난과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궁극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 (4) 예수께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39)고 하셨다.
- (5) 그러므로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에 매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위의 세 친구들처럼 자신의 생명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순결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자야말로 내세에서 빛나는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참조, 마 19:29).

24. ㉠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30절)

- ㉠ (1) 느부갓네살은 그 친구들을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다.

- (2)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갖은 고난을 겪었던 세 친구는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
- (3) 사도 바울도 디모테에게 쓴 편지에서 갖은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켰을 때 현실의 아픔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하늘나라로 돌려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확신하였다(딤후 4:7, 8).
- (4)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약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지키다면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전 1:27-29; 고후 12:9, 10).

## 화보자료

풀무 불속의 세 청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 불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광경이다(19-27절). 이것은 비잔틴풍의 모자이크화인데 성 누가 사원에 있는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은 일련의 시련(8-30절)은 성도들이 겪는 '불 시험' (벧전 4:12)을 연상시켜 준다.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은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담대히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벧전 4:13).

## 제 4 장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의 정신 이상

단락구분 1-3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 4-9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다 / 10-18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 / 19-27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다 / 28-33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으로 헤매다 / 34-37 느부갓네살이 회복된 후 하나님을 찬양하다

1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꿈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으노라

6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들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7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8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좇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9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10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 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11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열기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13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나리라

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18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니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19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병병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옹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옹하기를 원하나이다

20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22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떨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28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열 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지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

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2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33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오히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36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 1. ㉠ 본장에 보여진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성취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 ㉠ (1) 본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성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 꿈은 느부갓네살이 크게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므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짐승과 함께 지내는 정신병을 얻었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 (3) 결국 이 꿈은 그대로 성취되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는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며 지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저주스러운 생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다.
- (4)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아무리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찾으시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 (5) 권세자는 그 위치가 결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위치에 있는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 2. ㉠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조서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1절)

- ㉠ (1)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평강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 (2) 그런데 한 개인이 이와 같은 평강을 열망한다고 해서 그 평강이 임의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즉 평강을 제공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



- (3) 실제로 평강의 근원은 삼위 일체 하나님과 또한 그 말씀이다(참조, 요 14:27; 갈 5:22; 엡 6:15; 빌 4:7).
- (4) 따라서 평강은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성도들이 굳은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에 동참할 때(참조, 사 26:3; 53:5) 이런 평강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3. **㉠** 느부갓네살이 온 땅에 무엇을 알리려고 하였는가? (2, 3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알리려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즐거워하였다.
- (2) 그래서 그는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權柄)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찬양하였다.
- (3)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이 정신 질환을 앓던 기간(7년)과 관계가 있다. 아마 이것은 7년 동안 병을 앓은 후 그가 제정신을 회복하고 나서 발표한 공적인 조서나 국가 문서일 것이다.
- (4) 앞으로 설명할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실현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실존(實在)하시며, 그분의 주권이 끝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 (5)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4:1; 시 145:13).

4. **㉡**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 때는 언제였는가? (4절)

- ㉠** (1) 그는 자신의 집에 편히 있으며 그의 궁(宮)에서 평강할 때 꿈을 꾸었다.
- (2) 이 말은 그가 전쟁하기 위해 출전(出戰)하지 않고 자기의 왕궁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므로 이 말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후반기에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두로와의 전쟁(겔 29:17)은 이미 끝났으므로 전적인 평화를 누리던 때를 가리킨다.

5. **㉢**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 후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5절)

- ㉠** (1) 그는 꿈을 꾸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것이 생각나서 번민하였다.
- (2) 즉 평안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발생하여 그의 심사를 괴롭혔던 것이다.
- (3) 꿈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잠재 의식 속에서 있었던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기도 하신다.
- (4) 그 꿈은 권선 징악(勸善懲惡, 창 20:3), 계시(啓示, 창 28:11-22), 위로(慰7:13-15), 미래에 대한 예시나 교훈을 위해 사용된다(창 37:5-10; 마 1:20).
- (5)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꿈은 반드시 어떤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6. **㉣** 자신의 꿈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박사들을 부른 느부갓네살의 행동을 통하여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6, 7절)

- ㉠** (1)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불신앙과 함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다.
- (2) 왜냐하면 이미 2장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바벨론의 박사들이나 술객들의 무능함이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그들을 불러 꿈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 (3) 이것을 볼 때 불신자들의 무지(無知)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곧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4)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니엘의 특출함을 보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당연히 먼저 그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한 것

이다.

- (5) 불신자들이야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들마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 (6)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들도 간혹 자신 앞에 당혹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아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이 지닌 여러 조건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조그마한 빈틈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추종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 바벨론 박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앞에 누가 등장하였는가? (8절)

- ㉠** (1) 그때에 바벨론 신의 이름을 좇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타났다.
- (2) 그때 당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서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왕이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3) 개명(改名)된 다니엘의 이름에 대하여는 1장의 **㉠**7을 참조하라.

8. **㉠** 바벨론의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알기 위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가? (9절)

- ㉠** (1) 그는 다니엘에게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異像)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고 하였다.
- (2) 불신자들의 무지한 태도(참조, **㉠**6)와 함께 바벨론 사람들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한 느부갓네살의 노력은 이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 (3) 느부갓네살은 전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일개 포로인 다니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꿈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비굴함을 느꼈을 것이다.
- (4)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러 다니엘을 뒤로 놓고 바벨론의 박사장들을 먼저 불러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 보려 했으나 역시 그들은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 (5) 결국 왕은 다니엘 외에 어떤 방책도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부드러운 태도로 다니엘에게 접근하여 꿈의 해석을 알려고 하였다.
- (6) 인간 중심, 권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단면이 느부갓네살에게 매우 잘 나타나 있다.
- (7) 결국 하나님 앞에는 오만한 자가 나타날 수 없고 권위를 추종하는 자가 결코 권위를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만이 삶의 참의미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참조, 마 11:28).

9. **㉠**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의 내용을 요약하라 (10-17절).

- ㉠** (1) 꿈속에서 한 나무가 보였는데 그 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자라나 땅 저 끝에서 보일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열려 만민의 식물이 되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혈기있는 자들이 거기서 식물을 얻었다.
- (2) 그 후 한 순찰자(巡察者),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와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헤치고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 (3)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짐승처럼 일곱 때를 지나리라는 순찰자의 말을 들었다.
- (4)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를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제실 뿐 아니라 천한 자를 들어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참조, 롬 13:1).

10. **㉠** 느부갓네살의 꿈 중에서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0-22절)

- ㉠** (1) 여기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나타낸다.  
 (2) 그 나무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들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은 그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쉬게 될 것을 의미한다.  
 (3) 그러나 이런 번영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다거나 직무에 충실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이 땅에 한 위정자를 임명하셔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셨다고 볼 수 있다.  
 (4)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사악한 정치를 펼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크나큰 죄악이라 할 수밖에 없다.  
 (5) 이런 때에 백성들은 악정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더 나은 정부와 정치가, 국가가 되기 위해 충언(忠言)도 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라도 정의(正義)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

11. **㉠** 나무의 고(高)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 22절)

- ㉠** (1)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이 크게 강성하여질 것을 의미한다.  
 (2) 당시 주위 상황으로 볼 때도 바벨론 제국에 한정된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크게 키워 주셨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왕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랐다.  
 (4) 이미 전에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능력만 내세우려고 했다.  
 (5)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속성이다. 자신들의 우매함과 잘못된 무력을 통하여 감추고 그 대신 조그만 공(功)만 자랑하려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과 진리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12. **㉠** 높이 올라간 나무의 상태는 어떠한가? (21절)

- ㉠** (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인다.  
 (2) 이것은 역사상 매우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느부갓네살의 영화가 대단하고 그 영화와 번영으로 인해 열국 백성들이 그의 통치하에서 살게 될 것을 보여 준다.  
 (3) 따라서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도 최극(最極)에 달하게 될 것이다.  
 (4)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인간들이 진실된 정치 질서로 인하여 선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사회가 존재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5)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폭정을 행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의 재산을 갈취(喝取)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13. **㉠** 나무의 꿈을 끝 후 다시 보게 된 이상은 무엇인가? (23절)

- ㉠** (1)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떨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靑草) 가운데 있

게 하라'고 한 이상이었다.

- (2) 순찰자는 '거룩한 자' 라고도 불리웠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진행되는가를 영구히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시 103:20).
- (3) 순찰자는 아람어로 <이르>인데 천상 존재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 '천사' 라고 번역한다.

14. **㉠** 잘려진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23-25절)

- ㉠** (1) 잘려진 나무는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하며 일곱 때를 지낼 것이다.
- (2)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의 직위에서 쫓겨 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그렇게 7년을 지낼 것을 예언한 꿈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오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하여 들에서 짐승처럼 7년이란 기간을 헤매게 하실 것이다.
- (4) 그런데 이와 같은 처벌은 하나의 저주라기 보다는 이방 불신자에 대하여 배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끼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 (5) 비록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 즉 아무리 최악된 삶을 산 자라 하더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두 용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참조, 왕상 21:29).
- (6)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회개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참조, 사 55:7; 렘 3:12; 31:9; 겔 18:21; 숙 1:3).

15. **㉠** 느부갓네살이 겪게 될 시련은 어떤 것인가? (25절)

- ㉠** (1) 사람에게서 쫓겨 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렇게 하여 일곱 때를 지낼 것이다.
- (2)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데 이 병은 의학적으로 용어로 리칸드로피아라고 한다. 이는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는 병이다.

16. **㉠**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25, 26절)

- ㉠** (1) 이는 일곱 때가 지난 후 왕의 건강이 회복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고 하셨다.
- (2) 인간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자만심이 꺾여지지 않는 한, 그들이 하나님을 전우주의 통치자로 인식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탈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3)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올리고 낮추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한다(참조, 시 75:7; 113:6; 눅 1:52; 롬 13:1).
- (4) 이 말씀 중에 우리는 겸손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 세워 당신의 사역자로 삼아 주신다(참조, 잠 22:4; 사 57:15; 마 18:4; 눅 14:10; 약 4:10).

17. **㉠** 꿈의 내용을 해석한 다니엘은 왕에게 어떤 말로 간(諫)하였는가? (27절)

- ㉠** (1)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속하라고 하였다.
- (2) 그리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평안함이 장구(長久)할 것이라고 하였다.
- (3)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는 전제 군주제였기 때문에 왕의 독재권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러므로 많은 선지자들은 왕들이 정의에 입각한 정치를 행하기를 호소하였다(참조, 사 38:1; 렘 18:7; 욥 2:12; 암 7:3, 6; 온 3:5).

- (4) 하나님께서는 비록 포악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선정을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장구한 세월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
- (5) 오늘날 정치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폭정을 일삼는 자는 끝없는 불행과 분쟁을 야기시킨다.
- (6) 반면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베풀며 진리를 떠나지 않는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것이다.

18. **㉠**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몽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28, 29절)

- ㉠** (1) 그 꿈은 열 두 달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
- (2)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1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태도를 바꾸도록 넉넉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한다.
- (3) 물론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를 가리키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왕이 종교적 경건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 (4) 특히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팽창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대로 왕은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다.
- (5)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에 대하여는 무감각하게 넘겨 버리고 그 후에 닥쳐 오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그분을 원망한다.
-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과 공의를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반하여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다.

19. **㉠** 느부갓네살은 어디에서 거닐고 있었는가? (29절)

- ㉠** (1)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다.
- (2) 이곳은 바벨론 왕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왕궁은 왕이 산책할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이 있다.
- (3) 다윗도 그 위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밤세바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적이 있다(참조, 삼하 11:2-5).
- (4)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평안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그가 교만해졌음을 보여 주는 말씀이다. 그의 왕권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한가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 (5) 한편 우리는 본질 가운데서 정확한 시간의 제시와 사건의 명백한 성취 등을 볼 때 본장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 **㉠**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말을 하였는가? (30절)

- ㉠** (1) 그는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다.
- (2) 그가 말한 '이 큰' 이란 거대한 25개의 문과 여러 층으로 된 주춧돌이 꼭 찬 676구역의 바벨론을 묘사한 말이다.
- (3)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느부갓네살 훨씬 이전의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Calvin).
- (4) 이런 결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이 남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다.

- (5) 이처럼 교만한 자들은 남이 취해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그 특징이다. 신약 시대 유대 통치자였던 헤롯 아그립바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인해 즉사한 적이 있다(행 12:20-23).

21. ㉠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말을 발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왔는가? (31, 32절)

- ㉠ (1)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位)가 네게서 떠났느니라’는 말이 들려 왔고 이어서 꿈에서 보여진 일, 즉 그가 짐승처럼 들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들려 왔다.
- (2) 하나님의 주권의 영원성은 유한한 인간들과 반대되는 특성으로 그분의 전능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신다(참조, 행 13:22).
- (3)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의 교만한 말 한 마디가 그가 받을 화를 더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분명히 그에게 회개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발하셨다.
- (4)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현재 그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 영광에 매혹되어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고 그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 (5)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군으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참조, 고전 1:27-29).

22. ㉠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온 후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었는가? (33절)

- ㉠ (1) 그 소리가 있음과 동시에 꿈에 보았던 일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아졌다.
- (2) 이 말씀은 왕이 짐승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게 되어 백성으로부터 추방당한 뒤 들짐승처럼 지냈다는 뜻이다.
- (3) 사람이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고, 짐승과 같은 생활을 모방하는 질병을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Insania zoan thropica)라고 하는데, 특히 자신을 여우로 생각하는 사람은 리칸트로피아(lycanthropia)라고 한다.
- (4) 느부갓네살은 바로 리칸트로피아는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게 되었다.
- (5) 이처럼 정신 질환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참조, 삼상 16:14). 그러나 모든 정신 질환이 인간의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없다(참조, 마 9:3).

23. ㉠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형벌의 기한이 차게 되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34절)

- ㉠ (1) 그 기한이 차므로 그에게 총명(聰明)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 (2) 여기서 말하는 기한은 7년을 가리킨다(16절).
- (3)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시련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인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당신의 지극한 마음이다(딤후 2:4; 벴후 3:9).
- (4)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24. ㉠ 총명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34, 35절)

- ㉠ (1)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면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였다.
- (2) 또한 느부갓네살은 하늘이나 땅의 누구에게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시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분께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자가 없다고 하였다.
- (3) 이 말씀 중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괴롭히셨

음을 확신했음을 알 수 있다.

- (4)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장 큰 왕인줄 착각했었는데 고난을 겪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말했다. 옛날 애굽의 바로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고 말했다(출 12:31,32; 시 136:10).
- (5)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인내가 많으신가를 알 수 있다. 아무도 그분 앞에서 끝까지 교만할 수가 없다. 그분은 모든 높은 것들을 낮추시는 능력의 주인이시다(참조, 시 75:6, 7).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오직 그분 앞에서 절대적인 겸손과 순종만이 있어야 한다(참조, 시 51:4).

25. **㉠** 느부갓네살이 회복되므로 그의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36절)

- ㉠** (1) 그가 이성을 되찾게 되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모사들과 관원들이 조회(朝會)하였다.
- (2) 그렇게 되므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세움을 입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 (3)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시며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지만 깨달은 후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욘 42:12-17).

26. **㉠**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였는가? (37절)

- ㉠** (1) 그는 하늘의 왕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존경하면서 그분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 (2) 아무리 교만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
- (3) 느부갓네살은 그가 자신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겪었기 때문에 겸손해진 사실을 인정한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긍휼로 나타났다.
- (4)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다운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 (5) 느부갓네살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참조, 마 5:45)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느냐 아니냐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와 상급이 주어진다.

본장의 요점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高)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0절).



## 제 5 장 벨사살의 축제와 하나님의 글씨

단락구분 1-4 벨사살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잔치를 즐기다 / 5-9 왕궁 벽에 글씨가 나타나다 / 10-12 갈대아인들이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다 / 13-16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청원하다 / 17-28 다니엘이 글씨를 해석하다 / 29 다니엘이 지위를 얻다 / 30-31 글씨의 해석이 성취되다

1 벨사살 왕이 그 귀인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일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멍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4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측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7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 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우고 그로 나라의 세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8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9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낮 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10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낮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11 왕의 나라에 기록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

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13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나

14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한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 지금 여러 박사과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드리우고 너로 나라의 세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략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21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테펠 우바르신이라  
 26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 테펠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술로 그의 목에 드리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30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욕심 이 세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로 세속적인 축제를 벌였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최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타락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축제를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 축제를 연 궁중 벽에 당신의 글로써 최후의 통첩을 보내셨다.  
 (3) 결국 그 글은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세째 치리자가 되었다.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징계하고자 원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면서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2대 성품(공의와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  
 (5) 그러므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므로 글자를 해독하는 자 이상으로 바벨론 제국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분의 전령 역할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갈대아와 메대·바사를 이어가며 계속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2. **㉠ 본장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라.**

- ㉠** (1) 다니엘은 본장에서 바벨론 함락 때 일어난 역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2) 그는 이미 포로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참조, 렘 25:11, 12; 29:10)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다니엘 때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4) 그러므로 본장의 기록은 유대 민족이 구원받을 기한이 거의 다 된 때임을 알 수 있다.  
 (5) 즉 시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 첫 포로(B. C. 605) 때부터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는 B. C. 539년까지 약 67년이 되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  
 (6)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내려져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참조, 대하 36:22, 23; 스 1:1-4).  
 (7)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 바벨론 왕 벨사살에 대하여 설명하라(1절).**

- ㉠** (1) 그는 B. C. 539년 메대 왕 다리오(Darius, B. C. 539-538)가 바벨론 성을 점거했던 시기에 갈대아를 통치한 나보니두스(Nabonidus, B. C. 556-539)의 아들이며 공동 섭정

자였다(30절;7:1).

- (2)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아버지로 칭해지고 있다(11, 18절). 바벨론의 원본은 이를 나보니두스의 아들로 지칭하는데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 계통의 자손이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 (3) 그의 이름은 '벨 신이 왕을 보호하셨다'라는 뜻으로서 나보니두스는 B. C. 550년경 벨사살을 섭정과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한 후 중앙 아라비아의 테이마(Teima)에 가 있었다.
- (4) 따라서 벨사살은 그의 부왕이 돌아올 때까지 최소한 10년간 바벨론을 다스렸을 것이다.
- (5) 그는 부왕인 느부갓네살의 역사와 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전 기명(器皿)을 더럽힌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
- (6)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시고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셨으며 그 말씀대로 매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 4. ㉠ 벨사살이 베푸는 잔치의 규모는 어떠한가? (1절)

- ㉠ (1) 그는 귀인 일천 명을 불러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 (2)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심판의 시기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 (3)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멸망의 시기가 이르러도 그 사태를 의식하지 못하고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치닫기 때문이다.
- (4) 벨사살도 그 당시 바벨론 성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천 명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는 바벨론도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시기였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 연회를 열었으니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며 또 백성을 압박했는지 짐작이 간다.
- (5)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더 극심한 민폐(民弊)가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 24:4-15).
- (6)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한다.

#### 5. ㉡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고 무엇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였는가? (2절)

- ㉡ (1)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器皿)을 가져오도록 명하였다.
- (2) 그 기명들은 여호아킨이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B. C. 597) 느부갓네살이 제 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하였는데 그때에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긴 성전의 기구들이었다.
- (3) 느부갓네살은 비록 성전의 기물(器物)들을 탈취하기는 했으나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더러운 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 (4) 스 1:9 이하의 기록에 보면 그 기물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잔들과 그릇인데 그 수가 약 5,400여 개에 달하였다.
- (5) 따라서 본절의 기록을 볼 때 벨사살이 얼마나 오만 방자했으며 타락했는지 잘 알 수 있다.
- (6)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물들이 술 잔치에 사용된 것으로 인해 매우 큰 괴로움을 느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상쇄당했을 때 다니엘과 같은 의분(義忿)이 있어야 한다.

#### 6. ㉢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부왕으로 표현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절)

- ㉢ (1) 성경 기록상 본장 외에는 벨사살 왕에 대하여 언급된 곳이 없다.
- (2) 그러나 최근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가 자신의 왕권을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넘겨 주고 자신은 아라비아로 은퇴했다는 당시의 기록이 발견되었다.

- (3) 느부갓네살은 B. C. 562년에 죽었고 그의 아들 아멜말дук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렘 52: 31의 에월므로닥을 가리킨다). 아멜말дук은 그의 자형(姉兄)인 네르갈사레셀(렘 39:3, 13)에게 살해되었다.
- (4) 그리고 네르갈사레셀은 B. C. 560년 8월에 왕위에 올랐다. 그 후 그의 아들인 라바시 말дук이 B. C. 566년 왕위를 계승했는데 나보니두스가 이끄는 무리들에게 암살되었다.
- (5) 나보니두스는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넘겨 주었으나 여전히 왕으로 남아 공동 통치를 하였다.
- (6) 따라서 성경에서는 벨사살을 마지막 왕으로 언급했으나 세계사(世界史)에서는 나보니 두스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한다.
- (7) 그렇기 때문에 본절에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부친이라고 말한 것은 족보(族譜)를 따지면 틀린 표현이다.
- (8)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조부이거나 몇 대 조상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렀으므로 본절에서의 문제도 벨사살은 자신을 낳은 아버지가 아니라 단지 선조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 벨사살은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 (3, 4절)**

- ㉠** (1) 그는 성전 기명을 가지고 귀인, 왕후, 빈궁들과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였다.
- (2) 벨사살과 그의 손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 (3) 사실 이때의 상황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한 상태였는데 벨사살은 자기 군대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교만이 있었다.
- (4) 그렇지만 그의 이런 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가져왔는데 로마 제국도 교만과 쾌락주의로 인해 멸망당한 역사를 비교해 볼 때 과연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참조, 잠 16:18).
- (5)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나 세계사에 나타난 모든 상황을 통하여 겸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8. **㉠ 신성 모독에 속하는 잔치를 벌였던 벨사살은 어떤 것을 보았는가? (5절)**

- ㉠** (1) 잔치의 흥이 한창 무르익을 때 왕궁 축대 맞은편 분벽(粉壁)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글자를 썼는데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았다.
- (2) 왕궁의 분벽에 나타난 손은 실제로 사람의 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외적인 상징을 다룰 때 종종 이런 표현 방식을 성경에서 사용했기 때문이다(참조, 사 2:15; 사 59:1).
- (3) 본절의 이와 같은 상황은 특히 배후에 계신 신비한 인격자의 개념을 잘 나타내 준다. 유일 무이(唯一無二)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의하여 모독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으신다(참조, 출 20:7).
- (4) 이런 것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주어진다(참조, 수 7:20-26; 행 5:1-11).

9. **㉠ 벽에 나타난 글씨를 본 벨사살은 그 심사(心思)가 어떻게 되었는가? (6절)**

- ㉠** (1) 잔치를 즐기던 왕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 (2) 두려움과 공포는 불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심적 상태이다. 벨사살이 느낀 것도 외적 상황보다는 근본적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두려움이었다.

- (3)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인격들은 항상 조그마한 충격 앞에서도 꼼짝하지 못하는 나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에는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인이 되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참조, 잠 28:1).
- (4)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 면에서 평안하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참조, 사 41:10).

10. **㉠**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벨사살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7절)

- ㉠** (1) 벨사살은 술객, 술사, 점장이 그리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글자를 해석하라고 하였다.
- (2) 그리고 만약 그것을 해석하기만 하면 자주(紫朱)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우고 그를 나라의 세째 치리자(治理者)를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 (3) 벨사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글씨의 내용을 알려고 하였다. 여기서 벨사살은 여호와와 선지자가 그의 부친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 (4)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참된 지혜의 근원을 바로 찾지 못하고 항상 자신을 더욱 어리석게 만드는 행동을 취한다.
- (5) 그래서 벨사살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글씨를 해석해 보려고 하였다. 더우기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금을 내놓고 해석을 얻고자 한 것이다.
- (6) 그가 제시한 상금은 먼저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드리운다'는 것은 바벨론의 높은 계급을 준다는 말이다. 그 계급은 뒤에 '나라의 세째 치리자를 삼으리라'는 말로 확실히 되었다.
- (7) 그 지위는 전왕국을 통치하는 세 통치자 중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최고 지위는 역시 왕이고 그 아래 두번째로 총리이고 세째는 바벨론 각 도를 통괄하는 제 3의 인물이다.
- (8) 이 직위는 이미 2:49에 언급된 통치자 중 하나이며 메대의 다리우스 왕 때에도 있었던 직위이다(참조, 6:3).

11. **㉠** 벨사살의 의도는 어떤 결과로 끝났는가? (8, 9절)

- ㉠** (1) 그가 상금을 내걸고 벽에 나타난 글씨의 해석을 알고자 했으나 갈대아의 박사들은 해석하지 못하였고 모두가 놀라고 번민하여 두려움에 빠졌다.
- (2) 이처럼 인간들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너무 가소로운 일이다.
- (3)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짧은 지식이 인간의 것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참조, 사 29:11; 고후 3:14).
- (4)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내리신 목적은 벨사살의 패역한 행위로 인하여 바벨론의 운명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참 뜻을 결코 알 수 없음을 보여 주시려는 데 있었다.
- (5)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통하여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고 수치를 느끼거나 스스로 좌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12. **㉠** 다니엘은 어떻게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었는가? (10-12절)

- ㉠** (1) 다니엘은 태후(太后)의 추천에 의하여 벨사살 왕 앞에 나서게 되었다.
- (2) 여기서 다니엘을 추천한 태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녀가 벨사살의 아내인지 조모(祖母)인지는 언급이 없다.
- (3)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그녀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불 때 매우 늙은 여인이라는 사실이다.

- (4) 그녀는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 해석한 꿈(2:31-45;4:10-37)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두려움 없이 벨사살에게 알려 줄 수 있었다.
- (5) 태후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물론 다니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6)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함께 진리를 수호하려는 강인한 투지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만이 참자유인이 될 수 있다(참조, 요 8:32).

**13. ㉠ 다니엘을 부른 벨사살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가? (13-16절)**

- ㉠** (1)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갈대아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한 글씨를 해석하라고 하였다.
- (2) 그래서 그 해석을 말해 주면 자주 웃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드리우고 나라의 세째 치리자를 삼으리라는 상급을 제시했다.
- (3) 벨사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을 가지고 패역한 잔치를 벌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 대하여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 (4) 그렇지만 떳떳한 다니엘의 태도는 교만하고 패역한 왕을 굴복시키고 말았다. 글씨가 나타나므로 두려움에 빠진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었다. 더우기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은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4. ㉠ 벨사살이 제시한 조건을 다니엘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7절)**

- ㉠** (1) 그는 왕에게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賞給)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왕을 위해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 (2) 다니엘은 사제를 거절하였는데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과 차이가 있다.
- (3) 즉 느부갓네살은 권세나 재산을 주기 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이 인정해 주었다(2:46-48;4:34-37).
- (4) 다니엘은 세상의 물질적 부의 축적이나 세상적 권세의 취득에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 (5)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단 벨사살의 조건을 거절하였고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15. ㉠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글씨를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상기(想起)시켰는가? (18-23절)**

- ㉠** (1)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들짐승처럼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였다.
- (2) 그리고 이어서 벨사살도 그 사실을 알았으나 겸손해지지 않고 더 교만하고 패역하여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 (3)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기도 하며 그 역사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게 된다.
- (5) 이런 면에서 불 때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패역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한 벨사살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6)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리석은 자를 멸망하기까지 철저히 다스리신다(참조, 신 8:20; 잠 18:12; 행 3:23).

16. **㉠** 다니엘의 지적 중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18-23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뜻이 강퍽해지므로 그의 영광을 빼앗았고 그를 인생 중에서 쫓아 들짐승처럼 되게 하셨다.  
 (3) 벨사살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과거 역사를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  
 (4)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참조, 고전 10:31; 계 4:11).  
 (5)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다(참조, 시 73:25, 26).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죄에 물들어 인간적인 패락을 추구하게 되었다.  
 (6)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롬 5:8).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적 태도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롬 1:20).

17. **㉠**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였는가? (18-20절)

- ㉠** (1)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고 있다.  
 (2)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셨으나 그가 교만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빼앗으셨다.  
 (3)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인간과 함께 그 일을 추진해 가시는데 인간들이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대상자를 바꾸어서라도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신다(참조, 왕하 19:28; 욥 12:19; 잠 21:1; 사 37:29; 겔 29:4).  
 (4)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제한된 것 같지만 실상 그런 위치가 가장 자유스럽고 행복하다.

18. **㉠** 벨사살 왕의 잘못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다니엘이 해석해 준 느부갓네살의 모든 과거사를 벨사살이 알고 있었으나 깨닫지 못한 것이 첫째 잘못이고 거룩한 성전의 기명(器皿)을 가지고 세상의 연락(宴樂)에 빠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둘째 잘못이었다.  
 (2)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자신과 나라와 백성까지 멸망으로 몰고 갔다.  
 (3)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사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명확하게 선과 악, 잘잘못을 구분하여 주어지기 때문이다.  
 (4) 그리고 그 징계는 자신 뿐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큰 손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삼하 24:1-25).

19. **㉠** 벽에 나타난 글씨와 그 해석은 무엇인가? (24-28절)

- ㉠** (1) 그 벽에 나타난 글자는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네 개의 단어였다.  
 (2) 그 뜻은 <메네>가 두 번 반복하여 쓰였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이다. 이것은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왕국들에 대하여 기일을 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욥 14:5).  
 (3) <테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일관된 판단 기준과 지배 원리에 의하여 벨사살에게 공의대

로 행하셨음을 말한다(욥 31:6).

- (4) <베레스>는 복수형인 <우바르신> 대신에 쓰였는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는 뜻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패역한 벨사살의 나라가 분열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5)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희망을 준다. 즉 세상에서 자신들의 권력이나 영광만을 생각하고 패역한 삶을 살고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壽)를 거두어 가신다(참조, 시 37:1, 2; 129:4-6).

20. ㉠ 벨사살은 글씨를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어떤 보상을 하였는가? (29절)

- ㉠ (1) 그는 처음에 제시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드리우고 조서(詔書)를 내려 나라의 세제 치리자로 삼았다.
- (2) 다니엘의 해석은 벨사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수치스런 내용이었으나 벨사살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즉시 상급을 하사했다.
- (3) 다니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 (4)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니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지적받을 때 인간적인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다윗과 같은 철저한 회개를 하고 회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참조, 삼하 12:13-23; 시 51:1-19).

21. ㉠ 벽에 보여진 글씨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30, 31절)

- ㉠ (1) 그것은 글씨를 해석해 준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일으므로 성취되었다.
- (2) 이때가 바벨론의 실질적 패망의 날이었는데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 B. C. 484-430)와 크세노폰(Xenophon, B. C. 430-354)은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적들이 들어와 보니 사람들이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B. C. 539년 11월 또는 12월).
- (3) 한편 다니엘이 다리오라고 언급한 인물을 크세노폰은 키악사레스(Kyaxares)라고 칭하였다.

본장의 요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粉壁)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5절).

## 제 6 장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다

**단락구분 1-3 다니엘이 뛰어난 위치에 오르다 / 4-5 시기받는 다니엘 / 6-9 다리오의 실수 / 10 참된 신앙인으로서는 다니엘의 모습 / 11-15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참소하다 / 16-18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 19-23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다 / 24 참소자들이 대신 죽다 / 25-28 다리오의 조서**

1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일백 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던라

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이었던라

5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6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 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13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14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 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15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16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아구를 막으며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던라

18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악을 그치고 침수할 때하니라

19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21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24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때까지도 부쉬뜨렸더라

25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니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28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1. **㉠ 본장에 언급된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에 부딪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다니엘은 포로였으나 지배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자 시기를 받게 되었는데 그를 넘어뜨릴 꾀투리가 없었다.
- (3) 이때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다리오 왕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였다.
- (4) 그렇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와 그 가족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더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
- (5)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6) 다니엘의 역사는 오늘날 연약한 성도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준다. 현대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생활은 편해졌으나 정신적, 신앙적인 면에서 더 퇴보하고 약해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알게 해준다.

2. **㉠ 바벨론 왕 벨사살의 뒤를 이어 통치자가 된 메대 사람 다리오에 대해 설명하라(1절).**

- ㉠** (1)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 (2) 그는 벨사살이 사망한 직후 바벨론을 떠맡은 고브리아스와 동일인으로 알려졌는데 광범한 지역을 다스리는데 돕도록 총리들과 방백들을 임명하였다.
- (3) 그는 고레스가 자유롭게 통치하기까지 약 2년간 지배한 것 같다. 한편 그는 고레스 왕 치하의 한 통치자였던 구바후일 수도 있다.

3. **㉠ 다리오가 통치하던 제국의 행정 구조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는가? (1, 2절)**

- ㉠** (1) 그 나라는 120명의 방백이 전국을 통치하고 그 위에 총리 세 명을 두었으며 그 위에는 왕이 있었다.
- (2) 120명의 방백은 다리오의 비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에 1:1의 127명의 방백과는 다르다.

4. **㉠ 120명의 방백 위에 총리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방백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2) 다른 말로 '왕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고 번역할 수 있다.
- (3) 120명의 방백들이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했다면 큰 혼란이 야기되었

을 것이다. 그래서 방백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 (4) 이런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손을 뻗으셨다.
- (5) 유다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질서의 신이신 하나님은 체계 있게 당신의 백성을 도우셨다.
- (6) 따라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기적과 같은 현상만 바라서는 안 된다.

5. **㉠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는가? (3절)**

- ㉠** (1)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이나 방백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였다.
- (2)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셔서 그에게 탁월하고 우수한 영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색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 (3) 다리오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세 총리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올리려고 하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면 인간들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다(시 94:10; 잠 3:19; 사 11:2).
- (5)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 명철을 주실 수 있는 분이므로 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참조, 고전 1:25, 27-29).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약 1:5).

6. **㉠ 방백과 총독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갖는 생각과 태도는 어떠한가? (4절)**

- ㉠** (1) 방백과 총독들은 다니엘의 성장에 대하여 못마땅한 생각을 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고소(告訴) 거리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 (2) 다니엘은 포로였으나 신앙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왕에게 충성을 다했으므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 (3) 그러나 바사의 방백들과 총리들은 자국민(自國人)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려고 하였다.
- (4)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입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짖고 있으나 실제로는 텃세와 자존심 등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 (5)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세워 주고 인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양심으로 무장하여(벧전 3:16) 하나의 신앙 군대를 형성해야 한다.

7. **㉠ 다니엘의 충성에서 흠을 잡지 못한 방백들과 총리들은 그의 어떤 점을 꼬투리로 잡았는가? (5절)**

- ㉠** (1) 그들은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을 꼬투리로 잡아 참소하려고 하였다.
- (2) 하나님의 율법은 신정 율법(神政律法)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종교 생활의 법칙이었고 또한 다니엘 자신의 경건한 활동의 법칙이었다. 신앙적인 면의 규정은 사람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바사의 총리들과 방백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 (4)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으므로 사단과 끝없는 투쟁을 해야만 한다.
- (5) 흠이 흠없는 의인이었으나 사단은 그의 신앙을 꺾으려고 갖은 시련을 준 것만 보아도(욥 1:13-19; 2:7-9)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 (6)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은 잠깐이요 그 후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딤후 2:5; 약 1:12).

8. **㉠** 바사의 방백들과 총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는가? (6-8절)

- ㉡** (1) 그들은 다리오에게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무엇도 구하지 말게 하고, 만일 그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2) 이런 내용에 대하여 칼빈은 바사의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리오의 자존심과 명예욕을 자극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3) 즉 이때에 다리오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고레스는 한창 젊은 때였으므로 다리오는 내심 고레스와 경쟁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바사의 방백과 총리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다리오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4) 전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을 신격화시켜 성도를 궁지에 몰리게 하려는 사단의 술책이다.  
 (5) 로마 시대의 성도나 일제 치하의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잘 극복하였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을 쌓아야 한다(참조, 롬 4:20-24; 고전 16:13; 엡 6:16; 요일 2:13-17).

9. **㉠** 이들이 정한 금령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7-9절)

- ㉡** (1)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2) 이방인들은 사람들에게도 기도하였기 때문에(2:46) 이 금령은 외형적으로 문제시될 것은 없었다.  
 (3)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다리오는 그 흉계를 모르고 조서에 어인(御印)을 찍었다.  
 (4) 여기서 30일이라고 말한 것은 한 금령을 정한 일반적 기한에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나실인의 서원 등에서이다(행 21:26).  
 (5) 한편 우리는 본질을 통하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별것도 아닌 존재인줄 알면서 높아지려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이다.

10. **㉠** 방백들과 총리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더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8절)

- ㉡** (1) 그들은 다리오에게 금령을 세우고 어인을 찍어 폐대와 바사의 변개(變改)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2)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는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 효력을 나타낸다(에 1:19; 8:8).  
 (3)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은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만다. 왜냐하면 법이 자주 바뀌면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그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4) 법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는 정의가 보편화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참조, 마 24:35; 막 13:31).

11. **㉠** 조서가 발표된 뒤 다니엘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10절)

- ㉡** (1)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조서가 발표되었으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2)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조서의 금령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닥치게 되는지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경건한 의무를 계속하였다.  
 (3)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도 중요하다.  
 (4) 만일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외적인 모습은 바뀌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가르쳐 준다(롬 10:10).

12. ㉠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10절)

- ㉠ (1) 그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2)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애타는 마음과 그곳을 중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잘 보여 준다.  
 (3) 또한 포로의 몸이었으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4)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하므로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신 32:6, 7; 렘 5:7-9, 24).  
 (5) 그렇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 언제나 감사해야 할 일만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신 8:10; 시 100:4; 골 3:15; 살후 2:13).

13. ㉠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참소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1-13절)

- ㉠ (1)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조서의 규정대로 사자굴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2) 사단의 세력들은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참조, 욕 1:9-12; 눅 22:31; 벰전 5:8).  
 (3) 또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들에게 빠져 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도록 만들어 놓은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준다.  
 (4) 특히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라는 말로 참소당한 것으로 볼 때 다리오에게 더 많은 미움을 받도록 유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4. ㉠ 참소자들로 인하여 다리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14절)

- ㉠ (1) 다리오는 자신이 인간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세운 금령 때문에 아까운 인재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마음에 심한 근심을 하게 되었다.  
 (2) 또한 다니엘을 건져 내려고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나 방책도 없이 저녁 해질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3)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응답받고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곤란을 겪었었다(참조, 창 20장; 수 9:3-15; 삼하 24장).  
 (4) 따라서 우리들은 다리오나 기타 인물들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후 결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15. ㉠ 방백들과 총리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한 다리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5, 16절)

- ㉠ (1) 참소자들은 세워진 법령을 내세워 다니엘을 사자굴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리오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하고 말았다.  
 (2) 다리오는 다니엘을 신임하여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하였으나(3절) 법령을 제정한 자로서의 체면이 앞섰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게 하였다.  
 (3) 이처럼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체면을 앞세우는 자는 헤롯과 빌라도처럼 반(反) 그리스도(anti-christ)적인 일을 범하고 만다(참조, 마 27:11-26; 막 6:14-29; 15:1-15).  
 (4)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인간적인 자존심과 명예, 권력 등을 모두 버릴 수 있어야 한다(참조, 눅 19:1-10).

16. ㉠ 다니엘이 굴속에 들어갈 때 다리오는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하였는가? (16절)

- ㉠ (1)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했다.  
 (2) 다리오는 마음에 확신이 서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줄기의 희망

을 갖고 있었다.

- (3) 그리고 이 말 중에는 자신은 무능하여 다니엘을 구해 줄 수 없으나 전능한 하나님은 능히 구하실 수 있다는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4)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다리오의 신앙은 아니다. 유능하며 충실한 신하 다니엘을 잃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 (5) 즉 신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 인간미는 있었으나 그 안에 신앙은 없었던 것이다.

17. **㉠** 참소자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17절)

- ㉠** (1) 돌을 굴러 굴 아구를 막은 후 왕이 어인(御印)과 귀인들의 인(印)을 쳐서 봉함으로 다니엘을 처치한 일에 대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였다.
- (2) 다리오는 신실한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 그의 통치권마저 잃게 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게다가 굴 아구를 봉하고 어인을 찍으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하는 그의 모습은 비참한 것이었다.
- (3)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의 율무에 걸려들면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면 그 모양도 버려야 한다(살전 5:22).

18. **㉠** 다니엘을 굴속에 넣은 다리오의 심사(心思)는 어떠한가? (18절)

- ㉠** (1)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궁에 들어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악(伎樂)을 그치고 침수(寢睡)를 폐하였다.
- (2) 다리오는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과 인간 본성의 법에 어긋나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후회하였다.
- (3) 죄로 인하여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소용이 없고 이전까지 삶에 활력을 주던 일들마저도 불쾌한 생각이 들게 된다.
- (4) 이처럼 죄의 율무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지내게 된다(시 104:35; 잠 13:6; 겔 18:20; 살후 1:9).
- (5) 따라서 의인들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으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혼자 고민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고백함으로 죄의 율무를 벗어버릴 수 있다.
- (6) 그런데 다리오는 자신에게 엄습하는 죄의 슬픔을 통하여 죄를 회개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참조, 고후 7:10)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태도를 갖지 않았다.

19. **㉠** 다니엘의 죽음을 걱정했던 다리오의 태도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9, 20절)

- ㉠** (1) 그는 이른날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물어 보았다.
- (2) 이제 왕은 지난 밤의 슬픔으로 인하여 악한 신하들의 생각대로 따르던 무능한 태도를 버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 (3)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못했다. 그의 신앙이 확실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셨느냐'라고 질문했을 것이다.
- (4) 일찌기 다리오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다니엘은 그의 선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다.
- (5)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롬 10:17; 갈 3:2, 5).

20. **㉠** 다리오의 질문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은 어떠한가? (21, 22절)

- ㉠** (1)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

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었으며 왕의 앞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2)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였다.
- (3) 특히 자신이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강조하면서(시 34:8; 91:11; 마 8:9; 딤후 4:17; 히 11:33) 맹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준다.
- (4) 베드로가 사단의 세력을 사자에 비유한 것도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벧전 5:8).
- (5) 결국 이 사건은 다니엘의 무죄를 입증해 주었을 뿐 아니라 신앙적인면 외에 왕의 통치에 거역한 일이 없었던 다니엘의 충성심을 증명해 주었다.
- (6)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무조건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거시적 안목을 갖고 정의와 진리를 외쳐야 한다.
- (7) 이런 일은 정치 뿐 아니라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진리를 전해야 할 자들이 교회 정치에만 전념하므로 교회와 교단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자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 21. ㉠ 사자굴에서 풀려 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3절)

- ㉠ (1) 굴속에서 풀려 난 다니엘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 (2) 다니엘이 안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히 11:33).
- (3)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사자굴이든 음부든 낙원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 (4)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다니엘의 반대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그들이 처음 세웠던 법을 집행하는 일을 충족되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5) 결국 다니엘은 오늘날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고전 10:13).

## 22. ㉠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24절)

- ㉠ (1) 그들은 자신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
- (2)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던 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는데 야만적인 법을 고안한 자들은 그 법에 의하여 심판받는 것이 정당하다(참조, 시 7:15, 16; 9:15, 16).
- (3)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던 바사의 총리 하만도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는 결과를 맞이하였다(에 7:9, 10).
- (4) 결국 솔로몬의 말과 같이 악인들의 최후가 결정되므로(참조, 잠 11:8) 성도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통하여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

## 23. ㉠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후 다리오는 어떤 조서를 발표하였는가? (25-27절)

- ㉠ (1) 그는 각 도의 모든 자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라고 조서를 발표하였다.
- (2) 그 이유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사의 어떤 신들보다 월등하며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뿐 아니라 그 나라가 무궁하기 때문이다.
- (3)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죽음의 그늘에서도 건져 내시며 하늘과 땅의 이적으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 (4) 이런 사실은 다니엘의 역사가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

음을 보여 준다.

- (5) 결국 우리는 다니오의 조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는 초월적이며, 그분의 통치는 범위가 무한하며 절대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과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 (6)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므로(참조, 출 20:5; 신 4:24; 6:15; 수 24:19; 나 1:2) 자신만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 (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같이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한다(고전 10:31).

24. **㉠ 신앙으로 승리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8절)**

- ㉠** (1) 다니엘은 다니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
- (2)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하게 된다.
- (3) 다니엘의 이런 형통은 애굽으로 팔려 갔던 요셉과 비견된다(참조, 창 39:1-3, 19-23; 41:37-43).

화보자료

사자 굴에 갇힌 다니엘. 프랑스 라 소브 마쥬르 성당의 한 기둥머리에 새겨진 조각이다. 대적들의 간계에 의해 사자 굴에 갇힌 다니엘(1-17절)의 모습은 오히려 평화롭기만 하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떠한 곤경에 처하여서도 결코 낙담치 않는 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할 3:18, 19). 이 점에 있어서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원수들의 간계에 의해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머리 카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였다(23절).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였을 때 낙심치 말고 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롬 12:12).

# 제 7 장 다니엘이 꿈속에서 이상(異像)을 본다

단락구분 1-8 꿈속에서 본 네 종류의 짐승 / 9-12 하나님의 왕좌(王座) / 13-14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이상 / 15-28 이상 속의 네 짐승에 관한 해석

1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불 사이에 그 날개가 뿔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도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천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뿔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9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불은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퍼 놓였더라

11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

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16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17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18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 이에 내가 네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숴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뿔혔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21 네 각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3 모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네째 짐승은 곧 땅의 네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라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될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 나라와 권세와 은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낮빛이 변화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1. **㉠ 본장에서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다니엘이 꿈속에서 받은 이상과 그 해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꿈은 앞으로 있을 세계 역사의 변화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 (2) 그 꿈속에서 다니엘은 네 종류의 짐승을 보았는데 그 첫째는 사자와 같으나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둘째는 곰과 같은 짐승이며, 세째는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었다. 네째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극히 강하며 철로 된 이가 있었다.
- (3) 이 네 짐승의 이상은 2장에 느부갓네살이 환상으로 본 신상과 같이(2:31-45) 네 개의 제국을 가리킨다.
- (4) 즉 사자는 바벨론이요, 곰은 바사요, 표범은 헬라 제국, 철 이를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 (5) 그렇지만 이 땅에 존재했던 막강한 제국들은 메시아가 재림할 때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며 오직 새로운 왕국이 설립되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 수 있다.

2. **㉠ 다니엘이 꿈속에서 이상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바벨론 왕 벨사살의 원년이었다.
- (2) 즉 바벨론의 나보니두스(Nabonidus, B. C. 555-539)의 아들로서 섭정을 했던 벨사살(B. C. 550-539)의 원년을 가리킨다.
- (3)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되기 14년 전인 B. C. 550년을 가리키며 전장(6장)보다 앞선 시대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3. **㉠ 다니엘이 밤에 본 이상은 어떠한가? (2절)**

- ㉠** (1) 다니엘은 이상 가운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부는 것을 보았다.
- (2)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은 네 귀퉁이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넷이라고 말할은 곧 세상의 모든 바람을 의미한다(8:3; 렘 49:36; 습 6:5).
- (3) 또한 하늘의 바람이란 하나님이 세상의 백성들을 활동하게 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의미한다.
- (4) 또한 큰 바다는 대양(大洋)을 가리키고 바다의 폭풍은 백성의 소요, 즉 세상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소란 상태를 상징한다.
- (5) 그런데 구약의 예언적 상징에서 바다는 종종 이방 세계를 표현하고 밀려오는 파도는 미미한 세력의 하나님 백성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세력으로 보여진다.
- (6) 그러므로 다니엘이 본 이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시 46:4; 사 8:7; 17:12; 27:1; 57:20; 계 8:8; 17:15).

4. **㉠ 다니엘은 이상 중 큰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가? (3절)**

- ㉠** (1) 다니엘은 자기 다른 모양을 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 (2) 이 짐승들은 동시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차례로 나타났는데 이는 열방 민족과 나라를 가리킨다. 특히 굶주린 짐승이나 괴물로 나타난 것(시 68:31; 74:13; 사 27:1; 51:9; 29:

3; 켈 32:2)은 곧 왕들이나 제국으로 상징되는데 그것이 고대의 관습이었다.

- (3) 그러므로 네 짐승이 올라온 것은 온 세상을 혼란과 격동 속으로 몰아넣을 왕국의 계승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 (4) 게다가 모양이 각기 다른 것은 각 제국들의 특색과 정치적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5. **㉠ 바다에서 올라온 첫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 (1)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볼 때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 (2) 사자가 날개를 달고 있다는 것은 신속함을 의미한다. 사자는 렘 4:7; 49:19; 50:17, 44에 그리고 독수리는 렘 49:22; 애 4:19; 함 1:8 등에 나타난다.
- (3) 짐승 중의 왕으로서 사자, 새들 중의 왕으로서 독수리는 2장에서 언급된 신상 중 가장 귀한 금 머리와 같고 그것은 곧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
- (4) 그런데 잠시 후 그 짐승은 날개를 뽑히는데 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
- (5) 이 의미는 바벨론 제국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본성을 지녔던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형상과 그 본성으로 변화된 것을 가리킨다. 이 변경의 설명은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언급된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4:28-33).
- (6) 짐승처럼 들을 해매던 느부갓네살이 진실한 인간의 의무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의 이성도 회복되었다(4:34-37).
- (7)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짐승과 같은 본성이 사라질 때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 회복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르쳐 준다.
6. **㉠ 다니엘의 이상 중에 나타난 두번째 짐승은 어떤 것인가? (5절)**
- ㉠** (1) 두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다.
- (2) 은이 금보다 못하듯이(2:39) 곰도 역시 사자보다는 못한 짐승이다. 그러나 두려운 짐승임에는 틀림이 없다(삼상 17:34; 잠 28:15; 호 13:8; 암 5:19).
- (3) 따라서 이 곰은 게으르고 미련해 보이지만 잔인하기 때문에 약탈을 일삼는 바사 제국을 가리킨다고 선지자들은 증언하고 있다(참조, 사 13:17; 21:22; 렘 51:11).
- (4)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곰이 세 갈빗대를 문 것을 보았는데 이는 바사 왕국이 메대의 권력을 흡수했으며 애굽과 앗수르와 갈대아(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사실을 의미한다.
7. **㉠ 세번째 짐승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는가? (6절)**
- ㉠** (1) 세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 (2) 이것은 네 날개를 가지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렘 5:6; 호 13:7)을 가리키는데 이는 전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그 의미는 하나의 세계 제국을 나타내며 그 제국은 헬라를 의미한다.
- (4)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표범을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헬라 제국으로 보고 그 날개는 헬라의 정복력으로 본다. 그리고 네 머리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헬라 제국을 분할했던 네 명의 장군을 가리킨다.
- (5) 알렉산더가 죽은 후 셀류쿠스(Seleucus, B. C. 312-280)는 헬라의 동쪽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고, 안티고누스(Antigonus)는 길리기아와 브루기아를 포함한 소아시아와 인접 지역을 다스렸다. 그리고 프톨레미(Ptolemy, B. C. 367-285)는 애굽과 아프리카의 일부를, 카산더(Cassander)와 안티파테르(Antipater)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다.
- (6) 결국 온 세계를 통치할 권세를 부여받았던 헬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게 되었다.

8. ㉠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네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7절)

- ㉠ (1) 네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철로 된 이(齒)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는데 앞에 보여진 세 짐승과는 다르게 열 뿔이 있었다.  
 (2) 철은 본래 강하고 날카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참조, 렘 15:12; 미 4:13).  
 (3) 그렇기 때문에 네째 짐승은 먹는 일만 만족하지 않고 못 먹는 것은 파괴하고 짓밟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앞에 언급된 세 종류의 짐승과 달리 네번째 짐승은 호전적 힘과 통치력을 의미하는 열 뿔을 가지고 있다(신 33:17; 삼상 2:1, 10; 욥 16:15; 시 18:3; 미 4:13).  
 (4)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지중해의 섬과 시리아, 마게도니아, 헬라, 소아시아 등 지역을 휩쓸었던 로마 제국을 네번째 짐승으로 보고 있다.

9. ㉠ 네번째 짐승에게 있는 열 개의 뿔은 어떤 모양으로 붙어 있었는가? (8절)

- ㉠ (1) 그 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뿔렸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2) 열 개의 뿔 중에서 세 뿔을 뽑고 새로 나온 작은 뿔은 ‘왕’ (11:36-45), ‘불법의 사람’ (살후 2:3-8), ‘짐승’ (계 13:4-10) 또는 ‘적그리스도’로 이해되어진다.  
 (3) 또 뿔은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는데 이 뿔이 눈을 가졌다고 한 것은 그것이 지성적이며 인간적인 성질을 가졌음을 보여 준다.  
 (4) 게다가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세력을 통솔하며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도 암시한다.  
 (5)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작은 뿔들이 시이저(Caesar)와 그를 계승한 로마의 황제들(아구스도,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등)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6) 그러나 영(E. J. Young)이나 퓨세이(Pusey)는 작은 뿔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10. ㉠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어떤 자의 모습을 보았는가? (9절)

- ㉠ (1) 그는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座定)하신 것을 보았다.  
 (2) 다니엘은 앞에서 보았던 네 짐승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이상을 보게 되었다.  
 (3)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며(참조, 시 55:19; 90:2; 사 44:6) 능력의 모범이며 지혜의 모범이신 분이다.

11. ㉠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주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9, 10절)

- ㉠ (1)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는 불이었다.  
 (2) 또한 그 주위에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퍼놓였다.  
 (3)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신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가 가능한 형태를 취하신 것이다(참조, 마 28:3; 요 일 3:2).  
 (4) 더우기 그 옆에 서 있는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어전 회의(御殿會議)와 같은 천국 회의를 연상시킨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12; 사 6:6-13).

- (5) 본절에서 보좌의 ‘불이 붙은 바퀴’는 에스겔이 그의 이상 가운데서 본 번쩍거리는 불을 발산하는 전차 모양의 보좌를 기억시켜 주는데(겔 1:4, 15; 10:2, 6) 심판의 불과 심판자인 하나님과의 연관은 아주 자연스럽다(시 50:3). 이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현현(顯現)하셨던 두드러진 모습이었다(참조, 시 97:3).
- (6) 은 땅의 조정자와 심판자로서 묘사된 하나님은 주로 구약에서 나오지만(창 18:25; 시 7:8; 82:8; 96:10; 사 2:4; 3:22) 신약에서도 가끔 언급되고 있다(롬 3:6; 히 10:30; 12:23; 약 4:12).
- (7)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행 10:42; 약 5:9; 벰전 4:5)으로 묘사되고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로서 일하시는 자로 설명되고 있다(요 8:16).

12. ㉠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때 무엇에 기준하여 심판하시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 있는 책들에 쓰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 심판하신다.
- (2) 이 책은 사람들의 선과 악을 구별하여 기록한 것으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
- (3) 거기에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사 65:6, 7)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행위도 기록되는데(시 56:8; 말 3:16)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출 32:33; 계 13:8).
- (4)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예외가 없다.
- (5)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질 때 그 앞에서 변명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경건 생활에 힘쓰고 심판 자리에 앉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참조, 마 25장).

13. ㉠ 입이 있는 작은 꿩의 소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1, 12절)

- ㉠ (1) 그때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하여 불속에 던져졌으며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정한 시기(時期)만 살도록 생명이 연장되었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에 대한 그분의 사법적 심판을 나타내는데 짐승의 파멸로 끝나기까지 오래도록 환난이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 (3)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교만은 낮아지고 권세는 빼앗겨 무능하게 되는데 2:34에 쓰인 돌로 인하여 완전히 부수지는 신상의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다.
- (4) 결국 이 환상은 로마의 멸망으로 성취되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에 대하여 준비할 것을 교훈해 준다.

14. ㉠ 네째 짐승은 불속에 던져지고 나머지 짐승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 ㉠ (1)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 (2) 네째 짐승은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졌었으나 새롭게 탄생하는 메시아 왕국은 그들의 권세를 박탈하고 그 안에 세상 모든 권세를 병합시켰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압제를 보시고도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그 압제가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환난이 결코 힘든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르쳐 주면서 그 후에 주어질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심어 준다.

15. ㉠ 다니엘은 이상 중에 어떤 자를 보았는가? (13절)

- ㉠ (1) 그는 밤 이상(異像)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 (2) 이번엔 다니엘이 본 이상은 메시아 왕국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다.

- (3) 이런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 (4) 따라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와 그의 왕국은 범위에 있어서 세계적이며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과 연관지어진다.
- (5) 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한 반복 주기 운동으로 왕국들의 흥망 성쇠가 반복되지만 메시아 왕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2:46;4:3;6:26;7:14, 27).
- (6)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물론 세상의 통치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롬 13:1, 2) 메시아 왕국은 초인간적이며 초자연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영원 불변하다.
- (7) 한편 본절에서 인자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셨고(갈 4:4) 당신의 대권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참조, 요 1:14;14:28;16:7;롬 6:10;빌 2:7).

16. **㉠** 인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다.
- (2)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므로 결코 옮겨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나라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 (3) 이 귀절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통치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되는 때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그분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시기를 말하기 때문이다.
- (4) 이제 그 나라의 도래(到來)가 임박하였다. 본장 앞 부분에 언급된 짐승의 왕국(3-8절)이 파멸될 때 메시아 왕국이 올 것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 (5) 신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임박한 종말을 준비시키기 위해 '회개할 것'을 외쳤던 것이다(참조, 마 3:1, 2; 4:17; 막 1:15; 행 19:4).
- (6)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나라가 임박하였다는 것은 주위에 나타난 상황들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적같이 임할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참조, 마 13:33; 막 13:34; 살전 5:6).

17. **㉠** 다니엘은 앞에서 본 네 짐승의 이상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란하므로 누구에게 질문을 하였는가? (15, 16절)

- ㉠** (1) 다니엘은 기이한 이상을 본 것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되었으며 결국 인자 곁에 모신 자에게 그 해석을 알려고 질문하였다.
- (2) 여기서 인자 곁에 모신 자는 천사를 가리킨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에스겔과 스가랴에게서도 볼 수 있다(겔 40장; 스 1장).
- (3)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초월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번민하였고 끝내 자신의 번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를 찾기에 이르렀다.
- (4)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유일하게 보냄을 받은 완전한 교사,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고 또 그가 세우신 사역자들로 인하여 깨달아 알게 된다(마 23:8, 10).

18. **㉠** 천사는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네 짐승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7절)

- ㉠** (1) 그 천사는 네 큰 짐승이 네 왕이라고 하였다.

- (2) 본장에서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과 같이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하는 네 짐승은 네 명의 왕으로만 한정시키면 안 된다. 천사가 단지 네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네 개의 제국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 **㉠** 세상의 제국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누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가? (18절)

- ㉠** (1) 네 짐승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 (2) 한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란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집의 구성원들이다(갈 6:16).
- (3) 즉 이 말씀은 성취된 메시아 시대의 주역이 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사 4:3; 6:13; 62:12; 롬 9:6).
- (4)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주셨는데(창 1:28)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하므로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박탈당하였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의 후사를 세우시고(롬 4:13; 히 1:2) 그를 통하여 박탈된 권리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다.

20. **㉠** 네 짐승 중 다니엘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짐승은 어느 것이었는가? (19, 20절)

- ㉠** (1) 그는 특히 네번째 짐승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리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을 정도로 포악했다.
- (2) 또 그 머리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과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다른 짐승들보다 강해 보였다.
- (3) 네째 짐승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 8, 9를 참조하라.

21. **㉠** 네번째 짐승에게 있는 뿔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22절)

- ㉠** (1) 그 짐승과 성도들과는 끝없이 대적하는 원수지간이다.
- (2) 그런데 성도들은 그 뿔을, 즉 적그리스도와 싸워 승리할 수 없고 약하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다.
- (3)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성도들을 괴롭힌다(참조, 욕 1:6-12). 그래서 그들은 잠깐이나마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된다.
- (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신원(伸冤) 하사 성도들이 그 나라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 (5) 이런 일은 네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이 멸망한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2:34, 35; 7:24-27).
- (6) 한편 그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요 18:36; 계 11:15).
- (7)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예속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다(참조, 고전 4:8; 딤후 2:12; 계 20:4; 22:5).

22. **㉠** 인자 옆에서 모신 천사는 네째 짐승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설명하였는가? (23-25절)

- ㉠** (1) 천사는 네째 짐승이 네째 나라로서 모든 나라와 달리 천하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짐승이 달고 있는 열 뿔은 열 왕으로서 그 후에 다른 왕이 일어나 먼저 있던 세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 여기서 열 뿔은 2:41이하에서 말하는 철과 진흙이 섞인 우상의 발과 발가락과 부합된다. 그래서 그 뿔은 네번째 짐승으로부터 나올 나라들을 의미한다.
- (3) 그렇지만 그 후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 열 나라 중에 셋을 멸망시키는데 그 여세를 몰아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 (4) 또한 그 나라는 성도들을 괴롭히게 된다. 이것은 성도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말세의 모든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기간은 한정(限定)되어 있다.

23. **㉠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도록 허락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25절)**

- ㉠** (1) 성도는 열 나라 후에 일어난 한 나라에 의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 (2) 이 기간은 세상이 존재하는 기간을 가리키는데 계 12:6에 의하면 1260일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의미하는 3년 반의 기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3) 그런데 계시록에 의하면 이 말은 오랜 기간의 복음 시대를 가리키거나(계 11:2, 3; 12:6, 14; 13:5; 20:2-5) 짧은 기간으로 3샬(계 11:7, 9; 13:7; 20:7-10)을, 또는 하나님의 심판 날(계 11:11, 12, 16-18; 14:14-16; 20:11-15)을 말하기도 한다.
- (4) 이것과 관련하여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였다고 언급하므로(요일 4:3) 본절에서 말하는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환난의 기간을 말한다.
- (5) 이 기간에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적그리스도)이 복음을 전하는 중인들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일 것이다(계 11:7-13).

24. **㉠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언제 끝나게 되는가? (26절)**

- ㉠** (1)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내 멸망하므로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끝날 것이다.
- (2) 앞에서 언급했듯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뿐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 (3)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셔서 이 땅과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모든 일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시킨다.
- (4)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단의 세력들은 영원한 심판, 즉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계 20:11-15).
- (5)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하시고(참조, 계 20:6) 과거에 핍박당했던 괴로움을 모두 잊게 해주신다.

25. **㉠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되므로 그들이 다스리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27절)**

- ㉠** (1)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聖民)에게 붙인 바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어 모든 권세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게 될 것이다.
- (2)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천하의 모든 나라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 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다.
- (3) 짐승이 멸망한 후 그들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곧 세상 역사의 끝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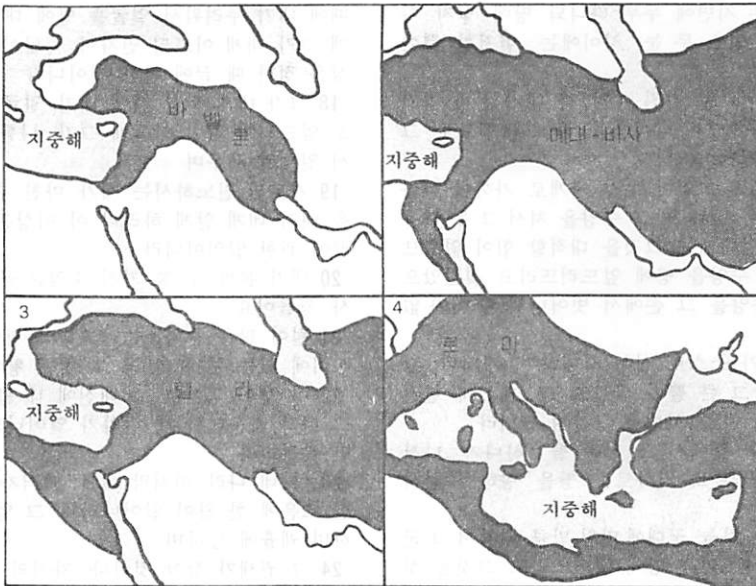
- (4)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있으나 결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18:36)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권도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왜냐하면 그 통치권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롬1:7; 고전1:2; 빌1:1; 골 3:4; 살전 3:13).

26. **Q** 이와 같은 이상을 본 다니엘의 인상은 어떠했는가? (28절)

- A** (1) 네 짐승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 그치자 다니엘은 마음이 심란하고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러나 꿈에 본 이상은 마음에 감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인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3)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발설(發說)하지 않고 마음에 두었듯이(참조, 눅2:51) 우리의 마음도 신적 일을 두고 간직하는 창고의 역할을 해야 한다.  
 (4) 예수께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시라는 사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는데(참조, 눅9:20, 21) 이는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5)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신앙 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아무 때나 아무 말을 하면 안 된다. 혀는 곧 불이므로(약3:6) 말을 잘못하면 분쟁의 씨가 되기 때문이다.

지도자료

다니엘이 이상(異像) 중에 본 네 나라



1. 바벨론 : 사자 (4절) 2. 메대-바사 : 금 (5절)  
 3. 헬라 : 표범 (6절) 4. 로마 : 열 불이 있는 짐승 (7절)



## 제 8 장 다니엘이 두번째 이상을 보다

단락구분 1-2 이상을 본 때와 장소 / 3-4 두 뿔 가진 수양의 이상 / 5-8 이상 중에 수염소가 등장하다 / 9-12 작은 뿔의 공적들 / 13-14 다니엘의 고뇌 / 15-19 하나님의 사람 가브리엘이 나오다 / 20-25 이상의 해석 / 26-27 이상을 간수(看守)하라

1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 사살 왕 삼 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2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래 강변에서니라

3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8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불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 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는 때까지 이룰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 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15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 내가 들은즉 올래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17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20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케홀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꺾을 베풀어 제 손으로 케홀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26 이미 말한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 임이니라

27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 1. ㉠ 본장의 특징과 내용을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다니엘이 첫번째 이상을 본 후 2년 뒤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는 새로운 이상에 접하게 되는데 먼저 두 뿔 가진 수양이 나타나고 그 뒤에 수염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수염소가 수양을 짓밟고 강성해지는 모습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다.

(3) 그 이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람 가브리엘이 자세히 설명하였고 계속해서 그 이상을 간직하도록 다니엘에게 권고하면서 본장은 끝을 맺는다.

(4) 여기서 다니엘이 본 이상은 미래에 있을 대환난에 관한 것이 분명한데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17절) 혹은 '진노하시는 때' (19절),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 (23절) 이라고 불리어진다.

### 2. ㉠ 다니엘에게 다시 이상이 나타난 때는 언제인가? (1절)

㉠ (1) 그에게 처음 이상이 나타난 때는 벨사살 원년(7:1) 이었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벨사살 3년에 두번째 이상이 나타났다.

(2) 벨사살 원년이 B. C. 550년이므로 본장에 언급된 두번째 이상은 B. C. 548년경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 수 있다.

### 3. ㉠ 다니엘이 두번째 이상을 보았던 장소는 어디인가? (2절)

㉠ (1) 벨사살 왕 3년(B. C. 548년경)에 다니엘은 엘람 도(道)의 수산 성(城)에 있었는데 이를 보기는 올래 강변에서였다.

(2) 엘람은 디그리스 계곡의 동쪽과 동북부의 자그로스 산맥에 있는 이란 고원의 남부에 위치한 페르시아의 영토였다.

(3) 이곳 엘람은 B. C. 14세기에 문화의 최고봉에 달했으나 앗수르가 번영하면서 중대한 위협에 부딪혔다. 앗수르의 여러 왕들이 엘람을 침공하였고 특히 앗술바니팔은 수산을 점령하고 엘람인을 거의 전멸시켰다.

(4) 그러나 후에 엘람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부분이 되었고 수산은 그 지역의 수도가 되었다.

(5) 수산은 수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서(느1:1; 에1:2)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조 때가 황금 시대였다.

(6)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에 의하면 수산에는 왕실의 보고가 있었고 성경에서도 '도성 수사'(RSV, Susa the capital)라고 부르고 있다.

(7) 올래 강은 수사 근처의 인공 운하로서 수사 남서쪽의 케르카(Kerkha) 강과 동쪽의 압디즈풀(Abdizful)을 연결하면서 수사의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지나갔다.

(8) 다니엘이 두번째 이상을 보았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

### 4. ㉠ 다니엘이 강가에서 본 이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3절)

㉠ (1) 그는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서 있는 이상을 보았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특별히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다.

(2) 이런 사실은 다니엘이 먼저 두 뿔을 가진 수양을 보았는데 뿔 하나가 나중에 더 크게 자랐다는 것을 나타낸다.

- (3) 여기서 두 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데 두 제국 중 바사가 더 호전적이었으므로 바사를 상징하는 뿔이 더 길게 자라게 되었다고 묘사되었다.
- (4) 즉 바사 제국이 메대 왕국보다 더 나중에 일어났으나 메대 왕국을 흡수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5. **㉠** 이상 중에 나타난 수양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4절)

- ㉠** (1) 그 수양은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지만 그 수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였다.
- (2) 이 말씀은 바사 제국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동쪽으로는 달리지 않았다. 즉 동쪽으로 달리는 것은 곧 바사 제국의 수도를 공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3) 수산을 중심으로 세 지역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바사의 권세에 복종하게 된다.
- (4) 서쪽은 바벨론, 수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르메니아와 스키티아 백성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돌진하여 정복하고 바사 제국에 합병하였다.
- (5) 북을 받은 것은 고레스와 다리오가 이끄는 군대가 스키티아(Scythia)를 정벌한 것이며 남으로 받은 것은 캄비세스(Cambyses)에 의해 애굽과 리디아가 정복된 것을 의미한다.
- (6) 이미 바사가 수양으로 비유되었기 때문에 바사 제국이 정복할 나라의 왕과 백성들도 '짐승'으로 불리어진 것 같다.
- (7) 이처럼 왕들이나 방백들이 짐승으로 비유 설명된 부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참조, 사14:9; 렘50:8; 겔34:17; 39:18; 숙10:3). 이들은 주로 하나님과 무관하고 곧 멸망 받을 자들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6. **㉠** 수양이 강대해질 때 어떤 짐승이 나타났는가? (5절)

- ㉠** (1) 그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顯著)한 뿔이 있었다.
- (2) 이러한 이상은 메대·바사 제국이 점점 커가는 도중에 바사의 서쪽에 위치한 마게도니아가 성장하기 시작하여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비유로 보여 준 것이다.
- (3) 이 염소는 두 눈 사이에 하나의 뿔이 있는데 이것은 '현저한 뿔'이다. 그 뿔은 마게도니아의 첫번째 왕이자 세상 나라의 창설자로 상징되는 알렉산더 대제(Alexander the Great)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7. **㉠** 서편에서 나타난 수염소는 이미 있던 수양을 어떻게 하였는가? (6, 7절)

- ㉠** (1) 수염소는 두 뿔 가진 수양에게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더니 수양을 쳐서 두 뿔을 꺾고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다.
- (2) 그런데 수양은 수염소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고 수양을 수염소의 손에서 능히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다.
- (3) 이와 같은 이상은 곧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게도니아의 군대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 준 것이다. 더우기 그 군대의 진군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수염소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 (4) 역사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는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Darius III, B. C. 335-331)를 격파함으로써 수염소의 이상이 실현되었다. 결국 메대·바사 제국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 (5)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세계의 역사는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즉 인간의 생각으로 결코 멸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 (6) 세계 역사 가운데 사라진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각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만한 자를 철저히 다스리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렘 13:15; 약 4:6; 벰전 5:5).

8. **㉠** 수양을 짓밟은 수염소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는가? (8절)

- ㉠** (1)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強盛)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 (2) 앞에서(㉠7의 (5), (6)) 언급했듯이 세상 왕들은 자신들의 교만으로 몰락을 재촉하였다.
- (3) 한편 수염소가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가 그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작스런 열병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다(B. C. 323)는 사실로 성취되었다.
- (4) 그리고 꺾인 뿔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나왔는데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 마게도니아가 리시마쿠스(Lysimachus, 드레이스와 비디니아)와 카산더(Cassander, 마게도니아와 헬라)와 셀류쿠스(Seleucus, 수리아와 바벨론과 인도에 이르는 남쪽 나라) 그리고 톨레미(Ptolemy, 애굽과 팔레스틴과 아라비아의 페트레아 지역을 차지)에 의하여 4분된 것을 가리킨다.
- (5) 이런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업적이나 권위에 의하여 평가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6) 사실 알렉산더의 활동으로 인하여 헬라 문화가 전파되고 헬라 문명이 확산되므로 온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인류를 풍요롭게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 (7) 그러나 이 문명과 문화로서 인류에게 혜택을 준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자충족적(自充足的)인 문화와 그 전파자는 인간을 이롭게 하기 보다는 인간을 영원한 패망으로 인도하고야 마는 것이다.
- (8)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세상의 모든 문화와 통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定罪) 받게 된다.

9. **㉠** 새로 나타난 현저한 뿔 넷의 활동 상황은 어떠한가? (9절)

- ㉠** (1) 네 뿔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 (2) 여기서 작은 뿔이 나온 한 뿔은 셀류쿠스(Seleucus)가 지배하던 수리아 왕조를 가리키며 거기에서 나온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Antiochus Epiphanes IV, B. C. 175-164)임이 분명하다.
- (3) 그는 안티오쿠스 3세(Antiochus III, B. C. 223-187)의 아들로 그의 형 셀류쿠스 4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 (4) 그런데 안티오쿠스는 그의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종교, 법, 풍습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한 적이 있다.
- (5) 그러나 유대인들의 무리가 이 칙령에 대하여 반발하자 성전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게 하였고(참조, 단 11:31)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에 대한 율법을 사형으로 제재(制裁)하는 법령을 정하였다.
- (6) 따라서 유대인 중에는 많은 순교자가 생겼으며 B. C. 167년에는 예루살렘 근처 모딘이라는 마을에서 반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7) 그렇지만 결국 하늘의 주권에 도전했던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엘리마이스에 있는 나네아 신전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동쪽으로 철수했으며 죽기 전에 정신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末路)를 맞이하였다.

10. **㉠**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10-12절)

- Ⓐ (1) 그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멧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하늘 군대의 주재(主宰)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다.
- (2) 또한 하늘 군대까지 몰아내고 날마다 드리는 제단 위에 부정한 것을 올려 놓아 참된 도를 땅에 떨어뜨리며 제멋대로 굴었으나 그 하는 일은 모든 것이 거침없이 이루어졌다(공동 번역).
- (3) 여기서 말하는 하늘 군대는 옛 언약(구약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출19:6). 그들은 여호와와 군대로 불리어졌다(출7:4; 12:41).
- (4) 그런데 작은 뿔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좌(權座)까지 넘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다.
- (5) 또한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태도를 바꾸도록 요구하였다(외경 마카비 I 서 1:44-50).
- (6)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파(破)하기 위하여 건전한 교의(教義)를 폐지하였고 진리를 무시하는 정치를 펴나갔던 것이다.
- (7)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번제단에 우상을 세우므로 최대의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말았다.
- (8)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불의를 행하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자의 계획이 행통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인의 행통이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다(참조, 욥 12:6; 시 73:12; 렘 12:1).

11. Ⓒ 작은 뿔의 행패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3, 14절)

- Ⓐ (1) 다니엘은 거룩한 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 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는 것이었다.
- (2) 그런데 작은 뿔의 행패는 이천 삼백 주야(晝夜)까지 계속될 것인데 그 행패가 있을 후에야 비로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3) 한편 본절에 언급된 ‘거룩한 자’ (히, 카도쉬)는 천사를 의미하는데(4:10; 신 33:2; 욥 5:1; 15:5; 시 89:6, 8; 속 14:1) 이것은 스가라가 본 밤의 환상과 유사한 형상이다(속 1:9, 13; 2:2, 5, 7; 3:1; 4:1).
- (4) 이 천사는 신성 모독과 파괴를 행하는 작은 뿔 에피파네스의 행위가 언제까지 이를까라는 질문으로 다니엘의 흥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의 악행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 (5) 마침내 그 기간은 이천 삼백 주야로 한정되었다.

12. Ⓒ 이천 삼백 주야가 의미하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가? (14절)

- Ⓐ (1) 본절은 환난이 끝나는 기간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이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2) 이천 삼백 주야, 즉 2300개의 낮과 밤을 합한 1150일 동안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외경 마카비 I 서 1:54, 59에 의하면 B. C. 167년 12월에 제우스 신상이 성전 번제단에 설치되었고, 마카비 II 서 4:52, 59에 따르면 3년 후인 B. C. 164년 12월에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칼빈은 이천 삼백 주야를 그 수자 대로 2300일로 계산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폭정을 행하던 6년 4개월의 기간이라고 한다.
- (4) 카일과 델리취(Keil & Deitzsch)는 칼빈의 견해를 인정하는데 이는 히브리적 사고(思

考)에서 주야가 개별적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을 구성하는 하루를 근거로 하여 그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5) 그 예로 노아의 홍수 기간 중에 비가 내린 날을 40주야(창7:4, 12; 출24:18; 왕상 19:8)로 표현했고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 있던 주야 3일(은2:1; 마12:40)도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었다.
- (6) 따라서 본절에서 2300주야를 언급한 것은 칼빈의 견해와 같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6년 4개월(실제로 6년 3개월 15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 다니엘이 이상의 뜻을 알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는가? (15, 16절)

- ㉠ (1) 그때에 다니엘 앞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섰고 올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 (2) 여기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자는 하나님의 수종자 가브리엘이었는데 실제로 그는 사람이 아닌 초자연적 존재였다.
- (3) 구약 성경에서 본절과 9:21의 두 곳에만 가브리엘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이다.
- (4)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해 준 자도 하나님의 수종자(천사) 가브리엘이었다(참조, 눅 1:19, 26).
- (5) 요한 계시록과 다른 문서에서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장 미가엘(10:13, 21; 12:1)과 우리엘 그리고 라파엘과 더불어 쓰여 있다.

14. ㉠ 이상을 알려 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아왔을 때 다니엘의 태도는 어떠한가? (17절)

- ㉠ (1) 그때에 다니엘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 (2) 이는 죄인이며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 다니엘이 순수한 하늘의 존재로서 자신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취한 행동이었다.
- (3)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나약성을 발견하지 않는 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항상 경건한 마음이 있었다.

15. ㉠ 다니엘의 이상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17절)

- ㉠ (1) 다니엘의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었다.
- (2) 여기서 언급하는 ‘정한 때 끝’이란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압제가 끝나는 시기를 가리킨다.
- (3)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끝난 후를 가리킨다.
- (4)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의 고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심판, 메시아의 등장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를 가리킨다.

16. ㉠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할 때 다니엘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는가? (18, 19절)

- ㉠ (1) 그때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었는데 가브리엘이 그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웠다.
- (2) 그리고 다시 한번 이상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즉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재인식(再認識)시켜 주었다.
- (3) 다니엘은 가브리엘의 위엄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것이다(참조, 창17:3; 출3:6; 사13:20). 이것은 마치 요한이 밧모 섬에서(계 1:17),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마17:6) 신적 권위 앞에 엎드려진 것과도 같았다.
- (4) 한편 다니엘이 인식한 이상은 과거에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사 10:5)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말에 이르

기까지 번영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5) 그러나 외적으로는 악인이 번성해도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합2:3)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가 오히려 희망의 시기가 된다.

17. ㉠ 다니엘이 본 이상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었는가? (20, 21절)

- ㉠ (1) 그가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었다.
- (2) 이제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본 이상에 관하여 해석을 한다.
- (3) 메대와 바사는 하나로 연합하여 수양으로 묘사되었으며 히브리어 <아완>으로 표기된 헬라는 수염소로 묘사되었다.
- (4) 그리고 수염소에게서 나온 큰 뿔 곧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 C. 356-323)을 가리킨다. 그는 부친 필립의 뒤를 이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어 그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으나 갑작스런 열병으로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18. ㉠ 계속 이어지는 이상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22절)

- ㉠ (1)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이 계속되면서 수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는데 이것은 마케도니아가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을 가리킨다.
- (2) 그렇지만 네 나라는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마케도니아 제국보다 강하지 못하고 그 권세도 알렉산더 대왕 때보다 못할 것이다.
- (3) 분리된 네 나라에 관하여는 ㉠8의 (4)를 참조하라.

19. ㉠ 분리된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어떤 자가 일어날 것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23, 24절)

- ㉠ (1)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 (2) 그 왕은 얼굴이 엄장(嚴壯)하며 궤환에 능하며 그 권세가 매우 강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 (3) 이 귀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내용이다. 그의 얼굴은 장엄(히, 아즈파님)한데 이것은 굳은 얼굴(신28:50; 사19:4)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참조, 잠7:13)을 가리킨다.
- (4) 또한 그는 매우 교활하였고 불경건하며 사악했을 뿐 아니라 비굴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같은 세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권세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그를 사용하셨다.

20. ㉠ 새로이 일어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24절)

- ㉠ (1) 그는 비상(非常)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행동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일을 하게 된다.
- (2) 이 부분에 대하여 공동 번역은 '비상한 제락을 짜내어 무슨 일이든지 해내고야 말 것이다. 강대국들을 부수고 거룩한 백성까지 부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 (3)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매우 꺾박하였다.
- (4)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유대인들을 징벌하도록 하셨으나 그의 행위는 적그리스도의 행위였다.

21.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25절)

- ㉠ (1) 그는 피를 내어 제 손으로 궤환을 이루고 마음에 큰 쾌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된다.
- (2) 그러나 그의 최후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

아도 부서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 (3) 안티오쿠스가 매우 교만해져서 모든 일을 자신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또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대적하게 되었다.
- (4)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5) 안티오쿠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였으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능력과 재주에 의한 것인 줄 착각했다.
- (6) 그의 최후는 전쟁이나 암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고나 병에 의하여 맞이할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말씀대로 B. C. 160년경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다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 (7)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나 그것은 잠깐 동안일 뿐임을 알기에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22. ㉠ 이상에 대해 설명을 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가? (26절)

- ㉠ (1)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므로 그 이상을 간수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여러 날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이다.
- (2) 가브리엘은 이 환상이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確言)하고 있다.
- (3) 하나님의 계획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2300주야는 경과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이상을 숨겨 두라고 지시하였다.
- (4) 이처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앞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이상으로 보여 준 까닭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 중에 보았던 사건이 하나 둘 성취될 때 성도들이 그 성취된 모습 속에서 더 굳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조, 요 13:19; 16:4).

23. ㉠ 하늘의 이상을 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27절)

- ㉠ (1)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통하여 본 이상의 내용으로 인해 기절하고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 신하로서 해야 할 왕의 수종드는 일을 계속하였다.
- (2) 그가 접했던 이상을 그저 간단하게 꿈으로 넘겨 버릴 수도 있었으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을 때 너무나 놀라서 기절하여 앓게 된 것이다.
- (3) 그러나 그는 그 꿈에 너무 집착해서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삶의 한 부분을 감당해 가기 위해 새로운 용기로써 현실에 뛰어들었다.
- (4)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과 체험과 신유를 좇아다니는 비정상적인 신앙인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본장의 요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  
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26절).



## 제 9 장 칠십 이레의 예언

단락구분 1-2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은 다니엘 / 3-7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직접 회개하다 / 15-19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 20-27 70이레에 관한 예언

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 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 내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9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온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14 이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며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취시옵소서

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20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할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

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단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쁨 부음을 받으리라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진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쁨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쁨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되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 1. ㉠ 본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배울 수 있다.  
 (2)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참조, 렘25:11, 12; 29:10)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3)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여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민족의 죄를 염청났기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4)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조(思潮)에 휩쓸려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형태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5) 즉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여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게 되었다.  
 (6) 이런 때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던 초대 교회의 모습(참조, 행 2:41, 42, 44-47)을 회복해야 한다.

### 2. ㉡ 아하수에로는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메대 사람 다리오의 부친으로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없다.  
 (2) 그런데 만약 메대 사람 다리오를 고레스 당시 바벨론의 한 성(省)을 통치하던 태수(太守)인 구바루(Gubaru 또는 고브리야스-Gobryas)와 동일인이라고 본다면 아하수에로는 키악사레스(Cyaxares)일 수도 있다.

### 3. ㉢ 본장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절)

- ㉢ (1) 본장 초두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元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이때는 B. C. 538년으로 B. 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67년이 되는 해이다.

### 4. ㉣ B. C. 538년에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년수를 깨달았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말씀이었다.  
 (2)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시고 70년이 지난 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렘 25:11, 12; 29:10)  
 (3)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을 두 가지 견해로 해석하게 된다. 첫째는 유다 백성이 처음 포로가 되던 해인 B. C. 605년부터 바사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귀환시킨 B. C. 538년까지이며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B. C. 586년부터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한 B. C. 516년까지이다.

(4) 그러나 우리는 첫번째의 견해를 따른다.

5. **㉠ 다니엘은 어떤 방법으로 70년의 기간에 관하여 깨닫게 되었는가? (2절)**

- ㉠** (1) 다니엘은 서책(書冊)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2) 서책(히, 밤파림)이란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의 글을 가리키는데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제시를 이상이나 환상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4)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연구하던 중에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  
 (5) 그래서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알았고 포로된 기간을 산출한 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과 기쁨을 안겨 준다.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히 4:12)을 늘 가까이 두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  
 (8)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들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시 119:105)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수 1:8).

6.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무엇을 결심하였는가? (3절)**

- ㉠** (1)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2)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태도는 평소의 기도 습관과 매우 다른 것이었다. 그는 이처럼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구원의 때가 가까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유 있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었다.  
 (3) 여기서 우리는 기도로서 믿음의 인내를 키워나갈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의지하고 더 한층 힘써 매어달려야 한다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4) 이와 함께 우리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첫째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눅 18:1; 롬 12:12; 살전 5:17)와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 혹은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드리는 기도이다.

7. **㉠ 다니엘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인가? (3-19절)**

- ㉠** (1) 다니엘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 첫째는 4-14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와 그 죄에 대한 고백이며 15-19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간구와 폐허가 된 성시(聖市)와 성소(聖所)의 회복을 위한 간구이다.  
 (3) 그중에 죄에 고백은 두 소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 4-10절까지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책을 설명하고, 11-14절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취급하고 있다.  
 (4) 한편 3절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서론 부분을 이루고 있다.

8. **㉠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하였는가? (4절)**

- ㉠** (1)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우선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2) 그는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제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라고 인정하였다.

- (3) 다니엘의 이런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분께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4)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할 때 어느 한 편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다. 즉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나, 사랑만 가지신 하나님 등 어느 편으로 기울지 않고 사랑과 공의가 잘 조화된 하나님으로 인식했다.
- (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영위하기가 무척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실체(實體)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고 있다면 아주 쉽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 (6) 즉 이 말은 공의의 하나님께 죄를 자복함으로 그 이면에 갖고 계신 사랑으로 용서를 체험하라는 것이다. 이런 체험이 있다면 언제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9. **Q** 다니엘이 고백한 유다 백성의 두 가지 잘못은 무엇인가? (5, 6절)

- A** (1) 첫째는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法道)와 규례(規例)를 떠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열왕과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 (2) 먼저 고백한 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한 죄였다. 그 율법은 시내 산에서 받은 계명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참조, 출 20장). 이 율법은 받은 자 당대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도 변함이 없는 계약이었다(참조, 신 5:2, 3).
- (3)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서약이다.
- (4) 즉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항상 성실하시며 은혜로우셨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며 아울러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서 지도하시는 길로만 행하겠다는 자발적인 반응인 것이다.
- (5) 그런데 이 계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여 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 많은 선지자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것이다(참조, 렘 18:1-19:15; 호 4:1-6:11).
- (6) 왕국이 분열된 후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선 지 자	연대(B.C.)	참 고 귀 절	유 다 의 왕	이스라엘의 왕
요 엘	837-800	왕하 11장 - 15:17	요아스	예 후
요 나	825-782	왕하 13, 14장	요아스, 아마샤	여로보암 II
아 모 스	810-785	왕하 14:23; 15:7	아마샤	"
호 세 아	782-725	왕하 15-18장	아마샤, 웃시아	"
이 사 야	758-698	왕하 15-20장 대하 26-32장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스가라-호세아
미 가	740-695	왕하 15:8-20 대하 27-32장	요 담 아하스	스가라-호세아 "
		사 7, 8장 렘 26:17-19	히스기야	
나 흠	640-630	사 10장 슘 2:13-15	아 폰 요시아	
스 바 나	640-610	왕하 22장-23:34 대하 34장-36:4	요시아	
예 레 미 야	627-586	왕하 22-25장	요시아-	

하 박 국	609-598	대하 34장-36:21 왕하 23:1-24:20 대하 36:1-10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다 니 엘	606-534	왕하 23:35-25:30 대하 36:1-10	여호야김 이후
에 스 질	592-572	왕하 24:17;25장 대하 36:11-21	시드기야 이후
오 바 다	586-583	왕하 25장 대하 36:11-21	
학 개	520-518	에스라 5, 6장	
스 가 라	520	에스라 5, 6장	
말 라 기	433-425	느헤미야 13장	

10. ㉠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당하는 수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7절)

- ㉠ (1)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유다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 (2) 그 이유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그 결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던 자들이 각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 (3) 다니엘은 자신과 또 동족이 처한 상황과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4)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역적인 행동을 하였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보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 (5)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다 백성과 같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만 인간적인 능력을 과신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많다.
- (6) 결국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무화과를 전지(剪枝)하실 것이며 (참조, 렘 24:1-3; 요 15:6) 당신의 사랑 이면에 속한 공의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레 26:14-45; 신 28:15-18; 암 3:2).

11. ㉠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8절)

- ㉠ (1) 다니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수욕이 자신의 열조와 열왕과 방백에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 (2)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의 참된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
- (3) 사람들은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가능한 자신의 치부(恥部)를 내놓지 않았고 또한 그런 면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습성이 있다.
- (4)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없다. 회개하는 자는 우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일을 숨김없이 고백해야 한다 (참조, 시 51편).
- (5)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고 (시 32:1, 5)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빌 2:13; 4:13).

12. ㉠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9, 10절)

- ㉠ (1) 그는 하나님께 공훈과 사유하심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기도하였다.
- (2) 비록 패역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그 형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훈하심과 용서의 사랑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다.
- (3)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참조, 출 34:6) 이기에 다니엘은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였다. 특히 이 기도는 자신보다 전민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간구였다.

- (4)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자신의 공력으로 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이다(엡 2:8, 9).
- (5)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이다. 이 근거가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고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구원보다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13. ㉠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어떤 일을 당하였는가? (11, 12절)**

- ㉠ (1) 이스라엘이 범죄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기록된 저주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 (2) 이 저주는 하나님의 서약에 수반된 것으로 폭풍우, 우박 등이 내리는 것을 말한다(출 9:33). 그러나 여기서 다니엘이 언급한 저주와 재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므로 내리시는 멸망의 불비(火雨)를 가리킨다(참조, 창 19:24; 레 26:14; 신 28:15; 29:18; 렘 7:20; 42:18; 44:6; 나 1:6).
- (3)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악의 근원을 찾아 보았고 그 결과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재난에 대하여 불평할 근거가 전혀 없음을 발견하였다.
- (4)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원인 분석의 과정이 없이 엄청난 결과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 (5)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시련을 주시거나(출 14:10-14), 또는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데(참조, 민 21:4-9; 수 7장)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모두 깨닫지 못한다.
- (6) 이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껌떡이의 신앙을 벗어나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참조, 딤후 4:2-5; 히 5:12-14).

**14. ㉠ 유다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3절)**

- ㉠ (1)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유다 백성에게 임하였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 여호와와의 은총을 간구하지도 않았다.
- (2) 이것은 유다 백성이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누우치고 하나님의 노(怒)를 풀어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3) 이 귀절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하나님께서는 악의적인 태도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 않는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자극을 주시는 것이다(참조, 민 26:9, 10; 잠 15:10; 렘 1:16; 히 12:11-13).
- (5)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극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을 만난 자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잠 3:11, 12)는 원리를 잊지만 않는다면 넉넉히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5. ㉠ 유다의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14절)**

- ㉠ (1)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의로우시지만 그에 대한 유다의 불순종은 그분께서 준비하신 재앙을 내리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끝없이 인간의 범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기 보다는 멸망의 길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참조, 뱀후 3:8, 9).

16. **㉠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였는가? (15절)**

- ㉠** (1) 그는 하나님을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다.
- (2)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단순히 순간적인 은혜를 제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조건에 의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으므로 흠어진 자들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소망 가운데로 끌어 올리실 때 기억하게 하신 말씀이다 (참조, 례 11:45).
- (4)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도를 한다. 이와 같은 기도를 다니엘 뿐 아니라 예레미야와 이사야도 간구한 것이다 (사 63:11-15; 렘 32:20-23).
- (5)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를 한다. 그의 기도는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뜻을 버리지 말라는 간구이다.
- (6)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방향이 결정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17. **㉠ 다니엘은 먼저 민족의 잘못을 고백한 뒤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16절)**

- ㉠** (1)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 (2) 그 내용은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죄의 결과 많은 수욕을 겪었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 (3) 이스라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이므로 유다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수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큰 손실이었다.
- (4)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수치를 들린다면 즉시 회개하여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18. **㉠ 유다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므로 다니엘은 어떻게 하실 것을 기도하였는가? (17, 18절)**

- ㉠** (1)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황폐한 성소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굽어 보아 달라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간구이다.
- (2) 다니엘은 자신들이 감히 그런 기도를 드릴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 (3) 이처럼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있다 (참조, 신 7:7-11; 9:4).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19. **㉠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인가? (19절)**

- ㉠** (1) 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였다.
- (2)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 (3) 죄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사 59:2; 롬 3:23) 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20. **㉠ 민족과 국가를 위한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왔는가? (20, 21절)**

- Ⓐ (1) 다니엘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성산(聖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즉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기도의 응답을 주었다.  
 (2) 가브리엘에 관하여는 8장의 ㉠ 13을 참조하라.  
 (3) 여기서 '저녁 제사 드릴 때'는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민28:4)인 오후 3시경을 가리키는데(출29:39) 이때 드리는 제사는 매일 2차씩 행해지던 상번제(常燔祭)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런 관례적인 저녁 기도 시간을 통해(말1:13;2:13;3:4) 다니엘이 비록 포로의 몸이었으나 날마다 같은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10).

21. ㉠ 다니엘은 가브리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22, 23절)

- Ⓐ (1) 그는 자신이 알고자 하는 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응답을 받았다.  
 (2) 사실 하나님께서는 8:16에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깨닫게 하라'고 가브리엘을 향하여 명령을 하신 적이 있다.  
 (3)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기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그 기도자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4)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넉넉한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시50:15).

22. ㉠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23절)

- Ⓐ (1)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주어졌다.  
 (2) 그는 기도를 시작하자 곧 이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한 응답을 얻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였다. 이 명령으로 인해 다니엘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다(참조, 욥4:12;사9:7).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며, 그 기도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면(참조, 약4:2,3) 적절히 응답하신다.  
 (4)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이에게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지만(출9:33;왕하13:4) 지체되는 응답도 있고(시22:1, 2;눅18:7), 인간이 구하지 않은 것도 적절히 주시는 반면(출33:18-20;왕상3:7-14;대하1:7-12) 인간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 거절되기도 한다(신1:45). 이는 당신의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이다(참조, 롬8:28).  
 (5)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에 관하여 지나치게 조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적절한 때 적절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이다(시91:15;사41:17;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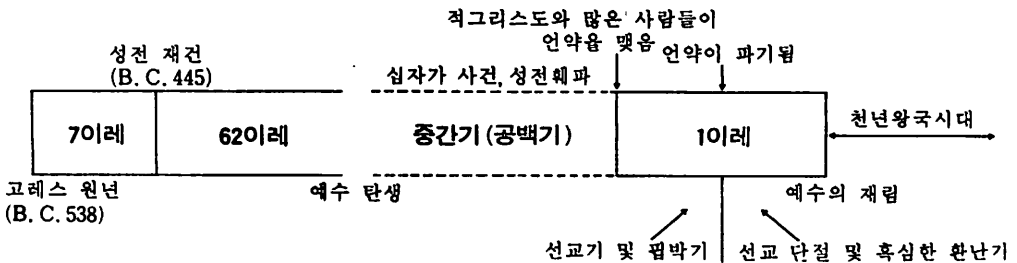
23. ㉠ '70이레'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24-27절)

- Ⓐ (1) 먼저 '이레'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브임>으로 일곱들(sevens)을 가리키며 본서에서 이것은 주(week)를 의미하는 말로 굳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70이레'는 '70주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묵시 문학적 표현들에서 흔히 발견하듯이 하루를 1년으로 세어 490년이라는 상징적 기간 안에 존재할 세계 역사 전개の本本틀을 보여 주는 예언 귀절로 이해할 수 있다.  
 (2) 한편 '70이레'라는 묵시 문학적 모형이 형성된 동기는, 다니엘이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했던 책들을 묵상하던 중 예루살렘이 70년간 황폐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접한 사실에 있다(참조, 대하36:21;렘25:11;29:10).  
 (3)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에 직면한 다니엘은(참조, ㉠1-5) 단지 그 예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언에 의해 뒤늦게야 깨닫



게 되었다. 즉 예레미야의 70년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에서 해방된다는 역사적 의미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성취된다는 영적 의미 등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 (4) 한편 본문에 언급된 대로 '70이레'라는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7이레', '62이레', '1이레' 등으로 3등분 할 수 있으며(25-27절) 그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① '7이레' :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제 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인해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의 중흥기로 볼 수 있다. 이 시대는 고레스 원년(B. C. 538)부터 예루살렘 성벽과 제 2성전이 수축된 때까지(B. C. 445)를 가리킨다. 여기서 특별히 '곤란한 동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증진할 때 경험하게 될 이방인들의 방해와 핍박의 기간을 의미한다(참조, 느4, 6 장).
  - ② '62이레' : 이 시기에(B. C. 445-4) 비록 예루살렘 성전(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예와 생명이었다)이 재건되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퇴락해 가고 있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영적인 중흥기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62이레 직후에 그 중흥기를 몰고 온 자가 바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온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 ③ 중간기(공백기) : 이것은 26절을 근거한 기간으로서 예수가 살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등 세상이 종말로 치닫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정확한 년수와 그때의 종결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알 수 없다.
  - ④ '1이레' :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활동기라 할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활동 초기에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것이며(그 언약의 내용과 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레의 절반', 즉 정확히 반 이레(3년 반 뒤로 봄-이것도 상징적임) 뒤에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예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온 세계의 영계 및 물질계를 더럽힐 것이다(참조, 마24:15;살후2:4). 이러한 활동은 제 11장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 '7년 대환난'의 전(全)기간과 연관지어 생각해야만 한다.
- (5) 이상과 같은 사실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24. ㉠ 마지막 '한 이레'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묘사되었는가? (27절)

- ㉠ (A) (1) 이때 적그리스도(그)는 유대인들과 모종의 언약을 맺고 암약(暗躍)하다가 한 이레의 절반되는 시점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놓고 활동하게 된다.
- (2) 이때에 적그리스도는 성전 제사를 폐하고 세상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내세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인격들을 굴복시킬 것이다(참조, 12:11;마24:15;살후2:4).
- (3) 그러나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악의 전체적인 승리라 할 수 없고 도리어 자신의 최후를 감지한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몸부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런 사단의 최후적

활동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우게 될 왕국이 영원할 것을 보여 준다.

- (4) 물론 이 시기 마지막(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참패하여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된다(7:8, 24-26).
- (5) 이와 같이 악의 세력이 몰락하게 되면서 동시적으로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성취될 것이다(참조, 계13-20장).
- (6) 이처럼 역사의 한 시점에서 세상을 관망하면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역사를 이해한다면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심을 알 수 있다.

## 화보자료

천사 가브리엘(Gabriel). 유고슬라비아 클리노버 벽화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다.



‘가브리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이다. 그는 천사장 미가엘(Michael, 10:13, 21)과 더불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주요천사이다(21절; 8:16). 가브리엘의 주요 임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탄생(눅 1:19)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눅 1:26)을 예고한 자도 역시 가브리엘이다.

# 제 10 장 히데겔 강가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

단락구분 1-3 계시에 대한 서언(序言) / 4-9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 10-14 천사가 보냄을 받은 이유 / 15-21 미래에 있어질 일에 대한 미가엘의 설명

1 바사 왕 고레스 삼 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2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4 정월 이십 사 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6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라

9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 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 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15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룰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병병하였더니

16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름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19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

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로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뿐이니라

##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1) 본장은 본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장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적 환상과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장의 내용은 11:1에서 결말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 (2) 다니엘은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기 전에 먼저 엄숙한 단식과 고행을 하게 되는데 그 후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환상이 전개된다.
- (3) 그런데 그 일이 다니엘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는데 특별히 천사장 미가엘은 다니엘을 독려(督勵)하여 미래의 일을 알게 해준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사모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신다. 예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다(참조, 마 5:8).

2. **㉠** 바사 왕 고레스에 대하여 설명하라(1절).

- ㉠** (1) 고레스(Cyrus, B. C. 559-530)는 바사(Persia) 제국의 건국자인 고레스 2세를 말한다.
- (2) 그의 부왕은 엘람의 일부인 안산 지역의 왕 캄비세스 1세(Cambyses I, B.C. 600-559)였고, 그의 모친은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Astyages, B. C. 585-550)의 딸인 만다네(Mandane)였다.
- (3) 고레스는 캄비세스가 죽자 안산 왕의 직위를 계승한 뒤 아스티아게스를 공격하였다.
- (4) 또한 메디아족과 페르시아족을 통일 민족으로 결합시켰으며 리디아(Lydia) 왕국도 정복하였다(B. C. 546).
- (5) 한편 바벨론은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에게 왕위를 넘겨 주었는데 B. C. 539년 10월 12일에 암살당하였다(5:30). 그러므로 바벨론도 바사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 (6) 고레스는 즉위하자 즉시 조서를 내려 유대인을 팔레스티노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토록 격려했다(참조, 대하36:22, 23; 스1:1-4). 또한 느부갓네살이 약탈한 성전의 기물들(왕하24:10-13)도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스1:7-11; 6:5) 두번째 성전 건축을 재정적으로 돕기도 하였다(스6:4).
- (7) 이사야는 고레스에 관하여 예언을 하였는데 성전 재건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중건(重建)도 명령할 것을 예언하였다(사44:28; 45:13).
- (8) 그러나 고레스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 않았다. 이것도 이사야가 언급한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다(사45:4, 5). 그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인정했을 뿐이다(6:3, 28; 스1:2-4).
- (9) 그는 B. C. 530년 3월 26일 '신년 축제' 때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왕위를 물려 주고 다음해 전사하고 말았다.

3. **㉠**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 나타난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바사 왕 고레스 3년이였다.
- (2) 고레스는 캄비세스의 뒤를 이어 B. C. 559년에 왕위에 올랐으니 고레스 3년은 B. C. 556년이 된다.
- (3) 그러나 고레스가 실제로 바벨론 왕으로 인정된 것이 B. C. 538년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볼 때 B. C. 535년이 된다.
- (4) 따라서 본장에 언급된 3년은 후자의 견해를 따라 B. C. 53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 3절)

- ㉠** (1) 그는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 (2) 다니엘이 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내려 귀환한 유대인들이 귀환한 지 2년 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었다(스4:4-6).
- (3) 그 뿐 아니라 율법을 따라 지켜야 할 유월절 절기도 방해를 받았다.
- (4) 그래서 다니엘 자신도 갈대아의 진수 성찬을 멀리하고 고통과 슬픔을 표시하면서 능하신 하나님께 탄원을 하였다.

- (5) 그는 잔치를 멀리하고 기쁨의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창27:25;사22:13;암6:6) 대신 금식하며 슬픔을 나타냈다.
- (6) 이처럼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나타낸다. 에스더와 온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했을 때 죽음의 위기를 넘긴 사실은 좋은 그 증거가 된다(에4:16;7:5-8:2).
- (7) 한편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금식하라고 하셨다(마6:16-18).

5. **㉠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슬퍼하던 때는 언제였는가? (4절)**

- ㉠** (1)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다.
- (2) 왜냐하면 본절에 정월 이십 사 일에 이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 (3) 유월절은 정월 10일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14일에 어린 양을 잡게 되어 있다. 정월은 유대력으로 후에 바벨론식 이름인 니산 월로 바뀌었는데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된다.
- (4) 이런 정황으로 추론해 볼 때 다니엘은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과 즐거움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이와 같은 다니엘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사단을 물리칠 수도 없고 능력을 행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참조, 마17:21).

6. **㉠ 다니엘은 이상 중에 자신이 어디에 서 있음을 알았는가? (4절)**

- ㉠** (1) 그는 헛데젤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음을 인식하였다.
- (2) 일반적으로 이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한다.
- (3) 이방인들은 티그리스 강을 세 가지 명칭으로 불렀는데 그 하나가 헛데젤이고 두번째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티그리스이다. 세째는 비손이나 파시티그리스(Pasitigris)와 파시스(Phasis)라고 하였다(참조, 창2:11-14).
- (4) 한편 칼빈은 다니엘이 이상 중에 큰 강가에서 있었다는 귀절에 대하여 그가 영적 상태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강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황홀 상태에서 강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7. **㉠ 헛데젤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사람은 누구인가? (5, 6절)**

- ㉠** (1) 거기서 다니엘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다.
- (2)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으며 그 팔과 발은 빛난 듯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衆)의 소리와 같았다.
- (3) 그는 바로 여호와의 현현, 즉 로고스(logos)의 나타나심이었다(참조, 요1:1, 14).
- (4) 이는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거닐던 인자의 모습(계1:12-16)과 에스겔이 본 영광의 모습(겔43:1-5)이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인자와 같은 모습임을 알 수 있다.
- (5) 한편 인자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옷인 세마포를 입었으나(참조, 레16:4, 23; 사43:28) 그의 허리에 두른 우바스는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 알 수 없다.

8. **㉠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감지(感知)했는가? (7절)**

- ㉠** (1) 이상은 다니엘 혼자만 보았으나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크게 놀라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 (2) 이것은 다니엘이 이상을 볼 때 혼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있었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시종이나 부하일 것이다.
- (3)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던 때와 유사하다(행9:3-7).

- (4) 그렇지만 다니엘이나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말씀을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 (5)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로 택하신 것은 그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6:10).
- (6) 예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듯이(마5:8) 우리도 다니엘이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삼상3:3-14)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9. **㉠ 이상을 볼 때 다니엘의 몸은 어떻게 되었는가? (8절)**

- ㉠** (1) 다니엘이 홀로 큰 이상을 볼 때에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
- (2) 다니엘은 자신이 본 이상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완전히 자아를 상실하고 말았다.
- (3) 거룩한 인자의 출현은 다니엘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고 자신의 본래 모습, 즉 추하고 더러웠던 모습이 드러나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 (4)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삼상16:7)는 그분과 대적하는 인간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 (5)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더욱더 자신을 정리하고 인간의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 인자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9절)**

- ㉠** (1)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 (2) 이것은 엄청난 광경을 본 다니엘이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11. **㉠ 혼수 상태에 빠진 다니엘은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가? (10절)**

- ㉠** (1)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다니엘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 (2) 본질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 번역은 '누군가 흔들여 깨우기에 손으로 땅을 짚으며 무릎을 꿇고 일어나 앉으니'로 기록하고 있다.
- (3) 두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는 다니엘을 일으켜 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 (4)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할 수 있다.

12. **㉠ 다니엘을 일으킨 자는 어떤 이유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11절)**

- ㉠** (1) 그는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 (2)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소극적인 의미로 그의 경건 생활에 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 (3)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에 그분의 희망에 따라 부름을 받은 것이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당신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셨던 것이다.

13. **㉠ 두려움에 빠진 다니엘은 어떤 말로 위로를 받았는가? (12절)**

- ㉠** (1) 다니엘은 자신을 찾아온 자에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왔느니라'는 말로 위로를 받았다.
- (2) 이 귀절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많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2,3절)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

- (3)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은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는 교훈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다(참조, 약4:2,3).
- (4)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
- (5)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만을 위해 간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 5:14).
- (6) 다음으로 다니엘은 그의 겸비한 태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즉 자신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히 11:6).

14. **㉠** 다니엘의 간절한 호소가 즉시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기 위해 오던 자가 바사국 군(君)에 의하여 21일 동안 막혀 있었기에 즉시 오지 못하였다.
- (2) 그러나 그들은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인하여 그곳을 빠져 나와 이제야 오게 되었다.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일을 맡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다(참조, 계 12:7).
- (3) 여기서 바사국 군(君)이란 인간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사의 수호신을 가리킨다(참조, 신32:8; 시96:4; 사 46:2; 렘 46:25; 49:3).
- (4) 따라서 오던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바사의 수호신인 악령들과 싸우다가 다니엘에게 오는 시각이 지체된 것이다.
- (5) 이것은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그곳을 파괴해야만 한다(참조, 시 2:2).
- (6) 그렇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반드시 파괴되고 만다.

15. **㉠** 다니엘에게 나타난 한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14절)

- ㉠** (1) 그는 다니엘에게 오랜 뒤에 있을 말일(末日)의 사건, 즉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나타났다.
- (2)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보호와 배려 아래 있음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후에 되어질 일은 인내하는 중에 기다리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다.
- (3) 여기서 말일(末日)이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할 미래의 날들을 가리킨다(참조, 2:28; 창 49:1).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이르기까지 깨어서 인내하는 중에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16. **㉠** 당황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5, 16절)

- ㉠** (1) 다니엘은 그를 찾아온 자가 전해 준 말로 인하여 놀라서 병병한 상태가 되었으나 인자 같은 이가 그의 입술을 만지므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2) 다니엘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입과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땅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을 표현한 것이었다.
- (3) 그러나 그가 품었던 두려움은 보냄을 받은 자로 인하여 해결되었고 엎드려진 것은 그

의 손길로 인하여 일으킴을 받을 수 있었다.

- (4)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형상은 인간이 감히 대면할 수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죽게 된다.
- (5)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기초되어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다져진 자는 하나님의 일군으로 다시 설 수 있다.

17. **㉠**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게 된 다니엘은 무슨 말을 하였는가? (16, 17절)

- ㉠** (1) 다니엘은 입이 열리자 이상으로 인하여 근심하므로 힘이 없어졌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힘도 없고 호흡도 남지 아니하여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사6:7과 렘 1:9과 같이 다니엘의 입이 열리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한 큰 두려움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상태를 설명하였다.
- (3)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이 다니엘과 같이 명확하지 못한 데 큰 흠이 있다.
- (4)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고전8:6)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다(시 104:32). 따라서 그 앞에 굴복할 때 다니엘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도 일으켜 당신의 사역자로 세워 주실 것이다.

18. **㉠** 몸에 힘이 빠져 호흡도 남지 아니한 다니엘은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었는가? (18, 19절)

- ㉠** (1)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란 인자(人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다.
- (2) 이와 같은 말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약한 자들에 관하여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다. 육신적으로 약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마8:3, 15; 9:29, 30).
- (3) 그 뿐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강한 힘을 갖도록 해주신다(참조, 수 1:5-9; 대하 32:7; 빌 1:28).
- (4)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으로 좌절감에 빠질 때 우리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9. **㉠** 보냄을 받은 자가 바사 군과 싸우고 돌아간 후 누가 또 오게 된다고 했는가? (20절)

- ㉠** (1) 바사 군(君)과 싸우러 나아간 후 헬라 군(君)이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 (2)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바사 군(君)을 막느라고 21일 동안 지체되었는데 이는 바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으나 심하게 이스라엘을 다루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 그분의 애정 깊은 배려였다.
- (3)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잔인한 행패를 제지하시기 위하여 헬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 (4)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헬라를 통하여 바사를 막아 당신 백성의 안전을 꾀하신 것처럼 끝내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했던 헬라도 로마에 의하여 저지되고 말았다.
- (5)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민을 보호하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어떠한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참조, 롬 8:33-39).

20. **㉠** 다니엘에게 나타난 자의 사명(使命)은 무엇인가? (21절)

- ㉠** (1) 그는 다니엘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 주기 위해 나타났다.
- (2)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자신을 도와서 바사나 헬라의 군(君)과 대적하는 자는 미가엘뿐이라고 한다.



- (3) 책은 본래 우리 유한한 인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한 지식 전달과 보관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귀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만을 사자가 전하고 다니엘은 이것의 온전한 성취를 기대하라는 의미에서 그 책을 보이리라고 하신 것 같다.
- (4) 그런데 본절에서 언급한 '진리의 글'이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책으로 묘사되어 있다(참조, 시 139:16; 말3:16; 계5:1).
- (5) 한편 본장 전체의 흐름인 영적 전쟁의 특징을 잘 표현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 (6) 그렇지만 이는 반드시 미가엘만 싸운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으며 더우기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참조, 왕하6:17; 시34:7; 91:11; 마26:53).

## 연구자료

### 미가엘 (Michael)과 가브리엘 (Gabriel)

성경에는 천사(天使)라는 단어가 250여 회나 넘게 나온다(창 19:1; 삼하 24:16; 욥 33:23; 마 4:11; 행 12:10; 히 2:5; 계 1:1).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골 1:16) 지·정·의를 가진 존재(눅 2:13; 벧전 1:12; 유 1:6)인데 하나님을 보좌하며 그분의 사역을 돕고 있다. 이러한 천사에는 스랍(사 6:1-3)과 그룹(창 3:22-24)도 있으나 본서에는 천사장 미가엘(13, 21절; 12:1)과 가브리엘(8:16; 9:21)만 언급되어 있다.

① '미가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냐'이다. 본서에는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천사로 나와 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군장(君長) 및 대군(大君)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13절; 12:1).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The Jehovah's Witness)들은 이 미가엘이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억측일 뿐이다. 한편 미가엘에 대한 언급은 본서 이외에도 유 1:9에 나오는데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가브리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이다. 구약 외경인 에녹서(the Book of Enoch)에 의하면 가브리엘은 미가엘, 라파엘(Raphael), 우리엘(Uriel)과 더불어 천사장(archangel)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을 수 없는 전승일 뿐 성경에서 가브리엘을 가리켜 천사장이라고 칭한 곳은 없다. 이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직무를 맡은 천사인데(참조, 눅 1:8-38) 본서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8:16; 9:21).

# 제 11 장 진리의 글에 기록된 비밀들

단락구분 1:4 바사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에 관한 예언 / 5-20 두 왕국에 관한 예언 / 21-29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Antiochus Epiphanes IV) 에 관련된 예언 / 30-39 안티오쿠스로 인한 피해와 비탄 / 40-45 안티오쿠스의 파괴와 멸망에 관하여

1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2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네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3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4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5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 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7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풀려가리라

10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의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11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불인 바 되리라

12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엮드려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15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광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17 그가 결심하고 천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폐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18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20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21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케플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2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3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24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쁨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

한 재물을 우리에게 훔쳐 주며 모락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가 지 그리하리라

25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락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26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흠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27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처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28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 이는 것담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34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궤물로 그들과 친할 것이며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회개 되어 마

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36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38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39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4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때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 나리라

42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43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1. ㉠ 본장의 예언적 의미를 설명하라.

- ㉠ (1) 본장은 앞에서 다니엘에게 비밀리에 보여 주기로 한 진리의 글에 관한 기록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본서의 마지막 장인 12장까지 연결된다.
- (2) 특히 본장에서는 바사 제국의 쇠진(衰盡)과 헬라의 등장으로 인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득세를 자세히 예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3) 그렇지만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안티오쿠스가 한창 전성기를 누릴 때 죽게 되고 그 결과 헬라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4) 이와 같은 예언은 단막극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나타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압제자들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5) 결국 다니엘에게 보여진 비밀한 예언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통치자는 바로 그분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2. **㉠ 비밀한 내용의 첫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바사에게 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후에 다시 일어나는 네째는 앞의 세 왕보다 부요하고 그 부로 인하여 강해지므로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헬라를 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 (2) 바사는 본래 여덟 왕이 있었는데 여기서 세 왕이라고 한 것은 이미 언급된 시기가 다리오 원년이므로 (1절) 고레스(Cyrus, B. C. 539-530) 와 캄비세스(Cambyses, B. C. 529-523) 그리고 다리오 히스타스페스(Darius Hystaspes, B. C. 522-485) 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3) 그리고 네번째 왕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렸던 크세르크세스(Xerxes, B. C. 485-464) 를 가리킨다.
- (4) 크세르크세스는 모든 사람을 격동하여 헬라를 칠 것인데 헬라는 히브리 성경에 <아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헬리어 <이오니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헬리어의 가장 발달된 일부 지역만을 가리키는 말이며 유대와 근동 지방에서 사용되었다.
- (5) 따라서 네번째 왕인 크세르크세스는 근동 백성을 격동시켜 <아완>, 즉 헬라를 공격하게 하였고 그의 통치 구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3. **㉠ 바사가 강성해질 때 어떤 자가 일어나 통치하게 되는가? (3절)**

- ㉠** (1)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것이다.
- (2) 이 말씀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 C. 336-323) 에 대해 묘사한 것이다.
- (3) 그런데 알렉산더는 큰 권세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여 신처럼 추앙을 받게 되므로 지극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특권까지 빼앗아 행사하려 했다.
- (4) 이런 교만은 곧 그의 패망을 의미하며 왕국의 종식(終熄)을 가리킨다.
- (5)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방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단지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4. **㉠ 교만한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4절)**

- ㉠** (1)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이는데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가 계획하던 대로 되지 아니하며 그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들로 인하여 분할(分割) 될 것이다.
- (2) 알렉산더는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작스런 병으로 죽게 되므로 그의 통치 구역은 네 명에 의하여 분할되었다(참조, 7장의 ㉠7).
- (3)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그 땅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의 두 아들과 동생 그리고 아내와 80세의 노모까지 모두 살해되었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알렉산더가 저지른 살륙에 대하여 행해진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다.
- (5)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참조, 마 5:18)과 같이 알렉산더가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다.
- (6)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에 근거하여 그분의 계획에 순응하는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5. ㉠ 분할된 나라 중에 어느 지역의 왕이 득세하게 되는가? (5절)

- ㉠ (1) 분할된 네 개의 나라 중에 남쪽의 왕인 프톨레미 (Ptolemy) 가 가장 강할 것이지만 그의 부하 장군 중에 왕보다 더 강한 자가 일어나서 처음 왕이 통치하던 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부터 애굽과 수리아에 관한 내용의 예언이 시작된다.
- (3) 애굽의 통치권을 쥔 프톨레미의 부하 중 셀류쿠스 (Seleucus) 가 애굽을 반역하여 안티옥 (Antiochus) 을 중심으로 수리아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그 힘이 애굽보다 더 강하였다.

6. ㉠ 수리아 왕국이 강성해지자 애굽과 수리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6절)

- ㉠ (1) 그들은 몇 해 후 서로 맹약 (盟約) 하여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 화친할 것이다.
- (2) 이 예언의 결과 수리아 왕국의 세력이 강해지므로 애굽은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스 (Berenice) 를 안티오크스 테오스 (Antiochus Theos) 에게 주어 결혼하도록 하였다.
- (3) 이런 방법으로 두 왕국이 동맹을 하여 힘을 키우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7. ㉠ 결혼 동맹으로 힘을 키우려고 했던 두 왕국은 어찌 되었는가? (6절)

- ㉠ (1) 애굽의 공주 베레니스는 왕비가 되었으나 세력을 얻지 못하고 그녀의 자식도 세력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수리아의 왕과 함께 모두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
- (2) 이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더욱 확실히 드러나는데 안티오크스에게는 라오디스 (Laodice) 라는 이복 여동생이자 본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략상 애굽의 공주인 베레니스와 결혼을 하므로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일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3) 즉 라오디스는 강렬한 질투심에 의해 남편인 안티오크스를 독살하였고 자신의 연적 (戀敵) 이었던 베레니스와 그녀의 아들도 살해하였다.
- (4) 따라서 셀류쿠스 왕조와 동맹하여 더 큰 세력을 얻으려고 했던 프톨레미 왕조는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고 더 큰 재난만 당하게 되었다.
- (5)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인간들이 자신만 위하여 세우는 계획의 한계성과 그 허구성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 (6) 한 나라와 단체의 정책을 수립하는 자들은 근시안적 발상 (發想) 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8. ㉠ 애굽과 수리아의 결혼 동맹이 깨진 틈에서 어떤 자가 세력을 잡게 되었는가? (7절)

- ㉠ (1) 애굽 공주의 본족 (本族) 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
- (2) 본절에서 언급된 사람은 애굽의 프톨레미 3세인 유에르게테스 (Euergetes, B. C. 247-221) 이다.
- (3) 그는 자기의 누이 베레니스를 죽인 자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코일레-수리아를 침공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단 그 공격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 (4) 그 결과 유대 지역의 일부를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에 관한 예언이 본장에 잘 나타나 있다.

9. ㉠ 프톨레미 3세의 전쟁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8, 9절)

- ㉠ (1) 프톨레미는 전쟁을 일으켜 초반에 승리를 거두어 수리아를 노략한 뒤 노략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 후 얼마 동안은 수리아와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다.
- (2) 사실 프톨레미는 수리아를 침공한 후 그곳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신상들을 애굽으로 운반해 갔는데 이는 피정복자에 대한 정복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참조 사 46:1 ;

렘 48:7;49:3).

- (3) 그러나 힘을 기른 수리아는 애굽에 보복 공격을 하게 되고 그 공격이 끝난 뒤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 (4) 즉 B. C. 242년에 수리아의 셀류쿠스 2세 (Seleucus II. B. C. 246-226)는 애굽에 복수하려고 바다와 육지로 침공했으나 실패하여 대패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 여기서 애굽은 안디옥과 대부분의 셀류코스 제국을 함락시켰다.

10. ㉠ 애굽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셀류쿠스 왕조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였는가? (10절)

- ㉠ (1) 전쟁에서 패배한 셀류쿠스 2세 칼리니쿠스(Collinicus, B. C. 246-226)의 아들들이 전쟁 여 애굽으로 침공하게 하였다.
- (2) 이 귀절은 셀류쿠스 3세인 케라우누스(B. C. 226-223)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기록이다.
- (3) 그들은 부모와 동생을 모두 살해한 애굽의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Philopator, B. C. 221-203)와 전쟁을 하였다.
- (4) 애굽 왕은 많은 범죄로 인하여 경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그들이 잃은 영토를 되찾는 적절한 시기로 생각하였다.
- (5) 수리아의 군대는 보병에서, 애굽 군대는 기병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병력면에서는 비슷했으나 칼리니쿠스의 아들들은 필로파토르가 부모를 죽인 일로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기가 충천하였다.

11. ㉠ 수리아의 침공을 받은 필로파토르는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11, 12절)

- ㉠ (1) 남방 왕은 격분하여 북방 왕과 싸움을 할 것이다.
- (2) 이때 북방 왕은 남방 왕의 손에 붙인바 되어 패배를 당하고 수만 명이 희생될 것이다. 그러나 남방 왕의 세력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된다.
- (3) 이 사건은 B. C. 217에 필로파토르가 안티오쿠스를 공격하려 나간 것을 가리키는데 그는 보병과 기병과 코끼리를 동원하여 안티오쿠스를 쳐부수었다.
- (4) 필로파토르는 이런 승리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말았다.
- (5)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일에 합당한 징벌을 행하신다(참조, 삼상 2:22-25; 13:8-15).

12. ㉠ 애굽에 패한 북방 왕은 그대로 포기할 것인가? (13, 14절)

- ㉠ (1)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준비하여 더 많은 군사를 모아 몇 해 후에 재공격을 할 것이다.
- (2) 이때는 애굽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대적할 것이고 유대인들도 안티오쿠스와 합세하여 애굽과 투쟁할 것이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 (3) 안티오쿠스가 애굽과의 싸움에서 패한 지 14년이 지난 B. C. 203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다시 애굽 원정길에 나서게 되었다.
- (4) 이번의 원정에서 안티오쿠스는 동맹자들을 얻어 더욱 의기 양양해졌다.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가 전승을 거두면서 애굽의 중심부까지 쳐들어가게 되자 그와 합세를 하였는데 다니엘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13. ㉠ 애굽과 싸움을 한 수리아의 전과(戰果)는 어떠한가? (15절)

- ㉠ (1) 북방 왕은 애굽을 침공하여 토성(土城)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이며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 (2) B. C. 198년 애굽의 장군 스코파스가 파네아스에게 안티오쿠스와 싸우다가 패배하여요

새를 빼앗긴 사건과 관련된다.

- (3) 스코파스는 애굽에서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시작했으나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그의 영지는 물론 팔레스틴 지역도 가사를 포함한 전지역이 수리아 왕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14. ㉠ 북방 왕은 자신의 힘을 믿고 어떤 행동을 보여 주었는가? (16절)

- ㉠ (1) 그는 모든 일을 임의로 행하니 능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 (2) 안티오쿠스 3세가 승승 장구하므로 애굽 뿐 아니라 유다 땅에까지 들어와 약탈하게 될 것을 예언한다.
- (3) 본래 유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땅이며 하나님의 거처로 영원히 설 곳(시 132:14) 임에도 불구하고 폭군에게 짓밟히도록 허용되었다.
- (4)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세상의 향락이나 육체적 쾌락에 빠져 들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시는 것과 같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롬 8:18) 임을 알아야 한다.
- (5)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인간은 점차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

15. ㉠ 북방 왕은 마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17절)

- ㉠ (1) 그는 남국 왕의 전영토를 점령할 마음으로 화친하려는 것처럼 꾸며 젊은 여인을 남국 왕에게 보내어 남쪽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공동 번역).
- (2) B. C. 199년에 안티오쿠스 3세는 세번째로 코일레-수리아를 침범하여 큰 승리를 거둔 뒤 B. C. 192년에 안티오쿠스 3세와 프톨레미 5세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였다.
- (3) 이 조약은 안티오쿠스 3세가 흑심을 품어 애굽 전역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그는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에게 주어 결혼하게 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B. C. 173년에 그녀는 죽고 말았다.
- (4)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무산되었던 것이다.

16. ㉠ 계획이 무산된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정책을 바꾸는가? (18, 19절)

- ㉠ (1) 남쪽 애굽을 치려던 계획을 변경한 뒤 섬들을 점령하려는 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간다. 그러나 그 앞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그의 위세를 꺾어 버릴 것이다.
- (2) 한편 유대인들은 항해 기술의 미숙으로 바다 건너편의 모든 지역을 '섬'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 (3) 따라서 본절에 언급된 곳은 소아시아와 그 해변 그리고 헬라와 구브로 섬 및 지중해의 모든 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4) 안티오쿠스의 세력 중심지는 수리아였으나 길리기아까지 장악하였다. 그러나 육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위에 언급한 지역을 점령한 것이다.
- (5)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수리아는 로마와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이때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Scipio, B. C. 236-184)는 3만의 군대로 7만의 안티오쿠스 군대를 깨뜨리고 대승을 거두었다.
- (6) 따라서 본절에 예언된 대로 안티오쿠스는 유럽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수모를 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17. ㉠ 정책에 실패한 안티오쿠스 대신 왕위에 오른 자는 어떠한가? (20절)

- ㉠ (1) 후계자는 토색(討索)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

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 (2) 그는 셀류쿠스 3세의 조카이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형인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Seleucus IV Philopator, B. C. 187-175)이다.
- (3)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그 대신 총리 대신 헬리오도로스(Heliodorus)를 보내 성전에 보관된 기금을 몰수하게 하였다.
- (4)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재정은 그의 탐욕으로 인하여 매우 궁핍했으며 특히 로마와의 조약 체결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 (5) 그래서 그는 총리 대신인 헬리오도로스에게 살해되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18.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어떻게 통치를 하였는가? (21-24절)

- ㉠ (1) 셀류쿠스 4세의 총리였던 헬리오도로스가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에피파네스는 왕위를 넘겨 주지 않았다.
- (2) 그는 비천한 사람으로 매우 간교한 자이었으며 그는 모든 면에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이었다.
- (3) 그는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을 펴서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었으나 그도 암살당하여 정권을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19.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21절)

- ㉠ (1) 그는 비천하고 궤환이 많은 사람이다.
- (2)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왕위를 주려고 하지 않는데 그는 평안한 때를 틈타 자신의 궤환으로써 그 나라의 위를 얻은 것이다.
- (3) 비천하다는 본질의 의미는 출신 성분이 그렇다는 말이라기 보다는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비천하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 (4) 이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작은 빨로 소개되었다(7:8;8:9). 따라서 본래 왕권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인데 교묘한 수단을 이용하여 왕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20. ㉠ 안티오쿠스의 정복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22, 23절)

- ㉠ (1) 그가 궤환로 나라를 얻은 뒤 그를 대적하는 자 뿐 아니라 약조(約條)한 자들도 기만하고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 (2)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아들인 그녀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안티오쿠스 3세가 약속한 땅 코엘레-시리아(Coele-Syria)의 양도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 (3) 그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애굽과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였다(B. C. 171년). 그 뿐 아니라 에피파네스는 시몬 2세와 아들이자 셀류쿠스 4세 시대의 대제사장이며 신정(神政)의 실질적 지도자이던 오니아스 3세(Onias III)도 죽였다.
- (4) 그리고나서 그는 조카인 애굽 왕 프톨레미 필로메토르(Ptolemy VI Philometor, B. C. 180-146)와 평화 조약을 체결한 뒤 스스로 그 조약을 깨면서 애굽을 속이고 조그만 도시를 하나씩 점령하였던 것이다.

21. ㉠ 애굽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에피파네스의 간교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24절)

- ㉠ (1) 그는 평화 조약을 믿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애굽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노략물을 탈취해 무리들에게 흠여 주며 모략을 베풀 것이다.
- (2) '기름진 곳'은 애굽에서 비옥하기로 알려진 나일 강 하류에 위치한 하애굽을 가리킨다. 안티오쿠스는 그곳을 탐내어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하고 속으로는 그곳을 조금씩 점령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3) 그리하여 그의 조상들이 소유하기 원했던 애굽을 점진적으로 자기의 손안에 넣었던 것



이다.

- (4) 그렇지만 그는 매우 사치하고 낭비가 심하였기 때문에 탈취한 재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 (5)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는 사단의 간교한 술책이 에피파네스의 간교와 유사하다. 평화와 뇌물 등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산 뒤 그 후에 사단은 계획대로 그들을 쓰러뜨려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 (6) 따라서 성도들은 사단의 간교한 술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고 욕심에 이끌린 결정보다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참조, 마 10:16; 롬 16:19; 빌 2:15).

22. **㉠** 에피파네스는 간교한 피로 세력이 우세해지므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타났는가? (25절)

- ㉠** (1) 그는 큰 힘과 용맹으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다.
- (2) 남방 왕도 이에 맞서 싸우지만 에피파네스의 모략이 뛰어나므로 애굽 군대가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 (3) 본절부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제 2차 애굽 원정에 대해 예언이 서술되고 있다.
- (4) 에피파네스는 피를 내어 두 곳에 왕을 세워 경쟁하게 하므로 애굽의 힘을 분산시켰다.
- (5) 그리하여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는 프톨레미 7세 피스콘(Ptolemy VII Pison, B. C. 170-117)을 세웠고 멤피스에는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Ptolemy VI Philometor, B. C. 180-146)를 세웠다.
- (6) 이와 같이 애굽은 많은 군대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아 왕을 당해 내지 못하였다.

23.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제 2차 애굽 정벌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6, 27절)

- ㉠** (1) 그와 함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고 많은 자가 옳되려 죽을 것이다.
- (2) 또 두 왕이 한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으나 서로 해코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거짓 말을 할 것인데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 (3) 이 귀절은 애굽의 프톨레미 6세가 자기의 측근들로 인하여 배반의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다.
- (4) 또한 프톨레미 6세와 에피파네스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만 서로의 야심은 각각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평화는 아무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 (5)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은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고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로 융합될 수 없다.
- (6) 따라서 시편 기자는 복있는 성도들에 관하여 악인의 피나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참조, 시 1:1, 2).

24. **㉠** 애굽을 침공한 수리아의 에피파네스는 귀환하는 데 어떤 일을 하였는가? (28절)

- ㉠** (1)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마음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깨뜨릴 마음이 일어나 그 일을 행한 후에 돌아갈 것이다.
- (2)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공한 뒤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유다를 잔인하게 강탈할 것이 예언된 것이다.
- (3) 이 예언에 대한 역사적 성취의 기록은 외경인 마카비 상서 1:20-29와 마카비 하서 5:11-17에 언급되어 있다.
- (4) 이것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에서 수리아로 귀국하는 도중에 행한 그의 첫번째 공격을 말한다.

(5)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옛 언약의 제도 즉 유대인의 신정 정치(神政 政治)를 의미하는데 에피파네스는 유대를 통과하면서 잔인한 파괴를 행하므로 그 언약을 깨뜨렸다.

25. ㉠ 에피파네스가 세번째 애굽을 침공할 것에 관한 예언은 어떠한가? (29, 30절)

- ㉠ (1) 작성된 기한에 에피파네스가 남방으로 다시 내려갈 것이지만 이번에는 2차 때보다는 못할 것이다.
- (2) 그 이유는 깃딤의 배들이 그의 길을 방해하고 그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 (3) 시대적으로 이때는 B.C. 168년 봄에 해당하는데 필로메토르와 피스콘이 연합하여 에피파네스를 대항했다. 그 뿐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깃딤의 배들이 에피파네스의 길을 가로막았는데 깃딤은 로마를 가리키기도 한다.
- (4) 한편 외경 마카비 1서 1:1과 8:5에서 깃딤은 마게도니아 해석되는데 이런 견해에 따라 혹자는 그 배를 로마 사신이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타고 왔던 마게도니아의 함대로 주장하고 있다(Berthold, Dereser).
- (5) 로마의 사신은 포필리우스(Popillius)의 인도를 받아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났는데 그때 그 사신은 에피파네스에게 애굽에서의 전쟁을 그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위협적인 명령을 하였다.
- (6) 따라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1, 2차 침공 때처럼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는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성취되었다.
- (7) 이것은 로마가 애굽을 수리아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 손 안에 넣으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민 24:24에 발람에 의하여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다.

26. ㉠ 3차 원정에 실패한 에피파네스는 귀국길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30, 31절)

- ㉠ (1) 그는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파괴하고 군대를 보내어 성소와 요새를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 (3)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에피파네스는 분풀이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극심한 박해를 가하게 된다.
- (3) 모세 율법에 의하여 정립된 규례들을 불법으로 정하고 금지시켰으며 거룩한 성소 안에 우상, 즉 미운 물건을 세웠는데 그것은 제우스(Jupiter)였다. 그리고 성전의 남쪽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 (4)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몰락이 다가오면서 최후의 저항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였다.
- (5) 이와 같은 어려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곧 닥쳐오게 될 것이다(딤후 3:1).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함으로 든든히 무장을 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할 것이다(참조, 엠 6:10-17).

27. ㉠ 두려운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32, 33절)

- ㉠ (1)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강한 힘과 용기를 발휘해야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
- (2)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불의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칠 수 있다.
- (4) 일관성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넣어 줄 수 있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히 12:1).

28. ㉠ 신앙을 지켜나가려는 그리스도인이 당해야만 할 고난은 무엇인가? (33-35절)

- Ⓐ (1) 그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쇠패(衰敗)하게 될 것이다.
- (2) 이런 때에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자들이 없고 오히려 계교로 괴롭히는 자들이 더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간에만 정해진 고난의 기간도 되어질 것이다.
- (3) 여기서는 불의와 비진리에 대하여 항거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의 십자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4) 그러나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 때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 점점 약해지고 쓰러질 위기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보내사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견고히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신다.
- (5) 이런 고난의 기간에도 즐겁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시련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후에 주어질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 (6) 따라서 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시련의 유익에 관한 말씀(참조, 창 22:1-18; 시 66:10-12; 사 48:9-11; 말 3:3, 4; 약 1:3, 4, 12; 벰전 1:6-9)이 큰 힘이 될 것이다.

29.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교만함이 극에 달한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36, 37절)

- Ⓐ (1)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데 모든 신보다 더 높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도 자기 밑에 내리는 불경한 죄를 범하였다.
- (2) 그렇지만 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 (3) 그는 자신의 공적이나 권위를 앞세워 스스로 높은 지위에 올려 놓는다 (8:25; 살후 2:4).
- (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피파네스를 들어 유다 백성의 죄를 징책하시는 방편으로 사 용하셨기에 (8:19; 9:17; 사 10:15, 23, 25) 당신의 분노가 그치는 때 에피파네스의 명(命)도 다하는 것이다.
- (5)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만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즉시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 (6) 그러나 결국에 가서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참조, 잠 24:12; 암 8:7; 계 20:12, 13).

30. ⓐ 이렇게 교만해진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38, 39절)

- Ⓐ (1) 그는 모든 신들을 멸시하는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하고 선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며 공경할 것이다.
- (2) 또한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 (3) 안티오쿠스가 의뢰한 ‘세력의 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카일과 델리취(Keil & Delitzsch)는 요새의 신이라는 말하지만 혹자는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Grotius, Gesenius).
- (4) 따라서 그의 이름도 ‘현현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불리웠던 것이다.
- (5) 이와 같은 교만은 곧 신성 모독과 같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며 하나님만을 위해 준비된 자리까지 탈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6)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공공연히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비인간적 대우로 학대받고, 인간의 기본권마저도 짓밟히는 인간 존엄성의 박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7)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8) 그렇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는 안티오쿠스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종말을 맞이할 뿐이다.

31. **㉠** 마지막 때에 애굽 왕과 수리아와의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40, 41절)

- ㉠** (1)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북방 왕에게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북방 왕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 물밀듯이 밀고 내려와 남방 왕을 쳐부수고 영화로운 땅까지 침략하고 많은 나라들을 때망케 할 것이다.
- (2) 마지막 때 (히, 우베에트 케츠)는 세상의 종말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이때는 에피파네스 통치의 최후 시대에 관련하여 이해되어진다.
- (3) 애굽 왕이 수리아 왕에게 도전한 적이지만 결과는 완패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 땅까지 북방 왕의 발 아래 짓밟히고 말았다.

32. **㉠** 북방 왕의 세력이 확장되는 가운데 안전하게 피한 자는 누구인가? (41절)

- ㉠** (1) 이와 같은 난리 중에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북방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 (2) 이 말씀은 에돔과 암몬이 유대인을 치기 위한 작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외경 마카비상서 5:3-8; 4:16).
- (3) 모압이나 암몬, 에돔은 모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같은 세력끼리 상부 상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4)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서로가 원수와 같은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그들의 사사로운 감정도 덮어두고 단합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참조, 눅 23:12).

33. **㉠** 수리아의 침공 세력은 어떤 강도(強度)를 갖고 있는가? (42, 43절)

- ㉠** (1) 그들의 침공에 대하여 애굽도 피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탈취할 것이다. 그리고 리비아의 구스 사람도 정복당하여 그들의 시종이 될 것이다.
- (2)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정벌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진행되므로 어느 누구도 감히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 (3)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많은 재물을 탈취하고 주변 국가들을 장악하여 자신들을 위한 종으로 삼을 것이다 (참조, 렘 46:9; 젤 30:5).
- (4) 이는 곧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5) 이처럼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은 엄청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신앙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34.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에 관한 예언은 어떠한가? (44, 45절)

- ㉠** (1) 그는 들려오는 소문으로 번민하고 분노하여 많은 무리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 그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다.
- (2) 이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B. C.165년초 파르티아의 위협을 막기 위한 국경 수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쪽으로 진군한 것에 관한 내용이다.
- (3) 에피파네스는 그해 겨울에 페르시아의 다베에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참조, 외경 마카비상서 6:4-16).
- (4) 이 예언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예언 속에서 불의한 압제자들의 종말이 반드시 오며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굳게 믿어야 한다.

# 제 12 장 마지막 때에 대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단락구분 1-3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 성도들을 구원하시다 / 4 예언의 비밀을 명하다 / 5-7 마지막 때에 관하여 두 천사가 대화를 나누다 / 8-13 종말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1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5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6 그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라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기로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

는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한가

9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울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2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 일까지 이르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 1. ㉠ 본서에서 본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가?

- ㉠ (1) 본장은 본서의 마지막 장으로 본서에서 보여 준 모든 예언에 관한 총정리의 역할을 한다.
- (2)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난과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성도들에 관하여 묘사되었고 다니엘에게는 종말의 비밀을 알리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본서의 전체를 정리하는 위치에서 본장에는 마지막 환난의 때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예비된 평안을 잘 설명하고 있다.
- (4) 따라서 본서의 전체를 정리하는 성도들의 위치에서 한 가지 다짐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예비된 하늘나라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다.
- (5) 이런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부딪히는 적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 2. ㉠ 마지막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 (1절)

- Ⓐ (1) 그때에 세상에는 개국(開國) 이래로 겪어 보지 못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유대 민족을 위하여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 중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 (2) '이때'는 물론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종말에 관계된 시간 개념이다.
- (3) 그러나 조금 더 영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70이레의 후반부이며(9:27)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무서운 환난의 때를 가리킨다(참조, 렘 30:5-7; 계 12:7-17; 15-18장).
- (4) 이미 에피파네스는 신약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되었고 그의 죽음 이 임박하여 행동하는 최후의 반항은 성도들이 어떤 결단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 (5)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극복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에 기준하여 구원할 자를 선별하시는 것이다.
- (6) 그렇지만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인간이 너무 무능하여 말세의 강한 시련을 극복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인 미가엘을 통하여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다(참조, 예 8:11; 9:16; 유 1:9; 계 12:7).
3. Ⓢ 말세의 환난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1절)
- Ⓐ (1) 환난 중에도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 (2) 여기서 언급한 책은 생명책을 의미하는데(참조, 출 32:32) 사 4:3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책이다.
- (3) 이 책은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을 기록한 책이다.
- (4) 따라서 '책'이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經綸)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엡 1:4) 그분의 책이란 택함 받은 우리들을 자신에게 속하도록 예정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으로 볼 수 있다.
4. Ⓢ 마지막 때에 밝혀질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라 (2절).
- Ⓐ (1) 그때에 이미 죽어 땅에 묻혀 있던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그중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수욕을 입어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게 될 것이다.
- (2) 이 말씀은 죽은 자의 일반적 부활에 관한 언급이다(참조, 요 5:28, 29; 행 24:15).
- (3) 따라서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에피파네스의 압제 때에 굳세게 대항하다 순교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잠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악인들과 타협했던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부활이 있게 될 것을 가리킨다.
- (4) 이런 부활의 묘사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에스겔의 환상(겔 37장)과 연결이 되며 안티오쿠스로부터의 유대인의 해방과 회복도 이런 의미와 연관시킬 수 있다.
- (5)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백보좌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분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5. Ⓢ 영원토록 기억되고 빛나게 될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3절)
- Ⓐ (1)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고 하였다.
- (2) 여기에 언급된 자들은 어려운 수난을 경건과 신앙으로 극복한 자들을 가리킨다.
- (3)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이다(참조, 시 53:1).
- (4)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다가 순교한 자들(아벨, 세레 요

한, 스테반, 야고보 등) 뿐 아니라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순교자들(폴리갑, 주기철, 손양원 등)은 후세 신앙인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된다.

(5)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를 위한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인 것이다(약5:19).

6. **㉠**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설명이 있는 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 귀절은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라는 뜻이다. 즉 불신자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고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말라는 의미이다.
- (3)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그것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참조, 암8:11).
- (4) 그러나 오늘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공개되었는데 그 의미는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때가 곧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다.
- (5) 이와 같은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며 어떤 길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멸망의 심판을 피해야 한다.

7. **㉠** 다니엘이 본 두 사람은 어떤 곳에 있었는가? (5절)

- ㉠** (1) 다니엘은 두 사람을 보았는데 강을 중심으로 하나는 강 이편에, 하나는 강 저편의 언덕에 서 있었다.
- (2) 본절에 언급된 두 사람은 두 천사를 가리키고 그들이 나누어 선 강은 티그리스(헷데켈) 강을 의미한다(참조, 10:4).
- (3) 본래 천사는 영물(靈物)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형체를 갖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요 1:14; 딤편 3:16)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잠시 육신의 형체를 띠고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8. **㉠** 두 천사의 대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6, 7절)

- ㉠** (1) 그들은 예언의 성취가 언제쯤 될 것인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 천사가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대답하면서 그때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하였다.
- (2)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에 관하여는 천사도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마 24:36).
- (3)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확실히 답하지 못하고 이미 앞에서 말한 기간, 즉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서 이루어진다는 말(참조, 7장의 ㉠23) 이상은 할 수 없었다.
- (4)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가 세상의 끝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감지(感知)할 수는 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 심한 핍박이 몰려올 뿐 아니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마 24:4-14, 29-34).

9. **㉠** 다니엘이 두 천사의 대화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8, 9절)

- ㉠** (1)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의 결국에 대하여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명령하신 것처럼(4절)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하셨다.
- (2)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였어도 그것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고 봉합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평안히 가라. 이 문제는 그대로 두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도록 봉합해 두라는 의

미이다.

- (3) 그렇지만 이 비밀을 완전히 봉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11, 12절)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10. ㉠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의 차이는 무엇인가? (10절)

- ㉠ (1) 선인은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 하는 자이다. 그러나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이다.
- (2) 연단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금이나 은도 가치가 떨어진다(참조, 잠 17:3; 속 13:9; 말 3:2, 3; 롬 5:3, 4; 계 3:18).
- (3) 성도들도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정결하게 되고 가치있는 자가 될 수 있다.
- (4) 그에 반하여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그것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권면하신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갖도록 하신다(참조, 마 10:16; 롬 16:19).

11. ㉠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 일을 지나야 세상의 끝이 오며 일천 삼백 삼십 오 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 (2)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예배가 적그리스도의 방해로 금지되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9:27; 마 24:15; 살후 2:4) 그 기간이 1290일 정도 될 것이다.
- (3) 그런데 성도들이 그 환난의 기간과 함께 45일을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 주셨다.
- (4)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데 예수께서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있다(참조, 마 24:3).
- (5)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갈 5:22, 23)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필연성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당연한 신앙의 덕이기 때문이다.

12. ㉠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예언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하였는가? (13절)

- ㉠ (1)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고 말하였다.
- (2)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한 다니엘에게 마지막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 (3) 비록 예언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맡은 역할을 다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7:18, 27; 계 20:6).
- (4)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성도들에게 큰 희망을 준다. 즉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18)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본장의 요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도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2절).



## 연구자료

### 구약에 나타난 부활 사상

‘부활’(resurrection)은 기독교 뿐 아니라 유대교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리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는 귀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사르밧(Zarephath) 과부의 아들(왕상 17:17-19)과 수넴(Shunem) 여인의 아들(왕하 4:32-34) 그리고 엘리사의 묘실(墓室)에 던져졌던 시신(屍身, 왕하 13:20, 21)이 다시 살아났음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종말에 있을 모든 사람의 부활(고전 15:12-58)을 실증하는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실례가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비록 모호한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표출되기 시작하던 부활 사상이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족장 시대 초기의 인물로 확실시되는 욥은 자신이 죽은 후 부활하여 하나님을 뵈게 되리라고 말하였다(욥 19:25-27).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 귀절이 종말론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욥이 이미 사후 세계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상은 모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신 32:39) 더 나아가 한나의 감사 기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삼상 2:6). 뿐만 아니라 시 16:9-11에도 이와 유사한 언급이 나와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부활 사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는 선지자들에 의해서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 25:8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의로운 자의 부활을 예언한 귀절이다. 한편 에스겔은 겔 37:1-10에서 마른 뼈가 소생(蘇生)하는 환상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물론 이것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지만 죽은 자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구약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자는 다니엘이다. 그는 본장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2절)라고 예언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부활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구약은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라 하겠다.